

ISSN 1739-8932

충남 문화

ChungNam Culture

2005
제 9호

충남의 꼭
가 봐야 할
곳

민화칼럼 - 지역문화와 그 기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www.cult21.or.kr



공주 · 금산 · 논산 · 당진 · 대천 · 부여 · 서산 · 서천 · 성환
· 아우내 · 예산 · 온양 · 조치원 · 천안 · 청양 · 태안 · 홍성

연(鳶)을 날리며

권선옥

때로는 우리의 근심이나 시름 같은 것들이
이렇듯 아스라이 멀어져가기도
한단 말인가.
저, 저, 불타오르는 허드렛볼 연기 사이로
훨훨 불타는 불꽃 사이로
온갖 걱정 근심이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한단 말인가.
흐느끼는 강을 끼고
사내 하나가 빈 들판을 가고 있다
등 굽은 사내, 비틀걸음.
부는 바람에 하늘 높이 연을 띄워 놓고
바라보다가 바라보다가
탕— 바람이 차고 가버린
작은 가오리연 찾아 가는지
눈 먼 흙어미 찾아 가는지

○충남 논산 출생
○'현대시학'의 추천으로 문단에 오름(1976)
○장비산작시집 『우리가 밟고 가는 모든 길 위에』에 참여(1985)
○충청남도문화상 수상(1990)
○시집 『불꽃 사랑』, 『떠도는 김씨네』, 『겨울에도 뜨는 나무』, 『사람의 밤 하느님의 밤』
○현재 한국문인협회충남지회장

충남문화

제9호

C h u n g N a m C u l t u r e

• 발행일자 2005년 12월 / 연 1회발행

• 발행인 박응진

• 편집인 이준창

• 편집위원(가나다순)
박응진(도지회장), 권연옥 김호택 박노을 송용삼
신상찬 양수철 우용제 윤병배 윤준웅 이진자
장영 전용택 정우영 정정희 정재권 정재욱

•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320-030 논산시 내동 279-4번지
Tel. (041)730-4632 Fax. 732-2394

• 편집디자인

봄커뮤니케이션

• 표지디자인

사희민 교수(한남대학교 디자인학과)

Contents

003 권두시

• 연을 날리며 / 권선옥

006 권두언

• 박응진 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

008 축간사

•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 박동윤 충청남도도의회의장

012 특별기고

• 안에서 밖으로의 문화예술 / 김영천
• 삶의 의미를 깨닫는 문화정책 / 정경일
• 시골문화원이 나아갈 길 / 김호택

024 문화칼럼

• 지역문화와 그 기능 / 한기홍

027 충남의 꼭 가봐야 할 곳

042 해외문화탐방

• 러시아가 남긴 감동의 현장 / 이정우

045 충남의 인물

• 임진 명장 충무공 김시민 장군
• 선비 이지함

058 충남의 민속

• 부인당제
• 용암 강다리

068 충남의 전설

• 금강 관련 설화

073 충남의 문화재

•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
• 어사 박문수묘
• 고령박씨종중재실
• 은석사
• 유서깊은 역사의 도시 성환

082 충남의 향토축제

• 2005 추사 문화제
• 제17회 남이홍장군 문화제
• 제12회 만해제
• 제3회 부여서동연꽃 축제
• 2005 해미읍성병영체험 축제
• 2005 논산 딸기축제

096 문화원 단신

100 충남의 향토사 연구

• 태안 지역의 도교 유적 / 정우영

117 2005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2005년 문화원 활동상황 (가나다순)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132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대전문화원 활동상황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154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173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자체 역량 강화 필요



심 대 평
충청남도지사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문화 창달과 도민의 문화향수 확대에 힘쓰시는 도내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충남의 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모습을 알찬 소식과 함께 엮어낸 『충남문화』제9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이자 서해안의 요충지로 다방면의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도약의 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해는 충청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과 도약을 이룬 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충청지역에 모아지는 현시점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체 역량 강화에 힘써 대외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정보화 물결 속에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적인 욕구와 다양성의 추구는 우리 지역 문화 예술단체가 왕성한 활동으로써 부응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지역 문화원 역시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여 정진할 수 있는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길 기대합니다.

과거 앞만 보고 달리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이면에, 문화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배부른 소리로만 치부되었습니다. 이제 문화가 선진국의 척도이자 화두임을 누구나 직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이 '한류열풍'을 낳고 그 부가가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대변하듯 문화컨텐츠 산업은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로 부강한 중동의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선진국은 문화가 성숙된 나라일 것입니다. 문화는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고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줍니다.

지역문화는 민족문화의 뿌리이자 선진문화로 진입하는 바로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특하고 고유한 지역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키는 선두에 우리 지역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충청지역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호기를 같이 하여 충청 지역의 소중한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역, 국가 나아가 세계 속의 문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민의 화합속에 자체 역량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윤택하게 하며 나아가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한 큰 버팀목은 지역문화원이 바로 그 밑거름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향토문화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충남문화 제 9호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어린 격려와 축하 말씀드리며, 충남의 문화발전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박웅진 전국 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장과 문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5. 12.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문화는 정신을 맑고 아름답게 하는 생활속의 꽃



박 동 윤
충청남도도회의장

우리고장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체 역할을 다해 오고 있는 전국문화원 연합회 충남도지회에서 「충남문화」제9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지역 문화 부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웅진 문화원연합회도지회장님을 비롯한 시·군지역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21C를 문화의 세기로 일컫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선진국들을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고른 발전을 하면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택한 삶은 빵만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문화는 곧 삶의 활력소이며 윤희유인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외 과밀화의 폐단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치·행정·교육 등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나라도 드물며, 특히 그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도 문화적 혜택을 누리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확충도 기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자원의 발굴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문화는 홀로 피는 꽃이 아니라 정치·경제 등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피어나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정신을 맑고 아름답게 하는 생활속의 꽃입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의 꽃이 필때 그 지역주민은 더욱 여유롭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문화원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적 주체성을 살리고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충남문화」제9호가 충남도민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도내 문화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5. 12.

충청남도도회의장 박 동 윤



[안에서 밖으로]의 문화 예술



김영천
한국예총 충남 지회장

문화가 우리의 삶 그 자체에 융해되어 우리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면, 예술은 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지양이 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패턴을 이루어지게 하여 준다. 그러므로 문화 민족일수록 예술의 발달은 그에 맞게 병행하여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높은 문화와 예술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그 생명을 영속적이게 하지 못한다.

만주족 누루하지[奴兒哈赤]가 막강한 힘으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 청나라를 세우고도 끝내 명의 문화에 흡수당함으로써 산산이 무너져버리고는 마침내 그 민족의 말조차 잃어버리는 비운을 안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하다. 문화 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문화란 인지가 깨어 세상이 열리고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되는 일이요, 또한 삶의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또는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인 성과를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이란 그 문화 속에서 일정한 양식과 기교 등에 의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자체에서 항상 병존(並存)하는 거이요, 그 병존의 생활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치로 삶을 장식하게 한다. 아무리 물리적인 힘이 강하더라도 문화 예술의 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만주족의 멸망과 함께 만주어도 사라진 것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각종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짓은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각 지방마다 가지는 문화예술의 틀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각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 [예술제]가 문화예술의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예술인의 장인적(匠人的)인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기존의 자세 변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운야학(閑雲野鶴)의 예술적인 자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인이라고 해서 특정한, 특별한 인간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로가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따뜻한 이웃의 한 사람일 뿐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이웃이다. 그리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함께 하루하루의 시간을 누비는 분명한 생활인일 뿐이다.

다만 다르다는 것은 농부라는 이웃이 호미를 들고 곡식의 낱알을 싹 틔워 기르듯이 예술인은 각자의 예술 분야에서 그 예술의 싹을 일구어 자라나게 하고 수확을 거둔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웃의 농부가 축제의 한마당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듯이 예술가 또한 한테 어울려 그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술가는 내 이웃과 함께 내 자신의 예술이 숨 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예술은 모든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장(老莊)으로부터 받은 무위자연(無爲自然)으로 한정가(閑情歌)나 부르며 은일가(隱逸歌)로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예술가들은 모름지기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

혼자서 예술 창작을 고고하게(?) 할 일이 아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와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예술 활동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웃과 함께 숨쉬고 나의 예술을 이웃의 가슴속에 새겨 넣음으로써 바야흐로 예술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예술인의 자세요 또한 예술가의 책무(責務)이기도 하다. 즉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두 손에 들고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예술 속에 함께 숨쉬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이요, 그 예술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찾아가는 예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예술이야말로 삶 그 자체를 예술 적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방의 어느 도시를 여행할 때의 일이다. 예술의 고장이라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작은 식당에 그 지방 화가의 그림 한 점이 벽면에 붙어 있고, 그 지방의 시인 시작품이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름을 말하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화가가 그 지방 출신이요, 그래서 미술관도 세워져 있으며, 그 지방 출신 작가의 문학관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생전 주민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에게 예술혼을 심어준 후광이라고 여행의 안내자는 말했다.

새삼 찾아가는 예술의 힘에 따른 그 예술가들의 발자취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어느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는 버젓하게 번호가 새겨진 국도에 그 지방 시인의 이름을 새겨 [○○로(路)]라 명명하여 놓았고 새로 난 외곽도로변에 시비공원을 만들어 놓고는 그 도로의 또 [□□로(路)]라 하여 지나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이는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예술혼을 주고받아 결국 문화정신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흐뭇하였다.

다음으로 예술가는 닫힌 공간의 예술활동이 열린 공간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공간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똑같은 예술 활동이라 하더라도 닫힌 공간에서의 활동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무한히 열린 공간 속에서의 예술 활동은 그 활동 자체가 무한하게 된다. 즉 무대에서만을 굳이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열림 무대에서 펼쳐지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닫힌 공간을 열어젖히면 무한한 예술의 공간이 된다. 하천의 둔치도 좋고, 거리의 작은 한 공간도 좋다. 이웃집의 작은 마당이면 어떠랴! 넓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노래하며 춤을 추다보면 어느덧 절로 시가 울어 나오고, 열림 무대에서 연극이 꾸며지게 된다. 그러면 주민들의 가슴속에는 절로 예술의 향기가 배어지게 되어 먼 훗날 민족의 예술로 되살아 피어오르게 될 것이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거리의 작은 공간이며 도시의 작은 숲길이며 하천의 둔치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일면을 보여준다면, 보여주는 족족 예술적인 것이라면 그 아이는 자연 예술의 정신으로 자라날 것이며, 그 예술의 정신으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윤곽하게 하는 자세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빛과 소리가 가능한 열림 공간이라면 모든 예술의 공연장이 되고 창작실이 될 수 있다. 바야흐로 예술의 무대는 열린 공간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터는 예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닫힌 공간의 무대만이 예술의 주무대가 될 수 없다. 열린 공간을 무대로 하여 예술가의 발걸음이 주민들을 향하여 나아가갈 때 진정한 의미의 예술을 살아있을 것이며, 그 무대는 나아가서 민족문화의 창작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참다운 문화민족이 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문화정책



정 경 일
건양대학교 문학영상학과 교수

올해는 짜장면이 우리 국민들의 입맛을 다시게 하기 시작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월 짜장면 100년을 맞아 이 한중 합작 음식의 발원지인 인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펼쳐졌었다. 그런데 이들 행사를 소개하는 언론의 보도에서 우리를 의아하게 만든 희한한 일은 아나운서나 리포터들의 발음이었다. 이들은 애써 이 음식을 '자장면'이라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 사전에 올라 있는 표준발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인터뷰한 모든, 정말 모든 주방장과 음식점 손님들은 한결같이 짜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보도의 첫머리에서는 자장면이라고 말하던 기자들도 어느새 슬그머니 짜장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분명히 사전에는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짜장면을 먹고 있을 뿐이다.

짜장면에 관한 이러한 혼란은 언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 늘 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말은 한 사회의 모든 정신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문화가 바뀌면 말도 바뀌게 마련이다.

언어에 관한 규범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반면 특정한 권력이나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언어와 문화의 속성을 알게 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다.

한글을 만든 것이야 워낙 유명한 일이니 차치한다 하더라도 농업기술과 의학, 물리학, 천문학 등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음악과 예술을 권장하고 국토를 확장하며 주변 이민족과의 외교를 통해 조선전체를 안정되고 풍요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이가 바로 세종대왕이다. 그러나 이렇듯 위대한 임금인 세종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일이 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야 더 말할 것도 없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글을 가르쳐주어 문맹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큰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와 동시에 세종은 당시 조선인들이 읽고 있던 한자음에 대한 불만을 한글의 창제를 통해 해소하려 했었다.

한문은 물론 중국어에도 비교적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진 세종은 당시 조선인들이 읽는 한자음이 중국 사람들의 발음과 비교하여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달라져 있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한자를 써 놓고도 중국 음과 우리 음이 같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 이미 세종 때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이를 바로 잡고자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바꾸어보려고 하였다. 그는 젊은 선비들을 동원하여 새롭게 바꾼 한자음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펴내었다.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바로 그 책이다. 이에 따라 당시에도 '국'으로 읽던 國은 '꺠'이라고 해야 했고 强(강)은 '깡'으로, 曲(곡)은 '꺠'으로, 質(질)은 '꺠'으로 읽어야 하는 따위였다.

그러나 세종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롭게 정리된 이들 한자음은 강력한 왕권의 후원을 받았음에도 결국 아무도 따르지 않는, 모두에게 잊혀진 한자음이 되고 말았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수백 년을 익숙하게 사용해 온 한자음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은 당시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문이었기 때문이다. 천하의 주인인 절대 권력자의 힘도 언어규범을 마음대로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대두되었던 화두의 하나가 문화라는 단어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거나 문화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산업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고 문화콘



텐츠와 CT라는 단어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나 인기 TV드라마의 촬영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대두되어 해당 지역단체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안겨 주었고 한국 문화가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미국에 퍼져나가면서 한류스타들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문화와 문화 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이 분야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각종 문화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인물을 찾아내어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문화의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지역의 문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문화산업이나 지역문화의 진흥을 제도나 시설 또는 대형화된 현시적 사업이나 공공 행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웬만한 시도에는 대형 종합경기장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다. 수십억 비용이 들었을 종합경기장이 건설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스포츠문화 수준이 향상되었는가? 또 대형 공연장이나 콘서트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지역의 공연예술문화가 향상되는가? 물론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나 경기장은 지역문화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최근 대전시는 시민들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다. 물론 조례의 제정과 이를 통한 자전거문화 확산의 의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아 인근 지역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정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는 그리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전거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안전의 문제는 자전거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의 의식 변화를 통해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문화는 규범이나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탈규범적이고 반제도적인 문화현상이 궁극적으로는 대중문화의 중심에 놓이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한때 방송 금지가되었던 '동백아가씨'와 가수 조용필의 경우를 보면 그 답이 명확해진다. 문화는 시대와 사회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자연스런 인식의 합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제도도 아니고 외부적 규범이나 규제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 문화는 다양화, 파편화, 이질화가 촉진되면서 그 공유의 폭도 날로 감축되어 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세분화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공연도 대형의, 정통 관현악단의 연주 뿐 아니라 재즈음악에서부터 언더그라운드 의 인디음악에까지 마니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지역문화는 엘리트문화와 대중문화,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기성문화와 청년문화, 중심부 문화와 주변부 문화 등이 공존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화적 양상들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실험과 욕구는 향후 해당 지역문화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깊이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또 우리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현상은 향후 지역사회의 노인문화에 대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각 지역 문화원으로 대표되는, 지역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이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기성세대인 그들의 관점에서 가치있는 것들에만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전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정확히 짚어 내고 이들이 자연스레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일에 주력하여야 한다. 미리 설정된 특정 방향으로 지역문화를 이끌고 가려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에 대한 욕구는 다름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우치고자 하는”(to make sense of the world) 것이기 때문이다.



시골문화원이 나아갈 길



김 호 택
금산문화원장

금산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취임사에서 말한 '세계에서 금산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없는 큰소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취임사를 들어주었다는 증거일텐데, 기실 그런 큰소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친 것은 아닐 터이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게 된다.

내가 금산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뽕(?)'을 치게 된 동기는 금산문화원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서 소위 '문화'라는 것을 얘기하면 '인삼이나 잘 키우면 되지. 무슨 돼먹지 않게 문화야, 문화는' 하는 대답이 돌아오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금산문화원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활동이 있었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농촌지역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콘텐츠를 축적해 놓았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안용산 사무국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피땀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그만큼 우리 금산에 살면서 문화적 욕구가 충만한 많은 주민들이 금산문화원이라는 물꼬를 이용해서 뚫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불과 10여년에 이런 문화적 성취를 이룩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우리 금산주민들의 이 '문화적 소양과 욕구와 의지'인 것이다.

- 삶꽃 금요풍류마당의 의미 -

소위 '세계화' 혹은 '글로벌화'라고 표현되는 요즘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은 결국 첨단기술을 이용한 자신만의 독특한 노우하우를 가진 사람과 철저하게 쉰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만 살아 남을 것이라는, 우리로서는 다소 우울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

전자의 선두주자는 물론 미국과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G7국가일 것이고, 후자의 대표주자는 중국과 인도가 될 것이다.

우리도 과거 60년대와 70년대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놀랄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바가 있지만, 이제는 중국형(型)보다는 구미형(歐美型)이 우리에게 더 맞는 모델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몇가지 분야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구미형(歐美型)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파리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더욱 커져 중주도시(宗主都市, primate cities)로 발전하고, 어중간한 크기의 도시는 중주도시의 위성도시로서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듯이, 농촌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공통된 방향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수입개방과 글로벌화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농촌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하는 패닉(panic)에 가까운 두려움을 갖고 있다. 쌀도, 배추도, 인삼도, 약초도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하루가 다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산이 값만 싼 저질이 아니라 품질마저도 우리의 농산물 뺨을 칠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농촌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게 되서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 우리 농촌이 살 길을 개척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장소판촉'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농촌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시에 내다 팔아 먹고 사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전보다 뭔가 다른 생산물을 만들어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판촉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민들에게 생산물과 함께 생산과정을 함께 팔면서 마을마다 독특한 농촌문화를 전승, 또는 개발하여 문화판촉까지 엮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고 싶고, 나아가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마을마다의 독특한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것이 바로 『삶꽃 금요풍류마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다. 가능한 한 한달에 한번씩 각 마을을 찾아가 마을주민과 문화원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금산문화원 회원들이 연습한 성과를 칭찬해 주고, 나아가서는 출연자와 구경꾼과 마을 주민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스스로 즐기는 문화를 퍼뜨린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마을마다 독특한 문화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촌이 무지랭이들만 모여 땀병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아니라 풍류도 알고, 생활도 비교적 윤택한 사람들이 모여 여유있는 마음으로 사는 고장이 되고, 또한 도시인들이 도시에서 쌓인 먼지와 피로를 풀고 재충전해서 돌아가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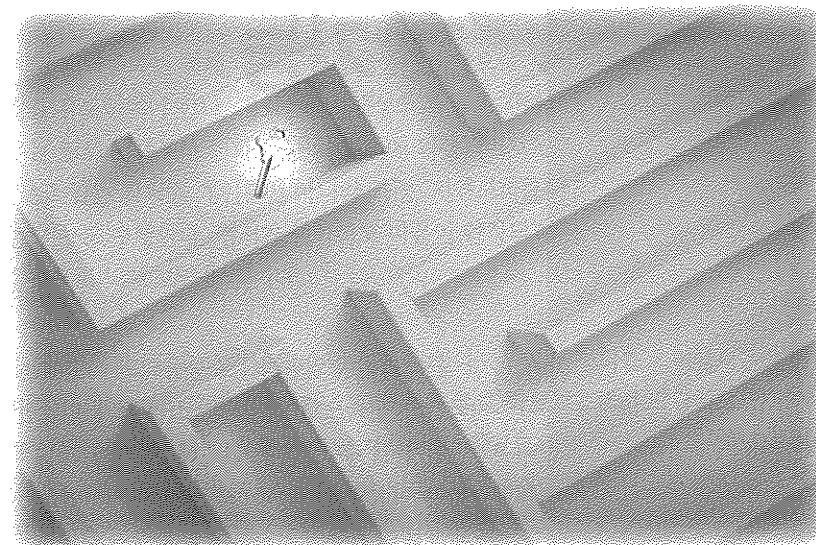
한발 더 나아가 도시인들이 생활을 위해 도시의 직장을 버리지는 못한다고 해도 우리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장만하게 되고, 농촌을 더 이해한다면 직업까지도 농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 꿈같은 얘기들이 가까운 장래에 정말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 시골문화원이 나아갈 길 -

결국 금산문화원이 지향하는 목표는 마을마다 농민들이 스스로 즐기는 잔치를 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마다 독특한 자신만의 작은 축제가 펼쳐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농촌에 산다는 것, 농사를 짓는다는 인생이 즐겁다는 자각을 갖게 만들고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거꾸로 시골의 문화를 알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삶꽃 금요풍류마당』을 통해 우리의 조상들이 즐겼던 풍류를 재현하며 스스로 즐기고, 또 그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의 옛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는 이해를 얻고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이 운동이 정착된다면 우리는 작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달에 한번씩 매주 마지막 금요일에 금산문화원 산하의 모든 단체가 정해진 한 마을로 출동해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하나되는 즐겁고 작은 축제 한마당을 펼치는 행사를 계속했고, 어떤



마을에서는 '농사일에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식의 푸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몇몇 마을에서는 대단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런 지역에서는 금산문화원 소속단체의 공연을 통해 마을 고유의 '흥'을 돋구어 주자 주민들 스스로 대단히 즐겁고 유쾌한 자리를 이끌어가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소속단체 중 시인들의 모임인 '좌도시동인회' 회원들이 가사를 만들고, '삶꽃시 동인회'에서는 곡을 붙여 방문하는 마을마다 자신들만의 마을을 상징하는 '동가(洞歌)'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행사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예단체인 '금곡서예' 회원들은 이 가사를 글로 써서 마을 노인회관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기부하고, 합창단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런 작은 성공이 거듭되자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 마을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모든 회원들을 기쁘게도 했고, 이런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 금산문화원 창립기념행사인 '금산문화축제'에서 자신들만의 마을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주도함으로써 지난 몇 달간의 수고를 마무리했다.

이런 작은 성공으로 우리는 금산의 장소판촉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골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

작은 고장의 작은 문화원이기 때문에, 특히 자금과 인력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방문하는 마을의 주민들 스스로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야말로 스러져 가는 시골마을과 농촌의 작은 희망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삶꽃 금요풍류마당』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지역문화와 그 기능

한 기 흥
서산문화원 사무국장

근대화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국가와 민족으로 설명되었고 국가와 민족만이 절대적 단위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땅에 자본제적 생산양식이 이식되고, 또 스스로를 확대재생산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보편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 이는 인류가 대자연에 최적의 적응을 하며 생존하기 위한 삶의 양식중 하나이며 그러므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를 관찰하는 거대한 질서로써의 문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문화가 있다.

지역문화라 함은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문화는 역사성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문화는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적 개념이며, 인식의 주체가 스스로 체득하여 얻어지는 상대적 개념이기도 하다.

첫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단위가 가정 또는 밴드(Band)라면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단위는 지역문화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지역문화는 한 지역의 문화전체를 포괄하면서 현실세계에서 해당

지역민의 생활공동체를 토대로 한다. 즉 지역문화는 일정지역의 과거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미래를 전망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문화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민들의 미래 행복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문화는 첫째, 지역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지역민들의 마음의 안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정체성의 확립은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가체체계의 준거를 세우는 일로 이로부터 변화(운동)와 연관이 파생되어져 나온다. 정서순화와 마음의 안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를 순화시키고 안정시키며 이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정서가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되는 일이 없음을 경험적으로 느껴 보았을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 하여야 한다. 우리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데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 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성교육에 문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교육이 수직적, 타율적 교육이라면 문화를 통한 교육은 수평적, 자율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받은 감동과 이해는 수직적, 타율적 교육보다 그 교육적 효과가 월등히 크다는 점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심어주고 문화의식함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지역문화는 지역주민통합의 기능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자치 단위마다 지역주민을 통합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기 고장의 긍지를 살리고 단합된 힘을 응집시켜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는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매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문화적 동질성이 있어야만 지역주민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실시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영위되어 갈 때 하나의 문화가 보전되고 발전하며 그 영역은 다름 아닌 지역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문화의 기본 단위로서 지역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민족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의 문화도 실재하지만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문화 활동가의 한사람으로 기본적인 삶의 단위로서 지역문화를 제2, 제3 강조하고 싶다. 국가 단위의 문화구조나 민족단위의 문화층이 아닌 지역단위의 문화담론으로 문화와 세계를 이해해보자.

문화는 삶의 실제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의 전통이 지속되는 기반이 다름 아닌 지역이며 그 핵심은 지역문화이다.

충남향토 문화축제길잡이

2005년 기준

(가나다순서)

공주시	백제문화제(대제)	10.7~10(4일)	공산성 일원
	계룡산 산신제	4.21~24(4일)	신원사 일원
	계룡산 분청사기축제	4.8~12(5일)	반포면 상신리일원
금산군	금산인삼축제	9.2~11(10일)	인삼엑스포광장 일원
	금강민속축제	7.30~31(2일)	부리면 평촌리
계룡시	계룡축제	9.23~24(2일)	계룡시청 광장 일원
논산시	강경젓갈축제	10.20~24(5일)	강경포구, 젓갈시장
	논산딸기축제	4.8~10(3일)	논산천 둔치 일원
당진군	상록문화제	10.7~9(3일)	당진 일원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7.16~22(7일)	대천해수욕장
부여군	백제문화제(소제)	10.3~5(3일)	부여군 일원
	서동연꽃축제	7.21~26(6일)	부여 서동공원 일원
	굿드래 수박축제	6.2~3(2일)	청소년수련관 일원
서산시	해미읍성병영체험	4.29~5.1(3일)	서산해미읍성 일원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5.1~6(6일)	한산모시관 일원
	동백꽃 · 주꾸미축제	3.26~4.8(14일)	서면 마라리
아산시	성웅이순신축제	4.26~5.1(6일)	현충사 일원
	짬뽕문화제	10.21~23(3일)	외암민속마을
연기군	도원문화제	7.15~17(3일)	문화예술회관 일원
	조치원복숭아축제	8.12~13(2일)	고려대학교 캠퍼스
예산군	매현문화제	4.28~5.1(4일)	충의사 일원
	추사문화제	10.7~9(3일)	추사고택 일원
천안시	천안흥타령축제	9.30~10.3(4일)	천안삼거리공원일원
청양군	칠갑산장승문화축제	4.22~23(2일)	칠갑산 장승공원
	청양고추 · 구기자축제	8.30~31(2일)	지천 백제건강공원
태안군	안면고 국제공연예술축제	4.28~5.15(18일)	안면읍 꽃지공원
	자염축제	8.17(1일)	근흥면 남금마을
홍성군	내포사랑큰축제	10.1~3(3일)	홍성을 일원
	남당리대하축제	9.10~10.31(52일)	서부면 남당리
	만해제	10.4~5(2일)	한용운선생 생가지
	광천토굴새우젓 및 조선김대축제	10.6~10(5일)	광천읍 일원

충남의 꼭 가봐야 할 곳



당진



삼교호 함상공원 ... 동양 최고의 군함 테마파크

퇴역 군함을 이용해 조성한 삼교호 함상공원에서 해군과 해병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삼교호에서는 서해대교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주변에 30여개소의 횃집과 주차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종합관광지로 명성이 높다.

찾아가는길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tel: 041-362-3321 •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 ➔ 77번 국도 ➔ 삼교호관광지(10분)



서해대교 ... 국내 최대의 사장교

총연장 7.31km로 한국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9번째로 긴 다리이다. 다리의 중간지점인 행담도에는 앞으로 약 17만 4천평 규모의 해양생태공원과 호텔, 휴양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종합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찾아가는길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 충남 당진군 송악면 서해안고속도로 ➔ 서해대교



특산물

- 면천파리고추
- 당진쌀
- 당진가화포도

서산



마애삼존불 ... 온화하고 자애로운 백제의 미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백제후기의 작품으로 얼굴 가득히 자애로운 미소를 품고 있다. 또한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 모습이 매우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찾아가는길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tel: 041-660-2538 •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 618번 지방도 ➔ 서산마애삼존불(5분)



개심사 ... 자연속에 지태를 숨긴 아담한 절

이름 그대로 마음을 여는 절이다. 백제 의자왕 14년(615)에 창건되었으며 건물자체가 굴곡이 많은 나무를 사용하여 자연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다. 주위의 우거진 숲과 기암괴석, 봄철의 벚꽃은 아름다움을 더한다.

찾아가는길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tel: 041-688-2256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 647번 지방도 ➔ 운산면 ➔ 개심사(15분)



특산물

- 감천배
- 간월도어리굴절
- 서산6쪽마늘
- 새댁김치

태안



안면도 ... 미래 관광의 메카

울창한 소나무숲과 12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잘 어울어지는 천혜의 섬, 특히 2002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가 개최되었던 꽃지 해수욕장에는 우리나라 3대 낙조의 하나로 유명한 할미·할아비 바위가 애뜻한 전설을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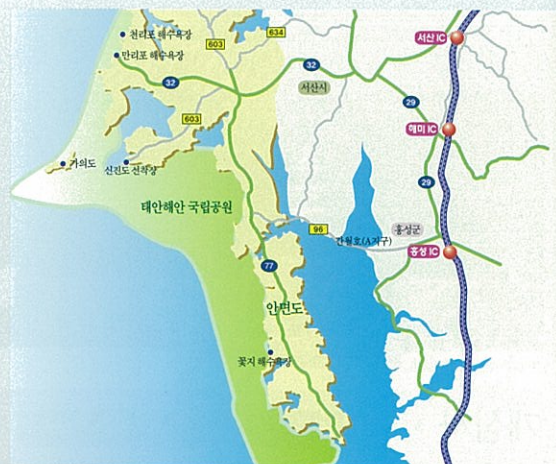
찾아가는길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 tel: 041-670-2545(군청)
• 서해안고속도로 흥성IC → 40번 국도 → 96번 지방도 → 77번 국도 → 안면도(40분)



가의도 ... 신비로움을 간직한 서해의 하와이

자연의 순수함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 깨끗한 백사장과 해식동물, 독립문 바위, 거북바위를 비롯한 섬 곳곳의 희한한 바위들로 경치가 뛰어나 서해의 하와이라고 불린다.

찾아가는길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tel: 041-670-2545(군청)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IC → 32번 국도 → 603번 지방도 → 신진도 선착장 → 가의도



특 산 물

- 정산포돌김
- 태안꽃게, 대하
- 갯바람건고추
- 육쪽마늘

예산



충의사 ... 매현의 충의 정신이 깃든 곳

매현 윤봉길 의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1968년말 윤봉길 의사의 충의 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하였으며 매년 4월27부터 29일까지 매현문화제가 열린다.

찾아가는길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tel: 041-330-2552 •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 → 45번 국도 → 충의사(15분)



추사고택 ... 추사의 숨결이 어린 곳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이며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1786-1856)선생의 고택으로 ㅁ자형 구조를 취하여 이른바「대갯집」형이다. 사랑채 뒷뜰 앞에는 석년(石年)이라 각자된 석주가 있다. 이 석주는 해시계로 추사가 직접 제작하였다.

찾아가는길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tel: 041-330-2553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 → 32번 국도 → 추사고택(25분)



특 산 물

- 예산사과
- 팥이버섯
- 삼다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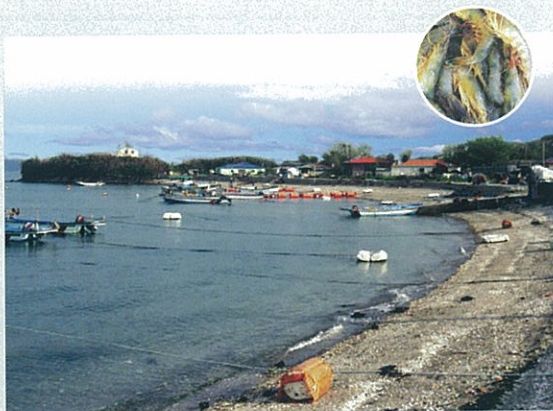
홍성



용봉산 ... 용과 봉황을 닮아 아름다운 산

높이 381m로 그리 큰 산은 아니나, 산전체가 기묘한 바위와 봉우리로 이루어져 '남한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다. 정상에 이르는 동안 풍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특징이며, 주위에 용봉사와 보물 제355호인 마애석불 등 각종 문화재가 있다.

찾아가는길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 tel: 041-630-1784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 29번국도 → 홍성읍내 → 609번 지방도 → 용봉산(20분)



남당리 ... 낚시 애호가들의 휴식처

천수만변에 있는 2종 어항으로, 깨끗한 바다와 함께 대하, 새조개, 꽃게 등 어자원이 풍부하다. 배로 10분 거리에 대나무섬으로 유명한 죽도가 있고 안면도가 보이는 등 경관이 좋다. 4월부터 11월까지 낚시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찾아가는길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tel: 041-630-1224(군청)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 40번 국도 → 남당리(20분)



특 산 물

- 광천도굴 새우젓
- 홍성팽이버섯

서천



한산모시관 ... 한산하게 불어오는 모시의 여유

한산세모시의 모든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전수교육관과 주변에 전통공방, 토속관, 향토음식점, 상설매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모시베틀에 앉아 옛 아낙네들이 섬세한 손길로 짜여지는 세모시작업을 체험할 수 있다.

찾아가는길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tel: 041-950-4226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 → 602번지방도 → 29번국도 → 한산모시관 (15분)



해양박물관 ... 해양생태체험의 현장

세계 희귀 및 현존어종 등 15만여 점을 전시한 해양박물관으로서 신비한 바다 속 해양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주변의 아름다운 일몰과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포구 풍경 등은 서해안의 숨은 볼거리이다.

찾아가는길 서천군 서면 마량리 tel: 041-952-0020
서해안고속도로 춘장대IC → 21번 국도 → 607번지방도 → 해양박물관(15분)



특 산 물

- 한산세모시
- 한산소곡주
- 서천자하젓
- 향토 대운맛김

천안



독립기념관 ... 국난을 극복해온 민족의 투철한 힘

독립기념관은 유관순의 만세운동으로 유명한 목천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120만평 부지 위에 겨레의 집, 전시관 등을 짓고 1987년 8월 15일에 개관하였다. 이곳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민족 정신과 역사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 현장이다.

찾아가는길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tel: 041-560-0253 • 경부고속도로 목천IC → 21번 국도 → 독립기념관(3분)



상록리조트 ... 테마파크형 종합레저타운

상록리조트는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형 종합레저타운으로 상록호텔, 컨벤션센터, 상록랜드, 사계절별매장, 상록아쿠아피아, 골프장 등이 있어 각종 레저스포츠는 물론, 국제회의와 연수행사가 치뤄지고 있다.

찾아가는길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tel: 041-560-9114
경부고속도로 목천IC → 21번 국도 → 693번 지방도 → 상록리조트(20분)



특 산 물

- 성환배
- 안양골배
- 입장거봉포도
- 광덕호도
- 개구리참외
- 병천황도방순대

연기



고북저수지 ... 정자에 올라 관망하는 저수지의 풍경

어종이 풍부해 낚시 애호가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고북저수지에는 야외조각공원, 파고라, 정자 등이 주변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변음식점들에서는 메기매운탕과 한방오리 등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찾아가는길 연기군 서면 고북리 tel: 041-861-2292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정안IC → 604번 지방도 → 고북저수지(20분)



향토박물관 ... 선사에서 근대까지의 발자취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연기군과 관련된 유물 1천여점이 전시되어 있어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와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산교육장이다.

찾아가는길 연기군 서면 청리리 tel: 041-862-7449
•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정안IC → 604번 지방도 → 향토박물관(20분)



특 산 물

- 조치원복숭아

공주

무령왕릉 ... 화려한 백제의 기록

백제 제25대 무령왕(501~523)과 왕비를 합장한 왕릉으로 금강이 아늑하게 감싸도는 공나루 가까이
의 송산리 고분군에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108종 2,906점의 유물은 공주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있
으며, 출토유물중 12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찾아가는길 공주시 금성동 tel: 041-850-4584 •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남공주IC → 무령왕릉(5분)



계룡산 ... 사시사철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지리산에 이어 두번째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산
의 능선이 '닭의 벼슬을 쓴 용의 모습과 같다' 하여 계룡산
(845m)이라 한다. 계곡마다 연못과 폭포가 절경을 이루고
변화 무쌍한 자연의 풍치와 함께 동학사, 갑사, 신원사가
있는 불교의 영산이다.

찾아가는길 공주시 반포면 tel: 041-825-3002~3 • 천안논산간고
속도로 탄천IC → 32번국도 → 계룡산 국립공원(25분)



특 산 물

- 공주정안밥
- 계룡백일주
- 우성오이
- 신평꽃고추

청양

칠갑산 ...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계절의 산

해발 561m로 크고 작은 봉우리와 계곡,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을 가진 명산이다. 계절의 변화가 뚜
렷하여 봄에는 철쭉과 벚꽃, 여름에는 울창한 천연림,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등 사시사철 독특한 묘
미를 전해준다.

찾아가는길 청양군 정산면 tel: 041-940-2531 • 천안논산간고속도로 공주IC → 36번국도 → 칠갑산(30분)



고운식물원 ...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곳

10만평규모의 아트막한 산속에 야생화원, 상록수원, 장미원,
튤립원 등 동·서양의 이미지가 담긴 18개의 테마공원을 조성
하였다. 4,500여종의 다양한 수목과 꽃, 희귀식물을 식재하여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체험, 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찾아가는길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tel: 041-943-6245
천안논산간고속도로 공주IC → 36번국도 → 고운식물원 (60분)



특 산 물

- 구기자 한과
- 구기주
- 토종닭
- 녹용
- 참계장
- 청양 구기자

논산



탐정호 ... 철새의 노래소리가 멈추지 않는 잔잔한 호수

탐정저수지는 충남 제2의 규모를 자랑하는 저수지로 겨울철에도 잘 얼지 않고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강태공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주변의 대규모 농경지에는 먹이가 풍부하여 많은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 찾아가는길 논산시 부석면 탐정리 tel: 041-730-1349
•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서논산IC → 1번국도 → 697번국도 → 탐정호(20분)



대둔산 ... 자연이 완성한 산수화

한국 8경의 하나로 산림과 수석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며, 1977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저마다 특성을 지닌 계곡이 많으며 특히, 수락계곡의 맑은 물과 폭포, 가을 단풍은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 찾아가는길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tel: 041-732-3568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연무IC → 68번지방도 → 대둔산(30분)



특 산 물

- 양주
- 감식초
- 참 · 들기름
- 딸기

금산



12폭포 ... 거꾸로 쏟아지는 은하수

12개 폭포가 이어진 12폭포는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648m의 성봉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뤄 극치를 더한다.

▶ 찾아가는길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tel: 041-750-2225 (군청)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 남부순환도로 → 대전 · 진주간고속도로 → 금산IC
→ 13번국도 → 12폭포 (15분)



서대산 ... 기암괴석의 대명사

산세가 험하여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많고 길이 가파르다. 하지만 그만큼 수려한 경관을 지니고 있어 중부의 금강으로 일컬어 진다.

▶ 찾아가는길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tel: 041-750-2225 (군청)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산내분기점 → 대전 · 진주간고속도로 추부IC → 37번국도 → 서대산 레저타운 (25분)



특 산 물

- 고려인삼
- 평두릅
- 고려홍삼
- 추부갯잎
- 인삼주



대천해수욕장 ... 낭만이 있는 바닷가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조개껍질) 백사장으로 형성된 길이 3.5km 폭 100m에 달하는 해수욕장으로, 휴양객들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는 물론 콘도 및 놀이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역시 잘 발달되어 있으며 사계절 내내 70여종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는 전천후 관광지로서 보령 관광의 처음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서해안 최대해수욕장이다. 또한 년중상설 운영하는 머드체험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천혜의 관광 특구이다.

▶ 찾아가는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tel: 041-930-3556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 → 36번 국도 → 대천해수욕장 (5분)



궁남지 ... 의자왕의 풍류가 있는 곳

백제 무왕이 만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이다. 의자왕과 공녀들이 풍류를 즐겼다는 이곳은 연못 가운데 신선이 산다는 방정산의 의미를 담은 작은 섬과 정자가 있고 물위에 구름다리가 걸려있다.

▶ 찾아가는길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부여사적관리소 tel: 041-830-2581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서논산IC → 4번국도 → 궁남지 (15분)



석탄박물관 ... 석탄의 역사를 한 눈에

석탄의 생성·발견·생산 등 석탄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산교육장으로 지하400개의 모의갱도에서 광부의 작업 광경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전시관에는 각종 탄광시설 및 광물 표본류 등 2,5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 찾아가는길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tel: 041-930-3566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 → 40번 국도 → 석탄박물관 (10분)



특 산 물

- 까나리 액젓
- 사현포도



부소산 ... 백제의 천연 요새

부여읍 북쪽의 부소산에는 백제 최후의 보루였던 부소산성이 있고, 절개를 상징하는 낙화암, 고란약수로 유명한 고란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자루, 영일루, 반월루, 군창지 등 백제인의 혼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이 많다.

▶ 찾아가는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tel: 041-830-2585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서논산IC → 4번국도 → 부소산성 (15분)



특 산 물

- 방울토마토
- 부여 밤
- 인동주
- 표고버섯
- 신선콩나물
- 청옥김치 · 단무지

러시아가 남긴 감동의 현장



'러시아인이란 누구냐 모스크바를 어머니처럼 느낀다'라고 톨스토이가 표현한 것처럼 모스크바는 이방인의 마음까지 강하게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이정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

모스크바강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크렘린, 붉은광장, 레닌묘소 등은 옛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바실리우스 대성당, 푸시킨 박물관, 아르바트 거리, 모스크바대학 등은 신선한 러시아 문화와 역사를 만나게 해주었다.

사회주의 국가로 막연히 우리와는 동떨어진 곳이라 여겼던 선입견은 여지없이 유럽의 어느 도시들과 다를 바 없이 고급외제차도 쉽게 볼 수 있었고, 도로변의 화려한 광고판과 멋스러운 시민들의 옷차림 등 서방 어느 대도시에도 견주어도 손색없을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러시아 여행의 셋째 날 저녁, 함께 한 일행은 러시아의 북서부 끝,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약 640km 떨어져 있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향했다. 지난 2세기 동안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서 러시아 역사의 중심무대를 이루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로 손꼽던 대 문호 푸시킨은 '유럽을 향해 열린 창'이라 했다.

1703년 스웨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네바강 하류 습지대에 건설된 뽀트로파블로스크 요새의 완공과 함께 탄생되었다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1712년 모스크바를 제치고 나라의 심장부로 등장하면서 두 세기에 걸쳐 제정 러시아의 정치와 경제,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도시이다.

2차 대전 중 모스크바가 폐허가 되는 곤욕을 치러야 했던 데 반해, 이곳은 죽은 이의 살을 베어먹어야 할만큼 참혹한 판국에서도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독일군의 봉쇄 전략에 대해 도시를 지켜냈기에 지금까지도 18세기 바로크풍의 건물들이 예스러운 분위기를 뽐내고 있다.



▲ 상트 페테르부르크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첫 발걸음은 네프스키 대로에서부터였다. 공산주의 혁명 후 이를 기념하여 한때 '10월 25일 대로'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옛 이름으로 되돌아간 거리. 작가 고골리는 '이곳보다 훌륭한 곳은 없다'라고 절찬했는가 하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거리. 제정시대 황제의 마차행렬이 지나가고 1905년 '피의 일요일'에 민중의 행진이 지나가던 바로 그곳을 내가 걷고 있었다. 1835년에 발표된 고골리의 소설 '네프스키대로'의 주인공 화가 피스카로프와 사관 피로코프가 걷던 거리를 내가 걷고 있었다.

4.5km에 달하는 이 대로는 발틱함대사령부 건물 앞의 데카브리스트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노변을 걸으면서 웅장한 카잔성당을 만날 수 있었고, 가장 큰 서점이라는 '돔 크니기'를, 가장 긴 건물이라는 고스티니 드보르 백화점을,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는 아니치코프교도 지났다. 푸시킨이 결투장으로 가던 날 아침 마지막 식사를 했다는 식당이 남아 '문학 카페'라는 이름으로 성업 중이었고, 시인이 마지막 살던 집

은 기념관이 되어 대로에서 조금 접어든 곳에 있었으며, 그가 결투로 쓰러진 변두리 쪽의 공원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대로의 주위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젓줄 네바강 강줄기를 따라 세워진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다. 강 위에 걸쳐진 8개의 다리들이 상판을 들어 올려 진풍경을 연출하는데 이 흥미진진한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데카브리스트 광장 끝에는 이 도시의 건설자 표트르 대제의 기마상이 서 있었다. 그러나 이 동상은 러시아의 국민시인 푸시킨이 서사시 '청동의 기사'에서 노래함으로써 더욱 명물이 되었다고 한다.

쿠테타로 남편을 죽이고, 황제자리에 오른 독일출신 예카테리나 2세가 표트르대제의 후계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1782년 프랑스의 조각가 파르곤에게 만들도록 했다는 이 청동 기마상은 러시아 최초의 기념동상이란다. 지금도 마르스 광장의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 도시의 젊은이들이 결혼식이 끝나면 이곳을 방문하여 꽃다발을 바치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표트르 대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여전하다고 한다.

역대 황제들의 거처였던 네바강 변의 겨울궁전은 담록색의 벽에 하얀 기둥이 러시아의 변영과 제왕시대의 기품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에르미타주박물관으로 더 유명해졌다.



▲ 겨울 궁전(현재 에르미타주 박물관)

그 어느 계절보다도 여름의 정취가 좋아 역대 황제들이 즐겨 찾았다는 여름궁전은 갖가지 모양의 분수와 정돈된 공원, 화려한 부속 건물 등을 갖추고 있었다.



▲ 여름궁전

그 중 정면의 길이가 300m나 되는 대 궁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불에 탔지만 지금은 완전히 복구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궁전 내부에 18세기 이탈리아 화가 로탈리가 그린 수 백 점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었고, 표트르 대제의 방, 기동의 방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일상용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황금색 돛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한 때 강대한 권력을 과시했던 '성 이삭성당'은 예술, 그 자체였다.

네바강의 강폭이 넓어지는 하구에 표트르대제가 스웨덴 군으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하여 건설했다는 피터폴 요새. 도스토예프스키와 고리키가 갇힌 감옥이라 해서 구경꾼을 끌고 있는 이곳 주위로 술과 함께 장작불로 굽는 양고기 꼬치인 샤실릭을 파는 휴게실이 곳곳에 눈에 띄었고, 페트로그라드성 안에는 군함 오로라호와 피터대제가 초창기에 거주했던 작은 오두막집, 학생들과 배낭족들을 위한 젊은이들의 쉼터가 자작나무숲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만들고 있었다.



▲ 피터폴 요새

믿음과 신에 대한 추구를 열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위대했던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시대를 구가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무덤이 있는, 거리 곳곳마다 아직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작중인물들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듯한 착각마저 자아내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이곳 시민들은 이 도시가 거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믿고 있다. 위대한 건축가와 화가, 음악가 등이 이 도시를 찾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만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냈으며, 이곳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그들은 명작을 만들어냈다. 건축가들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물을 세워 문화공간을 창조했고, 이 신비적인 문화공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작품을 썼다. 그 덕분에 지금도 그 작품의 주인공들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문화공간에서 마치 실제 인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근대문학의 아버지인 시인 푸시킨을 비롯하여 고골리,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고리키, 에세닌 등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 투르게네프가 '사냥꾼의 일기' 일부를 쓴 집도, 고골리가 '검찰관'을 완성한 아파트도, 그의 명작 '외투'와 '코'에 나오는 다리들이 시내의 운하 위에 아직 걸린 채다. 에세닌이 '잘 있거라'라는 시를 남기고 자살한 호텔은 아직도 호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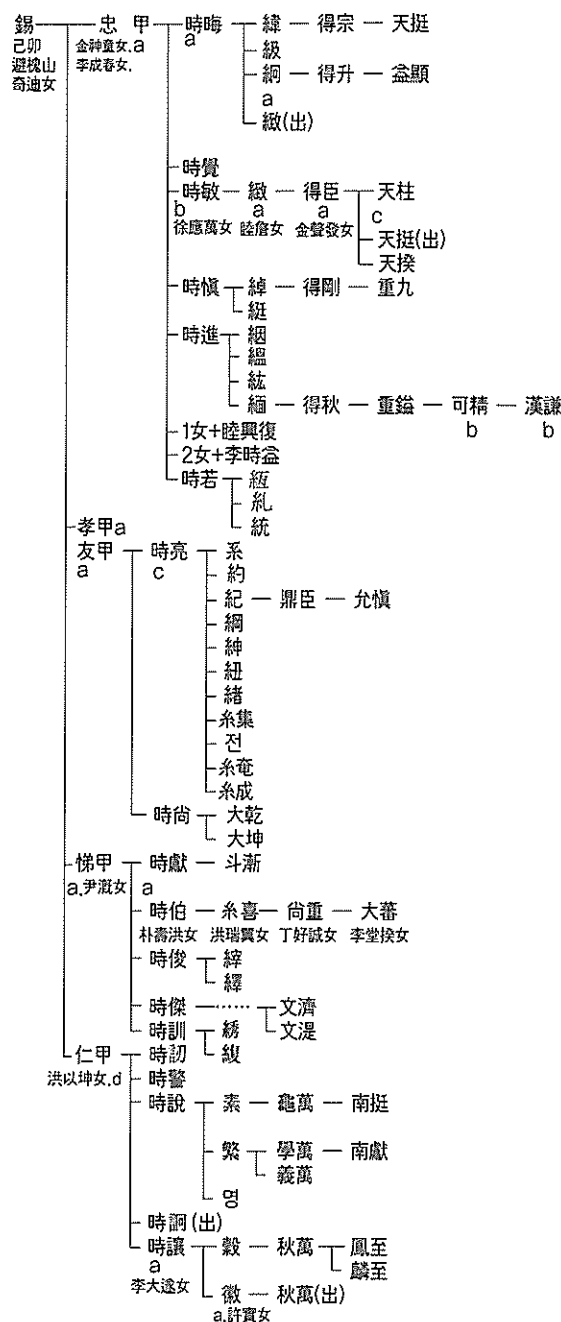
도스토예프스키, 그가 운명한 집이 기념관으로 내객을 맞아주지만, 명작 '죄와 벌'의 무대를 현장으로 하나하나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여간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다락방, 그가 죽이는 노파의 음산한 아파트, 그를 구원하는 소녀 소냐의 집도 아직 거기에 그대로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도스토예프스키의 묘지명에 적힌 성경 구절을 읽어 내리며 그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남긴 의미를 음미하면서, 이번 러시아 탐방의 감동을 접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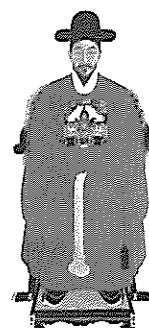
임진 명장 충무공 김시민(金時敏) 장군



김시민(본관 ; 안동(安東), 자 ; 면오(勉吾), 호 ; 충무(忠武))은 명종 9년(1554) 8월 27일 목천현 백전동(柏田洞 ; 현재 병천면 가전리 잣밭 마을)에서 아버지 충감(호 ; 구암(龜巖)과 어머니 창평(昌平) 이씨(참봉 성춘(成春)의 딸) 사이의 6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부인은 부여(扶餘) 서씨로 부사과(副司果) 응문(應文)의 딸이다. 고려말 몽고의 침략 과정에서 공을 세운 김방경(金方慶)의 12대 손이다. 할아버지 錫 이후의 가계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범례 ; a(문과), b(무관), c(문음), d(진사)



▲ 김시민장군 영정

김시민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과 절의정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문의 성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가문 내 직계 인사의 생애와 관력, 현실대응의식을 살펴보자. 먼저, 시민의 할아버지 석(錫) : ?

~ 1535, 증 영의정)은 조광조의 문인이었다.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피화되자, 살고 있던 남산 아래 주자동(현 회현동)에서 과산군 문광면(文光面) 양곡리(文法里)로 퇴거했고, 이후 외가인 의성 김씨 집성촌인 전법리(典法里)로 은거하였다. 석(錫)의 사촌 형 익(弼)은 중종 11년(1516)에 생원이 되었으며, 1519년 현량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이 투옥되자, 류인숙(柳仁淑)·공서린(孔瑞麟)·홍언필(洪彦弼) 등과 함께 대궐에 나가 조광조와 함께 옥에 갇히겠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중종 16년(1521)에 송사련(宋祀連)의 무고로, 안당(安堂)·안처겸(安處謙) 부자 등이 연루된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후 유배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석과 익 두 사람은 중종 10년 이후 정계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정국을 주도하였던 기묘 사림과의 연관성 및 현실대응의식이 상당히 확인된다.

석(錫)의 다섯 아들은 장남 충갑을 비롯하여 학문이 상당하였으며, 현실대응논리는 사림파의 그것에 가까웠다. 다섯 형제 모두 소과에 입격했으며, 이중 충갑과 효갑, 재갑은 대과에 급제하였다.

장남 충갑은 중종 10년(1515)에 서울 남산 아래 주자동(鑄字洞)에서 태어났다. 이문건(李文健)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20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 시묘를 마친 뒤, 중종 29년(1534)에 동생 재갑과 함께 퇴계 문하로 들어가 수학하였다. 이때 기대승(奇大

升)·조호익(曹好益)·이정(李楨) 등과 교유하였다. 퇴계 문하에서 수학하던 중 9개월만에 학문은 그만 하던 되었으니 목민관의 길을 가라'는 스승의 말에 따라, 명종 원년 증광시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장자 시희가 3세되던 1544년에 부인 김씨가 사망하자, 급제한 해인 명종 원년(1545)에 창평 이씨를 새로 맞았다.

충갑이 급제 후 정치 현실에 등장한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미묘하였다. 즉 중종·인종·명종을 거치면서 몇 차례의 사회와 옥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림 세력이 위축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급제한 해인 명종 원년은 대·소윤의 갈등과 대립이 폭발하여 을사사화로 이어지던 정국의 격변기였다. 이를 살펴보자.

중종에 이어 후계한 인종은 재위기간 중에 이언적·송인수·김인후 등 사림을 중용하면서 사림 정치를 펼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즉위 8개월만에 사망하였고, 후계는 이복 동생인 경원대군(명종)에게 이어졌다. 명종의 생모 문정왕후와 소윤의 대표인 외숙 윤원형에 의해 주도되던 명종 초의 정국은, 결국 윤임 등 대윤을 제거하기 위한 을사사화로 이어졌다. 이 사화는 중종 말 세자(인종)를 보호하려 했던 윤임과 세자를 바꾸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윤원형 등 두 외척간의 싸움으로 명종의 즉위와 함께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1547년에는 양재역 벽서 사건, 1548년에는 안명세(安命世) 필화사건, 1549년의 이홍윤(李洪胤) 옥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이은 사회와 옥사로 100여 명의 사람이 화를 당하였다.

급제 후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를 역임하고 있던 충갑은 을사사화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을사당인 이휘(乙巳黨人 李輝)의 인척이라 하여 이어 발생한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면서 피화되었다. 피화 당시의 실록 기사를 보자.

“대사헌 안현(安瑗) 등이 아뢰기를, “권지승문원 부정자 김충갑은 역신 리휘(逆臣 李輝)의 처남으로서 평소애 궤론(詭論)으로 역지 주장을 하였으니...

표 1) 김시민의 가계도 가계도의 작성에는 후손 金相沃(80세, 병천면 가전구 새말 거주) 선생의 자문 및 자료 제공과 안동 김씨 홈페이지(<http://iandongkim.com/>)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최근 수집된 자료 역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가계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산재한 자료의 분석과 조정, 정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조정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하소서...”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과거에 급제한지 1년밖에 안된 충갑이 을사사화의 여파로 이어진 벽서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휘(李輝)가 처남(충갑의 아버지 석(錫)의 사위)인 점 등 주변 인물 및 사람과 인사들에 대해서 유화적이었던 소문계와 가까웠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문 내에는 연혼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와 코드가 일치한다고 보여지는 인사가 여럿 있다. 아버지 충갑의 장인(金神童)은 현량과 출신, 시민의 아들(繼)의 장인(睦詹)은 기묘명현 세평(世枰)의 손자이며, 손자(得臣)의 장인 역시 기묘명현 김정(金淨)의 4세손(世孫)이다. 제갑의 장인(尹觀)도 기묘사화시에 이조좌랑으로 있다가 피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충갑이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건 주동자와의 연관성, 사람계와 연관된 가학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조(祖)·부(父)에서 이어진 이러한 사람적 성향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독점하였던 훈구파 인사들의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현실대응논리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는 가학으로 이어져 가계 내 인사들의 현실대응논리로 계승되었으며, 국가와 민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살신성인하는 태도로 발양되었다고 생각된다. 김시민을 비롯한 형제들이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발휘한 충절 정신 역시 현실의 부정에 타협하지 않는 가학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충갑은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뒤, 서청주(현재의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의 오죽촌(梧竹村)에 기거하면서 강학(講學)하면서 지냈다. 시민이 태어나던 해에 백전(栢田)에 전사(田舍)를 지었는데, 집 앞에 거북바위가 있어 '구암(龜巖)'이라 자호(自號)하였다. 선조 즉위 후 이이와 기대승의 상소로 해배되어 공조좌랑, 북도병마평사(北道兵馬評事) 등을

역임하였고,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에 재임하면서 강직한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59세 때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하였고, 61세 때인 선조 8년(1575) 괴산에서 사망하였다.

차남 효갑(孝甲)은 명종 8년(1553)에 별시에 급제하여 전임사관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좌랑 등을 두루 지냈다. 동생 제갑(弟甲)과 함께 같은 해 같은 시험에 급제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가문을 빛냈다.

삼남 제갑은 중종 20년(1525)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10세 때에 아버지를 여윈 뒤 외삼촌 이문건에게 수학하였다. 18세 때에 윤개(尹漑)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듬해 형 충갑과 함께 이항의 문하로 들어가 수학했다. 21세 때인 명종 8년에 급제하여 박사·전직·옥천군수 등을 역임했다. 이후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지내다가, 임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에 원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당시 원주에는 군사는 물론이고 군량, 무기 등 전쟁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갖추어 있지 못하였다. 8월 25일 성 영원산성(領原山城)이 함락되었을 때, 부인과 아들 시백이 함께 순절하였다. 4남 시걸이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주동에 장사지냈다.

음서로 진출한 오남 인갑(仁甲)은 비안현감을 역임했다. 이제 시민의 직계 형제들을 살펴보자.

시민의 6형제 중 장남인 시회(時晦)는 충갑의 첫째 부인인 광산 김신동(金神童)의 딸 소생이며, 나머지 4남 2녀는 둘째 부인인 창평 이씨 소생이다. 막내인 시약(時若)은 시진(時進)과 동갑으로 충갑이 괴산 유배시에 낳은 서자(庶子)이다.

첫째, 시회는 중종 37년(1542)에 태어났다. 선조 즉위년(1567)에 급제하였고, 4년(1571)에 전임사관인 예문관대교로서 홍섬(洪暹)·리이(李珥) 등과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후 부평부사 등을 지냈다. 선조 23년(1580)에 한효순(韓孝純)·리항복(李恒福) 등과 함께 홍문록에 올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듬해 죽었다.

둘째, 시각은 생원, 빛재, 시신은 군자감정, 다섯째,

시진은 내시교관을 지냈다.

막내 시약은 명종 19년(1564)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靑川面 德坪里 : 舊 청주군 동면 대전리(大田里))에서 태어났다. 용모와 기품이 시민과 매우 흡사하여 우애가 각별하였으며, 평소에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왜란시 진주에서 형(시민)을 도와 전공을 세웠으며, 시민이 전사하자 유해를 직접 괴산에 모셨다. 정유재란시에는 통영군관(統營軍官)으로 관군과 의병을 통솔하여 옥천·창원·동래 등지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며, 이로 인하여 서애 유성룡의 奏達로 別將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난이 끝난 뒤에는 훈련원 첨정으로 승진되었으며, 선조 38년(1605)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이후 창성부사(昌城府使)로 나갔다가 1627년 정묘호란을 당하여 성이 함락되자, 두 아들(經과 紘)과 함께 순절하였다. 적군에게 잡혔을 때, '내 머리는 벨 수 있어도 내 뜻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민족의 침략으로 무너진 민족적 수치에 굴하지 않았으며, 선대로부터 이어진 절개와 지조를 꺾지 않았다. 이러한 공이 인정되어 숙종 9년(1683)에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에 유택(幽宅)과 충효삼문(忠孝三門)의 정려가 세워져 현양되었다.

여동생 둘은 목흥복(睦興復)과 이시익(李時益)에게 출가하였다.

이상에서 조(祖)·부(父) 및 당대 형제들의 생애와 관력을 살펴보았듯이, 당대 명문인 안동 김씨 문중에서 태어난 시민은 가학의 영향을 받아 불의에 타협하거나, 비굴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충명하고 기품이 장대하였으며 병정놀이를 좋아하고 언제나 대장이 되어 지휘하였다.

학문보다 병정 놀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가문 내 인사들이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의 영광을 누렸던 것에 비해, 25세 때인 1578년(선조 11년)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급제 후 훈련원(訓練院)에 제수되었다. 훈련원 판관(判官)시 군기(軍器)가 녹슬고 군기(軍紀)는 해이하여 유사시에 쓸만한 병기와 군

인이 없음을 보고 개탄하였다. 이를 우려한 그는 병조판서를 찾아가, "소신이 훈련원에 몸담아 보니 군기가 녹슬고 군인의 기강이 해이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에 변란이라도 생긴다면 속수무책이 될 터이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병조판서는 "지금같이 태평성대에 군기를 보수하고 훈련을 강화하라니 올바른 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만약 훈련원 군사들을 조련하고 병장기를 만들면 백성들을 두려움 속에 몰아 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망언이로다."라고 하면서 질타하였다. 장군은 재차 건의하였으나 병조판서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질책으로 일관하였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수모만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고향으로 내려와 여러 해를 지내던 중 선조 16년(1583)에 이탕개(尼湯介)의 난이 발생하자, 도순찰사 정언신의 막하 장수로 출정하여 공을 세웠다. 그후 다시 벼슬길에 나가 군기시 판관이 되었으며, 정언신과 조현이 재갑(才堪)있는 인사 중 장수로 삼아 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의 하나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임란 발발 전해인 1591년에 진주판관으로 나갔는데, 이곳은 본래부터 호족(豪族)이 많아서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행정의 공명정대함이 덕출과 같았고 덕의(德義)를 베풀어 위엄을 세우니 수하의 장병과 관속 및 백성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목사 이경과 함께 지리산에 피했다. 그러나 목사가 병사하자 초유사 김성일의 명에 의해 목사직을 제수받았으며, 10월에는 통정대부로 승진되었다.

목사로 부임한 그는 먼저 진주성 주민을 안무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피난갔던 사람 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수성을 위해서 성을 수축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한편, 군사의 양성에 진력하였다. 새로 부임한 김시민 목사의 전쟁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수비가 허술할 것으로 판단한 왜군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6일 동안 진행된 공방전 끝에

김시민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39세의 한창 나이에 적의 유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부여 서씨 응문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후사가 없어 형 시회(時晦)의 아들 치(繼)를 양자로 삼았다. 1592년 순국 후, 괴산(槐山)에 장례 지냈다가 충주 신당리 원지산(新塘里院支山)에 23년 뒤에 돌아간 부인과 합장되었다.

이상 김시민 가계 내 직계 인사들의 생애와 관력, 충효(忠孝) 정신으로 무장된 가문의 성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학의 배경은 대체로 기묘 명현 및 영남 사림계 인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학문의 성향이 사림계와 깊숙하게 연관되었으며, 현실대응의식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시민과 함께 시양(時讓), 치(繼), 소(素), 휘(徽) 등 다섯 사람이 도원수(都元帥)가 되었던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문무(文武) 겸비의 가학적 성향을 확인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1592년 4월 13일에 발발한 임진년의 전쟁에서, 일본은 조선군의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것이며, 순조롭게 조선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전 초기 전투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러한 단정은 그다지 틀린 것도 아니다. 4월 14일 부산에 도착한 뒤, 좌측 지세로 한반도를 유린하였는데, 4월 24일에 탄금대 전투, 5월 2일에 한성 입성, 6월 10일에 평양에 진입하는 등 가히 일방적인 전투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판단을 수정케 하는 육전(陸戰)이 있었다. 그것이 1592년 10월에 있었던 진주성 전투이다. 일본군으로서는 육전에서의 최초, 최대의 패배였으며, 조선으로서는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에서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투였다. 일본이 느낀 치욕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화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10만 대군에게 명하여 반드시 진주성을 함락시킬 것이며, 목사 김시민의 목을 베어와야 한다는 특명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성안에 있던 6만여 명의 사람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몰살되었던 것도 일본이 당했던 치욕에 대한 복수의 결과였다. 그러나



▲ 김시민장군 전공비

진주성의 함락은 일본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조선이 이긴 것이며, 조선의 치욕이 아니라 명예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목사 김시민의 충절정신과 민·관·군 일체의 저항정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진주는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로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는 호남으로 진출하는 교통로였고, 호남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진주의 함락은 호남의 함락을 의미했고, 호남의 함락은 곧 조선의 함락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진주성 전투와 권율 장군의 금산전투,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의 승리를 통해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군은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병력의 일부를 김해로 집결시키고 약탈한 물자를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운반하였다. 왜군 2만여 명은 9월 24일 김해를 출발하여 진주로 향하였다. 창원에 있던 경상우병사 유송인(柳崇仁)은 창원 동쪽 노현(露峴)에서 2천여 명의 병력으로 저지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진주로 후퇴하여 동문 밖에 진을 쳤다.

9월 26일 함안에 도착한 왜군은 병력을 2개 제대로 나누어서, 10월 3일에 1만여 명의 선발대를 진주

동쪽의 마현(馬峴)으로 진출시켰다. 당시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된 왜군은 3만여 명이 넘었다.

당시 진주성은 목사 이경(李敬)이 병사함으로 수성장(守城將)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경상도 지역 일대에는 근왕군(勤王軍)의 차출로 진주를 포함한 경상우도 서부의 10여 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공성(空城)상태였다. 다만 진주성은 다른 성에 비해 나은 편으로, 오합지졸일지언정 수성군 1천여 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병기와 군량은 고갈된 상태였다.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은 고성현령 김현(金絢)을 진주 수성장으로 차정하였고, 주대청(朱大淸)은 판관 김시민과 함께 진주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김시민은 군사를 수습해서 수천 명을 얻었고, 전군수 김대명(前郡守 金大鳴) 등을 소모관(召募官)으로 삼아 6백여 명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진주성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증강될 수 있었다.

이 결과, 진주 수성군은 5월말부터 8월까지 진주성에 접근하는 왜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으며, 인근 지역인 사천(泗川)·진해(鎭海)·고성(固城) 등의 수복전에 참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주축이 된 군대가 김시민 부대였고, 전공을 세운 그는 7월에 진주목사로 승진되었으며, 10월에는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가자(加資)되었다.

의병장 김면(金沔)의 지원 요청에 따라, 9월초에는 1천여 명을 이끌고 거창(居昌)에 부원(赴援)하여 김산(金山)·현 김천(金泉)·지례(地禮)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된 김성일의 지시에 의해 진주성 수비 책임을 맡고, 진주로 돌아갔다.

왜군 3만여 명이 진주성을 포위하던 당시 진주성의 수성군은 3,800여 명 정도였다. 김시민은 이들 군대들을 소속 부대별로 각각 수비구역을 정하여 방위하도록 명하였다. 성중에는 수성군 외에 노약자를 포함하여 수만 명의 민간인도 남아 있었다. 이들 역시 수성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은 재론을 요구

하지 않는다.

왜군의 진주성 공격에 대비하여 김성일은 주위의 관군과 의병들을 동원하여 진주성을 돕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진주성 외곽에는 각지에서 온 관군과 의병 역시 상당수에 이르렀다.

경상우병사 유송인은 왜군이 함안을 점령한 후에 왜군과의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진주로 철수하였다. 진주에 도착 후 입성을 요구하였으나, 김시민은 작전 지휘의 혼란을 막는다는 생각에 거절하였다. 이때 광재우는 김시민이 유송인을 입성시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계획이 진주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이는 족히 진주인의 복이다.'라고 하였다. 목사(정3품)가 상급 지휘관인 병사(종2품)의 입성을 거부한 것은 하극상이지만, 전투 상황에서는 수성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했다. 이제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친 진주성 전투의 경과를 정리해보자.

Ⅲ 첫째 날 ; 10월 5일

전투를 준비하는 정탐 활동 일이다. 왜군은 함안에서 어숙령(魚束嶺)을 넘어 반성창(班城倉)을 불태우고 선봉 기병대 천여 명이 진주성 동쪽 마현의 북봉(北峯)에 진출하여 정탐하다가 신시(申時 : 오후 3~5시)에 퇴각하였다. 이때 김시민은 탄환과 화살을 아끼도록 했고, 성안의 노약자는 물론 나이든 남자나 여자에게 남장을 하도록 하는 등 위장 심리전을 준비하였다.

Ⅳ 둘째 날 ; 10월 6일

왜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왜군은 3제대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1제대 1천여 명의 총수는 동문 밖 순천당산(順天堂山) 위에 진을 치고 초총을 발사하였다. 다른 1제대는 동문 앞을 지나 봉명루(鳳鳴樓) 앞에 진을 쳤고, 나머지 1제대는 순천당산을 넘어 봉명루의 적과 합하여 한 진을 이루었다. 조공부대는 각 산에서 주공을 도왔다. 왜군은 민가의 대

문을 뜯어 와서 성밖 100보 지점에 세우고 그 뒤에 서 조총을 발사하였다.

이날 저녁에 광재우는 심대승으로 하여금 군사 200여 명을 거느리고 향교 뒷산에 올라가 호각을 불고 햇불을 들게 하였다. 의병장 최강과 이달도 원병을 이끌고 산에 진을 치고 병사 당 4-5개의 햇불을 들도록 하고 북과 함성을 지르도록 하였다. 김시민의 요청으로 김성일은 장전(長箭) 100여 부를 보내 주었다.

Ⅲ 셋째 날 ; 10월 7일

하루 종일 왜군의 조총과 활 공격이 있었으며, 성 주변의 민가가 모두 소각되었다. 밤에는 아동을 시켜서 성 주위를 다니게 하면서, “경성이 이미 함락되었고 8도가 무너졌는데, 너희 새장같은 진주성을 어찌 능히 지키겠는가. 빨리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다. 오늘 저녁 개산(介山) 아버지가 오면 너의 세 장수의 목을 당장 깃대 위에 달 것이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왜군은 밤에 동문 밖에 죽편(竹編)을 세우고, 그 안에 판자를 세운 뒤에 흙과 돌로써 층층이 쌓은 토루(土壘)를 성벽 높이로 세우고 조총을 발사하였다. 김시민은 저녁에 악공을 불러 거문고를 타고 통소를 불게 하는 등 아군의 심리적 안정과 적군의 상대적 불안감 조성을 유도하였다.

Ⅳ 넷째 날 ; 10월 8일

왜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왜군은 대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대고 성벽을 기어올랐다. 3층 높이의 산대(山臺)를 만들어 바퀴를 달아 밀고 들어오면서 조총과 화살을 성안으로 퍼부어 대는 압성지계(壓城之計)를 사용하였다. 김시민은 현자총통을 발사하게 하여 세 번만에 관통하였고, 이에 따라 적은 물러났다. 왜군은 소나무 가지를 많이 쌓아 놓고 이것으로 성호(城壕)를 메우고 죽편을 이용하여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계책을 세웠다. 김시민 목사는 이를 간파하고 화약 봉지에 불을 붙여 소나무 가지 더미를 모

두 불태워 버렸다.

조선 군은 미리 준비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와 질려포(蒺藜砲), 그리고 큰돌을 설치하여 성에 육박하는 적을 치면서 화살을 쏘았다. 자루가 긴 도끼와 낫을 준비하여 윤전산대(輪轉山臺)를 파괴하였다. 가마솥을 많이 걸어 놓고 물을 끓여서 적의 머리 위로 퍼붓기도 하였다.

밤 2경에는 고성의 조응도와 진주의 정유경이 군사 5백 명을 이끌고 각각 십자(十字) 햇불을 켜고 남강 건너편의 진현(晋峴) 위에서 호각을 부니, 성안에서도 이에 호응하였다. 왜군은 북병을 강변에 보내 원군의 진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Ⅴ 다섯째 날 ; 10월 9일

주야로 공격이 계속되었다. 왜군 2천여 명은 새벽에 단성 지역에서 민간에 대한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그중 일부는 단계현으로 향하였는데, 두 곳에서 격퇴당하였다. 살천으로 나간 적은 정기룡에게 쫓겨 저녁에야 회군하였다. 최경희와 임계영도 구원병을 거느리고 와서 왜군의 측면을 공격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둔화시켰다.

왜군은 총과 화살을 종일토록 그치지 않고 쏘았고, 흙을 날라서 토산대(土山臺) 쌓는 일도 계속하였다. 성에서는 현자총통을 쏘아 이를 붕괴시켰다. 이후에 적은 산대에 오르지 않았다. 저녁에 진주에서 납치되었던 아이가 적진을 도망쳐서 신북문에 도달했다. 탈출한 아이의 정보에 의하면 이튿날 새벽에 총 공격을 한다는 것이었다. 정보를 입수한 김시민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였다.

Ⅵ 여섯째 날 ; 10월 10일

마지막 결전의 날이었다. 왜군은 4경 초(상오 1시경)에 각 막사에 불을 밝히고 짐을 싣고 거짓으로 퇴각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 군사를 나태하게 한 후에 불을 끄고 몰래 들어왔다. 상오 2시경에 두 패로 나누어, 1만여 명의 한 패는 동문 새로 쌓은 성벽으로



▲ 김시민장군 동상

공격했다. 왜군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아군의 화살과 돌을 피하였다.

3층의 가면 인형을 만들어 사다리에 오르게 하여 아군을 속인 뒤에 성에 기어올랐고, 이어 기병 1천여 명이 돌진하였다. 김시민은 동문 북격대(北隔臺)에서, 판관 성수경은 동문 웅성에서 지휘하였다.

동문쪽 전투가 한창일 때, 1만여 명이 구 북문 쪽을 공격하였다. 사다리와 방패를 이용한 등성(登城) 작전에 아군의 수비가 일시 무너졌지만, 전 만호 최덕량과 군관 이압, 윤사복이 사력을 다하여 수습할 수 있었다. 성안의 돌을 던지는 과정에서 모든 돌이 없어질 지경이었다. 사력을 다한 아군의 방어에 3만의 왜군도 더 이상 공격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기 직전이었다.

6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마무리되기 직전 아침에, 성안 적군의 시신을 돌아보던 김시민 목사는 부상당한 왜군이 쏜 유탄을 원편 이마에 맞았다. 진주성의 거인 김시민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성장이 쓰러지자 곤양군수 이광악이 대신 지휘관이 되어 북격대를 지키며 궁수를 거느리고 분전하였다. 8시간 이상 공격을 가하던 왜군은 상오 7시에서 11시가 되자 포로

와 우마를 버리고 황급하게 퇴각하였다. 아군 역시 6일간의 전투에 지쳐서 추격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진주성의 3천 군사가 3만 침략군을 물리치는 순간으로, 조선 민·관·군의 저항정신이 침략군의 야만성을 붕괴시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진주성 전투 당시 아군이 6배에 가까운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자.

진주성 전투 당시 김시민은 다양한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시켰으며, 팔진도법(八陣圖法)이라는 전법을 구사하였고, 전투 중에는 열악한 전투력을 심리전 등을 이용하여 극복하였다.

진주성의 둘레는 1만여 척으로 수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은 1만여 명이였다. 그런데 당시 수성할 만한 병력은 3,800여 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시민은 노약자와 여자까지 동원하여 남장을 시켜서 성벽에 배치하였다. 병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허수아비와 같은 의병(擬兵)을 세워 위장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김시민의 작전에 넘어간 왜군은 공성전을 장기전인 아닌 단기전으로 결정하였고, 6영으로 나누어 주야로 공격하였다. 이미 노현(露峴)전투와 창원성 전투에 이어 함안성 전투나 진주 외곽 전투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승리한 경험이 있었던 왜군은 진주성 전투에 대해서도 막연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시민 역시 왜군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갖추었다.

병기를 수선하고 군량을 모으는 한편 성지(城池)의 결함을 보완하는 등 수성전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무기체계였다. 전투에서의 승패의 결정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치명상을 입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고, 이의 주체를 무기 체계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염초(焰硝) 150여 근과 총통 170여 자루를 제작하여 병사 훈련에 사용하였다.

당시 아군의 화력은 왜군에 비해 열세였다. 전반적인 화기 수량과 화약량의 부족을 적절한 화기의

통제와 집중 사격의 활용을 통해서 효용성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화기 이외에도 전통적인 궁술의 활용은 물론, 돌·불 붙인 짚·끓는 물 등의 재래식 무기까지 동원했다.

왜군은 대병력과 우세한 화력을 바탕으로 주야간의 공격으로 단기간에 성의 함락을 기대했다. 그러나 김시민은 공성군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다양한 작전으로 수성에 성공했던 것이다.

열세의 군사와 무기, 군량 등으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김시민의 용병술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사기와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는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상벌 적용과 명령의 엄중함을 강조하였다.

절제되고 통제된 명령을 바탕으로 최 근접거리에서만 병기의 사용을 집중케 함으로써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즉 수성군 중 5월부터 사천(泗川) 등 3성의 수복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 주력 병사를 가장 취약 지점인 동면의 수성을 맡기고, 노약자들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진주성에 대한 거점 확보를 위한 수성 전략에 따라, 인근 지역의 지원군과의 상호 협력 작전을 수행하는 전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과 부하 장병들의 용맹, 단기전을 예상하면서도 적에게는 지구전으로 오도시켜 소모전을 강행시켰고, 전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전략 전술 및 심리전 등을 동원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앞에서 살폈듯이 몇 가지로 정리된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철저한 전투 준비와 합리적인 전쟁 수행 능력, 살신성인의 충의정신에서 찾아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시민 장군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신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충성심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김시민이 주도한 1차 진주성 전투는 아군의 대승이었으며, 왜군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전투로 기록된 완전한 패배였다. 왜군의 총 공격에 맞서 김시민 목사와 의병, 민간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물리쳤던 진주성 전투의 승리요건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자신과 가족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김시민의 충절정신이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진주성 전투는 3천의 군사로 3만의 적군을 격퇴한 싸움이었다. 이는 진충보국·살신성인의 정신적 무장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즉 사전 대비책은 물론이고, 왜군의 침입에 대해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가 굳었기에 가능하였다. 활을 당겨 손가락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은 부하장병과 성안의 민간인까지 혼연일체의 저항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일당백 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었던 것도 지휘관의 충의에서 비롯되었음은 재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義)로써 줄기를 삼고 충으로써 뿌리를 삼고 살았던 김시민 장군의 의지가 진주성에서 그대로 발현된 것이다.

둘째, 김시민의 철저한 전쟁 준비태세와 병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한다는 태도를 몸으로 보여주었던 실천성이다. 그는 부인과 더불어 친히 먹을 것을 가지고 성을 돌아다니며 군사들에게 먹였으며, 자신이 직접 주야로 분투함으로써 모두를 감격시켰다. 이를 통하여 임전무퇴·백전불굴의 정신이 고양되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장수의 솔선수범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전투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는 전투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정신으로 발양되었던 것이다.

셋째, 진주성의 자연지리적 조건이다. 진주성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었고, 성 축조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남으로는 남강, 서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다. 따라서 이 방면으로의 침투는 거의 불가

능하다고 할 것이다. 동과 북은 평지였으나, 성 주위에 연못(해자)을 만들어 적군의 침투에 대비함으로써 공격 자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넷째, 고도의 심리전을 통하여 왜군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왜군과의 심리전에서 뒤지지 않았던 전략상의 승리이다. 활 쏘는 모습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성에 배치하였으며, 성안의 한가로움을 보일 목적과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는 시위의 방편으로 악공을 동원하여 야간에 문루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였다. 전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들에게 남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꺾었다. 특히 왜군에 포로로 잡혀있던 어린아이가 도망쳐 왔을 때, 이들에게 적의 동향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책을 면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수적으로나 전력 면에서 막강했던 적의 예봉을 꺾을 수 있었다.

다섯째, 민·관·군의 합심이다. 민·관·군이 일체가 되어 준비한 전투는 침략군의 막강한 화력과 10배가 넘는 군사가 공격해 와도 완벽하게 막아내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진주성을 중심으로 북면에서는 광재우와 심대승, 서북 면에서는 최경희와 김준민, 임계영이, 서면에서는 정기룡, 조정향이, 남강으로는 하경해(河景海), 남면에서는 정유경, 이달, 최강, 조응도 부대 등이 협공에 나선 것도 승리의 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던 진주성 전투는 임란 최초로 이루어 낸 육전의 승리이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두보에 위치한 성을 보전한 전투였다. 이와 함께 일본에는 진주성이 조선 제1의 城이라는 이미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진주성 전투의 승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온 왜군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기 고양이다. 민족의

위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살신성인의 정신력은 왜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고, 적군에게는 전쟁의지를 꺾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둘째, 조선군의 전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음은 물론, 군사와 군량의 완전한 보존을 가능케 했다.

셋째, 호남의 곡창지대를 보존함으로써 일본의 보급선을 막았고, 상대적으로 조선의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후 전국적인 관군 정비와 의병의 봉기가 촉진되었던 것도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넷째, 경상 우도 각 고을의 안정적인 보존을 가능케 하였고, 호남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 내륙으로의 진입을 막았다.

즉 왜군의 배후지를 장악하여 왜군의 진격과 보급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지에서 부족한 군량미 등 전쟁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군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결국 왜군이 평양과 함경도를 점령하고도 전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게 했던 요인의 하나는 진주성을 공략하고 호남을 점령하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되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진주성 전투는 말은 바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지도자 김시민과 그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동조했던 민초, 여기에 국가와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애국정신이 승화되어 이루어 낸 임란 최초·최대의 승전이라고 할 것이다. 즉 진주성 전투의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전에서 이를 응용한 김시민 장군의 지휘능력과 자신과 가족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충절정신, 명령에 따라 목숨을 버릴 각오로 따른 병사, 진주성의 민간인이 공동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것이다.

(2003년 김시민장군 선양 학술심포지엄 자료집에서)

예학자(禮學者)로서 풍류(風流)에 산 선비 이지함(李之函)

대전해수욕장(大川海水浴場)에서 서쪽으로 은포리(隱浦里) 송학(松鶴)을 지나 포구로 향해 12Km쯤 가다보면 보령군(保寧市) 주교면(周橋面) 고정리(高亭里)가 나오고 동구입구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 언덕바지에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諸總管通訓大夫水原判官韓山 李公神道碑」라 새겨진 토정의 아버지 신도비(神道碑)가 있고 그 오른쪽에 그 2배나 되는 신도비가 서있는데 이 비가 이지함(李之函)의 신도비다.

비석은 1965년에 세운 것으로 되어있는데 없어졌던 신도비를 이 곳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 곳에서 언덕을 넘으면 이어있는 산허리에 묘가 즐비하게 자리해 있는데 위쪽 중앙에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의 아버지 묘가 있고 그 왼쪽에 묘가 있으며 그 위에 비석조차 없는 요절한 그 아들들의 묘가 있다. 묘비가 남아있는 「贈領議政」의 묘만도 넷이나 된다.

조카 이산보(李山甫)의 묘도 여기에 있으며 맨 아래쪽에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을 지낸 한평군(韓平君) 이공(李公)의 묘가 있다. 이 묘는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이 손수 잡았다는 묘인데 서해(西海)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해송(海松)으로 둘러싸였으며 포구로 들어오는 물이 마치 호수(湖水) 같으며 포구 앞에 서너 개의 암초가 솟아나 있고 멀리 큰 섬이 있어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터다.

주역(周易)에 밝은 이지함(李之函)이 택한 명당 터라 한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은 이조때 중종(中宗) 12년에 청라면 장산리에서 태어난 철인이다. 그의 자는 형중(馨仲)이며 호는 토정(土亭)이고 시호는 문강(文康)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고려(高麗)때의 삼은 이색(三隱 李穡)의 후손으로서 현령(懸令) 이치의 아들로써 어렸을때 아버지를 잃고 형 이지번에게 글을 배웠고 그 후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에게 배웠다.

토정집유사(土亭集遺事)를 보면 그를 가르켜 「키는 크고 건강 하였으며 얼굴은 검으면서 둥글고 살집이 좋았으며 발은 커서 한 자가 되었으며 눈은 빛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였으며 목소리는 웅장하고 맑되 말수는 적었고 기개가 당당했고 위품이 늙름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익히는 제가잡술(諸家雜術)에 통했던 능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성리학자 이이(李珥)와 친하여 이이(李珥)가 성리학(性理學)을 배우려 하였으나 그는 욕심이 많아서 배울 수 없다고 대답한 것도 그는 그대로의 기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역(周易)에 대통한 학자로서 청빈함을 자랑으로 삼았고 낙도의 길을 택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지니고 다니는 양반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서민의 세계로 파고든 민본사상에 뿌리한 철인이었던 것이다.

의학·복술·천문·지리·음양·술서 같은 기술학에 도통해서 기행 일담 예언 등으로 꼭 메워져 있어서 토정 비결같은 풀이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정서자전에도 통달한 그가 수학과 역학에도 통달하였으므로 민중의 핵심으로 존재할 우래성 없는 학문을 배격하고 오히려 태연해하는 학자였던 것이다.

그는 圭敬窮里를 학문의 연구방법으로 택해서 전국을 답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방랑하며 민본과 풍수를 익혔고 서울 마포(麻浦)의 동막부근 초라한 흙집속에서 솔을 뒤집어 쓰고 갓이라 하였고 물욕이 싫어서 토막에 살면서 스스로 토정(土亭)이라고 불렀었다. 그는 네 귀퉁이에 큰 막을 단 작은 배를 타고 제주도(濟州島)를 세 번이나 왕래하였지만 풍랑 한번 겪지 않았었다.

몸소 염전을 경영하고 섬들을 왕래하면서 박을 심고 바가지를 만들어 몇 년 내에 곡식 수만 섬을 쌓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그는 모두 나누어주고 만류를 뿌리치며 다른 곳으로 떠났었다. 그가 방랑으로 전반생애를 보내게된 동기를 조중봉(趙重峰)은 젊어서 안명세(安名世)의 죽임에서 충격을 받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만년인 선조 6년(1573)에 선조(宣祖)가 학식이 뛰어난 인물 8명에게 육품 벼슬을 내릴때 일원으로 발탁되어 포천현감(抱川縣監)이 되고 다음해 아산현감(牙山縣監)이 되어서는 즉시 관내에 결인청을 두고 불우한 밑바닥 인생들을 도왔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숨진 곳이다. 그는 선정을 베풀어 칭찬이 대단하였으나 이질병으로 죽으니 1578년 그가 62세 때였다. 지금 그가 선정을 베풀은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牙山市 靈仁面 牙山里)에는 그의 선정비만 남아있다.

누구에게 돋보이게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싫어서 그 많은 재주로 오직 민본사상의 극치에 살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철인이었는가는 아산현감(牙山縣監)으로 있을 때의 상소문을 봐도 단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변머리가 없어서 토막에서 살은 것도 아니라 유학자 李珥에게 말한 대로 욕심이 많아서 성리학을 배울 수 없다는 그의 고언은 그가 유학보다는 자기가 느끼고 깨우치는 민본에의 사상이 깨우친 사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던 철인이었던 것이다.

때를 만났더라면 크게 빛났을 제세(濟世)의 큰 인물이었다. 보령군 청라면 옥계리에 그의 위해를 모시고 춘추제향을 받게한 화암서원이 있다.

부인당제(夫人堂祭)

부인당은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에 있는 사당으로 이곳에서는 현재도 매년 음력 1월 14일에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당제(堂祭)가 올려지고 있다. 사당과 제사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끊이지 않고 유지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설화도 있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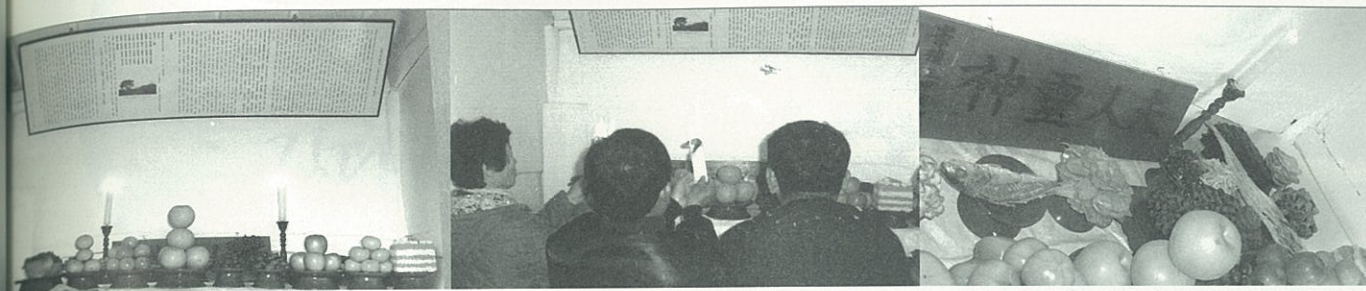
1 전해오는 이야기

부인당에 관한 구전 설화를 채록해 놓은 최근의 기록으로 먼저 '부인당'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적면 부인2리 지발에 부인당이 있다. 이 마을을 '지발'이라고 하는데 옛날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가지고 부인당의 제수(祭需)를 만들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제발'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제전(祭田)은 부인리 부근 전체가 '제전'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 밤 자시(子時)에 부인당에서 산제를 지내는데 산제 축문을 보면 '조영부인영신'이라고 되어 있어 부인당의 주인공은 조영부인이라 할 수 있다.

조영부인의 유래에 보면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삼목(三木)을 저 보이고 근처의 한 노파에게 해몽을 들으니 삼목을 진 것은 임금 왕(王)자요, 큰 술을 인 것은 면류관을 쓴 것이요, 깊은 물에 들어간 것은 용왕을 봄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는 수일 후에 과연 대승을 하였다. 고려 태조는 그 노파를 부인(夫人)이라 봉하고 밭을 주었는데 그 밭이 지금의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왕밭이고 그 부인이 죽자 제수용으로 밭을 주었는데 그 방일(方里)를 부인처(夫人處) 그 마을 명을 제전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지발이라고 부른다 한다.

그리고 '왕밭'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광석면에 '왕전리' 또는 '왕밭'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 옛날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군과 최후의 격전을 벌이기 위하여 황산벌에 진을 치고 있었다. 연일 계속된 싸움으로 지칠대로 지친 왕건은 진영을 둘러보고 난 후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에 서까래 세 개를 짊어지고 큰 술을 뒤집어 쓴 채 바다속으로 들어가자 닭이 울고 수 만 집에서 방망이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왕건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왕건은 그 꿈이 어쩐지 불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래서 그 꿈을 인근 무당에게 해몽을 듣고자 찾아갔다. 꿈 얘기를 들은 무당은 "서까래 셋을 짊어진 것은 임금 왕자로 왕이 된다는 것이요, 큰 술을 쓰고 바다에 들어간 것은 용좌에 앉는다는 것이며 닭의 울음소리는 고고함으로서



높은 것이요, 수 만 집의 방망이 소리는 등극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요" 하고 해몽을 해 주는 것이었다. 왕건은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진영으로 돌아 온 왕건은 휘하 장병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하여 왕건은 후백제군을 크게 물리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된 것이다. 왕건은 이번 싸움에서의 승리는 꿈을 해몽해 준 무당의 공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건은 등극 후 다시 찾아가 꿈을 해몽해 준 그 무당에게 '부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하였고 이곳의 밭을 상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곳은 왕이 준 밭이라 하여 '왕밭' 또는 '왕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밭을 무당에게 상으로 주기 위하여 이곳에 왔을 때는 밤이 되었다. "밭을 어느 정도 떼어 주어야 하는지요?"라고 신하 한 사람이 물었다. 밤인지라 범위가 보이지 않아 얼마만큼 주어야 좋을는지 몰라 한참동안 망설이고 있더니 "이 등불이 보이는 지역은 전부 부인에게 주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호 마을은 천동리에 가까우나 이때 불빛이 장호에서도 보여 왕밭(왕전)에 속했다고 한다.

2 부인리 2구 산신제

부적면 부인리 2구(지발)는 지금까지 매년 정월 14일(음력) 자시에 느티나무 밑에 있는 부인당에서 산제를 지내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부인당 앞길에 큰 길로서 남쪽 지방에서 한양을 갔다고 한다. 이때 말을 타고 가던 행인들은 반드시 말에서 내려가야지 타고 가면 말다리가 부러지거나 말 탄 사람이 앓은뱅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가 월경이 있을 시 이 앞을 지나다가 앓은뱅이가 되었는데 부인당에서 치성을 드리고 걸어서 갔다고 하며, 어느 사람이 제를 지내다가 무릎을 꿇고 다리를 굽었는데 며칠후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 와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곳을 신성(神聖)시 하고 있는 산제를 올리고 있으며 지내지 않으면 해(害)가 온다고 믿고 있다.

산제를 올리는 것은 질병퇴치와 부락의 안녕을 기원하며 과거에는 제기(祭器)등이 계속 전해 내려 왔는데 한국전쟁 당시 분실 파손되었다 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제주 1인, 축관 1인, 기타 1인을 마을 사람 중에서 생기 복덕에 맞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선발이 된 사람은 1주일간 목욕제계하고 여자와 같이 동침하지 않으며 대문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부정을 막고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을 주민들도 비린 것을 먹지 않는다.

마을 회관 앞 논 400평의 명이는 국유지로 돼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논산시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산된 쌀을 팔아 그 수입금으로 부인당제를 지내며 마을 사람들은 이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부인당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은 1985년 경지정리 시 마을 주변에 조각나서 흩어져 있던 공유토지들(부인당 토지) 400평의 논으로 환지 받은 것이다.

③ 부인당제 모습

- ① 시장보기 : 제물은 집안 기제사와 비슷하게 준비,
단 닭을 쓰지 않음, 제수비용 약 40만원 정도
- ② 제물만들기 : 14시경부터
- ③ 제물나르기 : 해 지고 동네 사람들 저녁 먹으러 들어간 다음 조용히 진설
- ④ 메 짓기 : 22시경 - 쌀과 술, 숯(나무) 가지고 가서 부인당 현지에서 직접 밥을 짓고 국을 끓임.(요즘은 휴대용 가스렌지 이용)
- ⑤ 제지내기 : 23시경 시작 - 올해는 이장은 서승원, 새마을 지도자 서동운이 함께 제관하고 축관은 홍춘규씨가 했으며 홍성선, 신길자씨가 옆에서 도움. 흥기는 없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각각 한잔씩 올리고 독축 재배 이후 대통령, 도지사, 시장, 면장, 이장, 지도자, 마을 사람들 각 가정마다 일일이 호주 호명 하면서 소지 올리고 이웃마을 이장, 유지들까지 소지 올려 줌 - 24시경 부인당제 끝이 남.
- ⑥ 주변풍경 : 마을 주민 20여명이 제지내기 전에 나와 부인당 근처의 공터에 모닥불 피워놓고 풍물을 치며 분위기를 돋움. 제지내기가 끝나고 음식과 술을 모닥불 옆으로 가져 왔으나 몇 사람이 술 한잔씩 하고는 외면.

④. 오늘의 우리에게 던져 주는 빛

왕건의 왕위 등극을 예언하는 꿈으로 전하는 현재의 설화 내용은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 꿈을 꾸었을 때 왕건은 이미 왕으로 등극한지 19년째였다. 당초 노구의 해몽 내용은 이 꿈을 오랜 전쟁 끝에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통일국가로서 새롭게 출발함을 예언, 찬양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왕자와 용상에 앉은 것은 새롭게 통일국가의 임금이 된다는 것이요, 온 세상의 닭들이 일제히 울고 온 나라 집집마다 동리마다 다듬이질 소리가 울려 퍼짐은 통일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축하하는 팡파레가 아닐 것인가? 분단의 시대에 살면서 통일을 갈망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 설화는 실제의 통일 현장인 인근 개태사지와 함께 큰 빛이 아닐 수 없다.

설화속에 등장하여 자손도 없는 여자 무당을 천년이 넘게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곳이 여기 논산 부적 부인당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

발췌도서

- 1987년 『놀뭍(논산)의 민속』, 논산문화원
- 2003년 『논산문화』봄호, 천년의 여인, 류제협
- 2004년 『논산문화』신년호, 부인당 설화, 임채학

충남의 민속

[조치원문화원제공]

강다리



* 용암강다리의 유래

강다리란 줄다리기의 우리말이다.

특히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 일대에서 행해지는 줄다리를 지칭하는 것이 강다리이다.

예전에는 공주군 의당면과 공주시(옛 미나리깡) 일대와 그 밖의 서너 군데에서 강다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강다리란 말도 사라지고 그 행위가 많이 변형되어 그저 줄다리기로 하면서 체육 대회나 문화행사에 민속놀이란 제목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강다리 순수의 목적이 많이 변형되어 단순한 승부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 용암리의 강다리는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한 해를 거르지 않고 행하고 있어 이를 보존 전승 시키는데 중요함을 느끼면서 그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1) 용암 강다리는 400여년전부터 해 왔다는 말이 있다.

그 발단을 임진왜란으로 보는데 용암리와 가까이에 있는 비암사에 왜군이 쳐들어 왔다. 당시 비암사는 수 많은 승병을 육성할 정도로 절의 규모가 컸었다고 한다.

왜군은 공주를 거쳐 연기 비암사 승병과 전투를 벌였는데 왜군의 신식 무기와 숫자에 눌려 비암사 승병이 지고 말았다.

비암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왜군들은 비암사의 승병은 물론 건물을 닥치는 대로 불 질렀다.

당시 비암사 주변에서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많았는데 왜군은 도공을 모두 붙잡아 갔으며 그 후로 비암사 주변의 도자기 생산도 중단 되었고 주민들은 놀라 숨었으며 다른 지역의 피난민은 모두 잡혀 변을 당하였지만 산너머 송암 부락 옆 골짜기에 숨은 사람은 모두 무사 하였다.

그래서 이곳 지명을 생천이라 불렀으며 살아난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한 사람과 인근 마을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용암리에 정착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지 말고 평소에 힘을 기르자며 시작한 것이 강다리라고도한다.

그래서 강을 힘으로 보고 다리는 기른다는 뜻으로 힘을 기르자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내용을 들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구연자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어른들께서 해주신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나 강다리는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줄다리기의 우리식 이름이다.

그리고 용암 주변 마을에서 행해졌던 옛 놀이인데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용암리만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강다리가 수백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내려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민족 말살기인 일제시대 우리의 민속놀이를 조선 총독부에서는 금지 시켰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강다리는 말할 것도 없이 금지 대상이었다.

1918년(무오년)동네 어른들은 다른 어느 해보다 올해는 강을 잘 다녀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그 해가 재해가 많은 해로 전염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용암리 주변 마을에서는 괴질에 걸려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용암리에서는 정성을 들여 강다리를 하였는데 한 사람도 괴질에 걸리지 않고 걸린 사람도 금방 치유가 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한 경험을 한 동네 사람들은 더욱 정성을 들여 강다리가 진행 되었는데 이듬해 일본 헌병대에서 강다리를 중단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다음해 에는 강다리가 중단 되었다.

그러자 동네에 불화가 겹치기 시작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동네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불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등 나쁜 일들이 계속 겹치게 일어나자 동네 사람들은 이 원인이 강다리를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긴급 마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손에는 곡괭이, 낫 등을 들고 헌병대를 부수고 잡혀 죽나 죽는 것은 같으니 각오하란 말을 하고 행동에 옮기려 하자, 일본 헌병들은 분주하게 상급부대

에 알리고 대책을 세우더니 결국 용암리 강다리만큼은 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 낸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용암리 강다리만 행해졌으며 이웃 마을에서 구경 온 구경꾼이 마을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루었다.

* 강다리의 의미

강다리는 충남의 연기 공주지역에서 행해졌던 줄다리기이다.

강다리에서 강은 줄을 지칭하고 다리는 줄다리는 모습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강다리의 승부는 이미 결정된 승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들고 동네가 편안하다는 것은 생산이 모체인 여자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자는 자식을 잉태하는 신성한 존재로서 농사에 풍년 들기를 기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여자가 즐겁고 편안해야 집안에 화평이 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 일 것이며 또 다른 해석은 힘이 센 남자는 침략국인 일본을 상징하고 약자인 여자는 조선을 상징하여 여자가 힘이 강해야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강다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의해 힘을 기르자는 의미로 시작 되었다는 유래를 뒷받침하여 주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미 결정된 승부를 가지고 강다리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성의 있는 진행이 될 것이냐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다리에 임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고 봐주는 자포자기기가 없다.

또 강다리 특유의 신성함이 있다.

그 이유는 남녀로 나누어 줄을 당기면 당연히 남자가 이길 것은 뻔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에 불과하며 다음판이 시작 되면 여자측에서는 묘책을 가지고 나 온다. 할머니 들은 준비한 가시나무를 들고 나와 힘을 쓰는 청년들 손 등을 때린다.

그러면 청년들은 손등이 따가와 줄을 놓게 되고 그때 줄을 당기면 여자쪽이 유리하다.

그래도 승부가 남자에게 쏠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손목을 때려 손을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들을 쫓아 다니며 줄을 잡지 못하게 하여 줄다리기 도중에 쫓고 쫓기는 풍경이 연출되고 강다리 승리는 여자편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승패가 배분 되면서 전체적 승리는 여자가 이기는 것이다.

또 하나 남자가 힘껏 당겼다가 여자들이 이기고자 힘주어 잡아당길 때 일제히 놓아 여자들이 엉덩방아 찧을 때가 있다.

이때 엉덩방아를 찧는 모습을 보고 남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이겼다는 승리감으로 만세를 부른다.

그러면 풍장꾼들이 분위기를 맞추어 흥을 돋우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의 한마당이 연출되는 것이다.

승패의 숫자는 3판 2승, 5판 3승의 작은 횟수가 아니라 하다 쉬었다가 또 하고 하루, 이틀 많게는 삼일 까지도 강다리를 했다고 한다.

이처럼 강다리는 줄다리기처럼 승패에 목적을 두고 테두리 안에 맞춰 하는 행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 분위기로 웃음과 진지함이 묻어 있는 것이 강다리이다.

▶ 강다리의 순서

강다리는 보름날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보름을 음력 1월 15일 이라 하면 강다리는 1월16

일날 한다.

그 이유는 보름 중 16일이 달 밝기가 가장 밝은 날 이라 한다.

보름 10일 전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강다리 준비를 한다.

강다리는 수신제와 목신제를 같이 지내기 때문에 주민이 하나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탁주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난다.

그 비용은 풍물놀이가 지신 밝기를 하는데 집집마다 성의껏 낸 돈이 자금이 된다.

10일전 마을사랑방에 모여 우선 제관을 뽑는데 생기복덕인 사람을 골라 제관, 촉관 공양주를 선택한다.

뽑힌 사람은 마음가짐, 몸가짐을 다하여 부정이 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우선 집앞에 황토흙을 양쪽에 세모직으로 놓고 대문에는 금줄을 친다 금줄에는 술가지와 창호지를 붙인다 말을 할때에는 아름다운 말만 골라 하고 부정스런 언사는 듣지도 하지도 않으며 또한 부정스런 것을 보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집밖을 나가지 않고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루에 한번씩 한다.

동네 사람들 또한 부정이 타지 않도록 협조하여 동네 자체가 신성하도록 노력한다.

가) 강줄 만들기

1월 16일 아침부터 각 마을 사람들은 이미 준비한 집단을 가지고 마을 중심지로 모인다. 집단은 가을 걷이가 끝나고 길고 좋은 집단 다섯단을 강다리에 쓰기 위해 미리 준비 해둔다.

그것을 집집마다 들고 마을에 모여 남자들은 강줄을 만드는데 세명이 한조가 되어 강줄을 메긴다.

한 사람은 20cm정도의 나무토막을 들고 그곳에 짚을 연결한 다음 한 사람은 추린 짚을 집어 주어 강줄을 매기는데 세명이 한조가 되어 손이 맞아야 줄의

굵기가 일정하고 작업이 수월하다.

처음 한가닥은 10m가 넘게 줄을 만든다.

이것을 반으로 접고 한사람은 붙들고 또 한사람은 접은 끝을 붙들고 있으면 한 사람은 접은 줄 안으로 들어가 줄을 끈다.

예전에는 세가닥으로 꼬기도 하는데 요즘은 두 가닥으로 끈다.

개수는 동네 사람의 수와 비례하게 만든다.

나) 용대(용목) 구하기

줄이 어느정도 완성되면 용목을 구하러 다닌다.

용목은 미리 보아 놓은 나무를 자르기도 하는데 남자 서너명이 제물을 차려 산으로 오른다. 나무는 소나무를 베는데 가볍고 다루기 쉬운 미루나무나 다른 나무를 벨 때도 있다. 나무의 모습은 위와 아래에 줄을 메달 았을때 빠지지 않게 아래는 두껍고 위는 가지가 있어 이를 살려 나무를 벤다.

이 나무는 해마다 베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몇 해를 쓰되 나무를 벨 때에는 윤년이 드는 해에 나무를 구한다.

대상 나무에 다다르면 제물을 차려놓고 잔을 부어 제사를 지낸다.

축은 산신령께 강다리나무를 베게 허락해 달라며 허락을 얻은 후 나무를 벤다.

벤 나무를 지게에 지고 오기도 하는데 마을 큰 마당에 운반하여 강줄을강목(용대)에 입히는 작업을 한다.

줄은 개발처럼 5~6m되는 것을 주민 숫자에 맞춰 메단다.

다) 지신밟기

강다리 준비가 끝나면 강다리 할 장소로 옮기어 준비를 해 놓는다.

그런 후 남자들은 술을 한잔하고 풍물을 구성한다. 기는 농기를 들고 마을 큰 마당에서 신명나게 논 후 집집마다 걸립을 시작한다.

풍장꾼이 도착하면 장독대와 부엌, 우물(수도)에 정화수를 떠 놓고 풍물꾼을 맞이한다. 풍물꾼은 우물에 제일 먼저 지성을 드린다.

충청도 웃다리 농악의 진수는 칠채가락이다.

칠채가락을 치고 풍물꾼들은 상쇠의 덕담에 맞춰 장단을 친다.

우물에서는 상쇠가

“뚜루세 뚜루세 물구녕을 뚜루세,들이세 들이세 온갖 만복을 들이세”

라고 하면 신명나게 풍장을 치고 주인은 두 손을 비벼가며 고개를 연신 숙이면서 정성을 다한다.

우물 정성이 끝나면 부엌으로 들어간다. 부엌에는 상에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풍장이 끝나면 술한잔을 대접한다.

부엌이 끝나면 장독대로 옮기는데 장독대에는 짚을 깔고 쌀을 넣은 그릇에 촛대를 켜고 정화수를 떠 놓고 주인은 지성을 드린다.

풍물꾼들은 그 집에 만복이 깃들고 나쁜기운은 물러가며 1년내내 재수있게 지내라고 빌어준다. 그러면 우물,부엌,장독대에 쌀과 정화수를 떠 놓고 비는데 그에 쓰였던 쌀은 풍물꾼들에게 주고 돈을 얹어 주는 집도 많으며 이것은 강다리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라) 수신제 지내기

남자들이 건립을 할 때 여자들은 그해 공양주가 닿는 집에 모여 제물 준비를 한다.

제물에 쓰일 물건을 사러 갈때는 공양주가 앞장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은 가게 주인과 흥정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산다.

물건은 보자기에 싸서 가져오는데 부정스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한 신속하게 가져와 부정을 최대한 줄인다.

해가 서산에 넘어갈 무렵 아낙들은 동네 우물가로 몰려와 수신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집집마다 장독대에는 시루가 놓여지고 우물가에도 시루와 삼색실과 촛대 소지를 준비한다. 우물에 떡 시루를 놓고 그 앞에 짚을 깔 다음 과일을 놓는데 사과, 배, 감, 대추, 밤을 놓는다.

시루 양쪽에는 명태를 쪼아 놓고 그 앞에 촛불을 켜 놓는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아낙들은 동서남북을 향해 합장하며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마을 소지를 물린 다음 각 개인소지를 올린다.

몸이 아파 참석치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참석치 못한 사람을 위해 소지를 올려주고 객지에 나간 사람을 위해서도 소지를 올려준다.

때론 집에서 기르는 가축소지도 올리는데 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

소지를 올릴때는

“지신명 용왕신(님)이시여 정성모아 비오니 올 한 해동안 마을에 나쁜 기운 물리치고 좋은 기운 물리치고 좋은 기운 들어 주소서 마을이 화목 되어 서로 도와 풍년들게 하소서”라는 마을 소지와

“천지신명 용왕신(님)이시여 ○○생 ○○소지를 올리오니 올해는 장가들게 도와 주소서 장가들어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올해는 꼭 장가들게 좋은 규수 하나 점지 해 주소서”하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올렸던 제물을 우물가에 조금씩 떼서 놓고는 목신제 지내는 곳으로 가서 제물 준비를 돕는다.

마) 목신제 지내기

수신제가 끝날때 쯤이면 동네 청년들은 낮에 만들어 놓은 햇불에 물을 붙이고 동구나무 있는 곳으로 가 주위를 깨끗이 아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떡 시루에다 쌀을 넣은 그릇을 넣고 그 가운데 촛대를 켜는다.

그 앞에 돼지머리를 삶지 않고 생으로 놓는데 예전에는 소머리를 쓸 때도 있었다고 한다. 돼지머리 옆에는 마른 명태를 놓고 그 앞에 대추, 밤, 꽃감, 배, 사과 순서로 놓고 앞에 향합과 양쪽에 촛대 가운데 술병을 놓는다.

목신제 제물은 여자가 돕지만 나무아래에 까지는 오지 않는다.

수신제가 여자가 중심이 되어 여자들이 지낸다면 목신제는 남자들이 주동이 되어 남자들이 모든 진행을 맡아서 한다.

먼저 풍장꾼들은 풍장을 치며 목신제를 지내는 동구나무로 온다.

동네사람들은 풍장꾼 뒤를 따라 동구나무가 있는 곳으로 모여 들고 목신제는 달이 떠오르기 전에 제를 시작한다.

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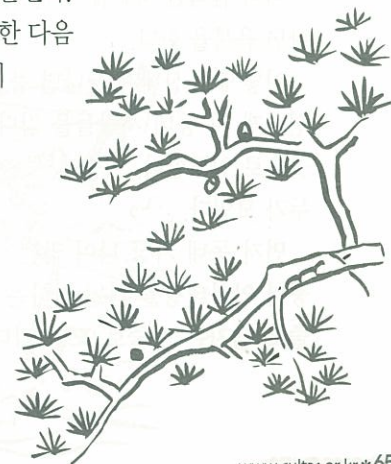
풍장을 멈춘 후 모두 정성을 다하여 제에 임하도록 하고 잔에 술을 따라 세군데 잔을 지운다. 향을 사르고 잔을 부어 잔을 올린다.

제관은 두 번 절을 한 다음

축관이 축을 읽는데

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문해석]

때는 바야흐로 ○년○월○일마을대표 ○ ○ ○는
밝게 사죄나이다.

고목신이시여 엎드려 생각 하옵건데 높이신 신이
시여

하늘을 대신해서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 고향을 지켜주시고

어리석은 백성을 돌보사

백성을 즐겁게 하고

신령께서 주시는 은덕으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어

신령님의 도움으로 백성을 인도하시고

백성에 혜택을 더하여

비록 미천한 백성이나

어찌 신의 공을 모르겠습니까?

한동네 백성이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는 때가되어 정월보름날에

고기와 술이 비록 작지만 정성을 다하여 바라오니

신령님께서 강림 하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충심으로

참석자 모두는 엎드려 비오니

바) 강다리

축문이 끝나면 잔을 올리고 절을 두 번 한다.

이어 참석한 사람들의 연명순으로 잔을 올리고 끝
나면 음복을 한다.

이렇게 목신제가 끝나면 풍장꾼들은 다시 풍장을
신나게 쳐 동네 사람들을 강다리가 준비 되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곳에서는 아낙네와 남녀노소 모
두가 모인다.

먼저 동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당부의 말씀과
풍년 안과태평을 기원 한다는 말을 하고 여자는 암
줄로 남자는 숫줄로 모여 강다리를 준비 완료하고

인사말을 끝낸 노인은 징을 세 번 친다. 그러면 세
번째 징이 울릴때 일제히 강줄을 잡아당기는데 서로
의 구호를 내기도 한다. 의례히 처음은 남자가 이기
게 된다. 두 번째 까지 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부터는
작전을 바꾸어 동네 할머니들은 가시나무를 준비하
는데 징소리에 줄을 잡아당기고 할머니는 슬그머니
남자 편으로 가서 힘센 장정 서너명의 손등을 때리
면 장정들은 줄을 놓아 결국 지게 된다. 한번 끝날때
마다 동네 사람들은 이긴쪽과 진쪽이 서로 어우러져
신명나게 춤을 추고 풍물꾼들은 흥을 돋운다.

강다리는 줄다리기처럼 3판 2승이나 5판 3승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승패를 주거나 받거나를 연달
아 계속하고 지치면 쉬었다하고 또 짓곳은 남자들은
귓속말로 상의하여 힘을 바짝 준 다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손을 놓아 여자들이 모두 넘어지게 하
여 웃음을 웃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넘어진 여자 쪽은 이겨서 좋아하고
졌지만 여자들이 넘어진 광경을 보고 함박웃음을 짓
는다.

그러면 노인들은 올해는 마을에 풍년이 들고 액은
나가고 운이 돌겠구나? 소리친다.

이때쯤이면 달은 머리위에 올라와 있고 동네는 온
통 웃음과 춤사위에 덮여 있게 된다.

▶ 결론

강다리는 충청도의 연기, 공주 일대에서 행하던
민속놀이이다.

지금은 연기의 용암리만이 그 맥을 이어 오는 민
속행사로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400여년 흘러 왔
다고 한다. 강다리가 남녀로 나누어 행하는 행사인
만큼 그 의미 또한 깊다. 생산을 주관하는 여자가 이
기는 것은 많은 생산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여자가
즐거워야 집안이 화목하다는 말도 된다. 또한 동네
노인들의 구전처럼 강다리가 힘을 기르자는 뜻으로

쓰인다면 약한 여자가 이겨야 힘이 길러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
이다. 강다리는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해마다 여자가 이겨 왔으며 그렇다고 일부러 져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힘이 약한 여자가 이기는 방법이 할머니들이 가시나무로 장정들의 손을 때려서 힘의 균
등을 맞춘다. 그래서 여자가 이기는 것이고 강다리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의미 있는 행동이 많다.
집집마다 강줄을 준비해 오고 지신땀기를 함으로 집집마다 자연스럽게 비용을 분담하며 자금이
풍부하면 그 돈으로 마을 숙원사업을 할 수도 있다.

수신제는 여자가 지내고 목신제는 남자가 지내는 특징이 있으며 수신제와 목신제가 끝나고 모
두 모여 강다리를 하는 것은 모두 화합을 강조한 사항이라 보겠다.

지난 98년도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충남 대표로 용암의 강다리가 출전했다.

무더운 여름내내 또 농번기에 농사일을 제쳐놓고 민속대회에 출전한 것은 우리 연기 민속의 중
요성과 특히 강다리가 흔한 민속놀이가 아님을 보여 준 것이라 본다.

강다리는 용암리 마을 행사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연기군을 대표하는 민속 행사이다. 그러
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존이 문제이다.

어떻게 보존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주
위에서 그것을 신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회의 필요성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주
위 학교에서 이를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운동회나 특별활동 시간에 강다리의 과목을 넣어 이를 배우고 시연 해보는 것을 되풀이 할 때
자연스럽게 보급되고 또 그 학교는 강다리 학교라는 전통을 가지게 된다.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 교육이라 한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예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속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성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강다리의 보존은 여러모로 중요하고 이를 계승하는 것은 연기군에 큰 보물을
지닌 것이다.



금강관련 설화



곰나루의 암곰과 사나이

공주의 지리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금강과 계룡산이 있다는데 있다. 이런 특성으로 금강과 계룡산에 대한 설화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는 금강과 연관이 있는 대표적인 설화인 '곰나루'와 '금강과 거울'이라는 두 개의 설화를 소개한다.

(1)곰나루

공주시에서 서북쪽으로 십리 정도가면, 공주를 싸고도는 금강기슭에 곰나루라고하는 나루터가 나온다. 이 나루터를 '고마나루터'라고도 하고 '웅진(熊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득한 옛날이었다. 이 곰나루 근처의 연미산(燕尾山)에 큰 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 커다란 암곰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 암곰은 나이가 들면서 시집을 가고 싶었다.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강가에서 살기 때문에, 시집을 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솔바람 소리가 밤새도록 동굴 속에 와 부딪히는 겨울 밤이나 달이 유난히 밝은 가을 밤 같은 때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날도 곰은 하염없이 굴을 나서다가 발을 멈추었다. 그 앞에 잘 생긴 사나이가 옷깃을 바람에

날리면서 유유히 지나고 있지 않은가. 외로울대로 외로워진 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도 아주 잘 생긴 사나이였기 때문에 암곰은 기쁨이 충만해 있었다.

"저 사나이를 내 남편으로 삼아야지."

암곰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더 생각할 것이 없다는 듯이 달려가 그를 입에 물고 굴 속으로 들어왔다. 사나이는 이미 기절하여 있었다. 곰은 사나이를 눕혀놓고 물을 뿌리며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한참 뒤에 깨어난 사나이는 눈을 부시시 뜨면서 굴속을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곰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몸을 움찔했다. 곰은 사나이가 놀라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서 사나이의 몸을 쓰다듬으면서 놀라지 말라는 듯이 다독거렸다.

사나이라도 곰이 해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마음을 놓았다. 곰은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차려다 주었다. 그리고, 밤에는 제 몸에 있는 털로 사나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잠을 잤다. 이처럼 사나이를 위해서 곰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섬겼지만, 어디 나갈때는 굴 앞에 커다란 돌로 굴 입구를 막아놓고 나갔다. 그래서, 사나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굴속에서 지내야 했다. 답답하고 지루했다. 거기다가 세상이 그리워서 견딜수가 없었다. 곰이 나간 뒤에 굴을 막아 놓은 돌을 떠밀어 보았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나이는 할 수 없이 주저앉아 곰이 갖다주는 고기나 찢어 먹고, 곰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는 동안에 곰은 새끼를 배고, 그 뒤 몇 달 뒤에는 마침내 새끼를 낳았다. 새끼는 이상하게도 반은 사람모습을 닮았고, 반은 곰의 형상을 닮았다. 처음에는 징그러웠다. 그러나, 날마다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그에게는 더없이 귀엽고 예쁜 아기로 변화였다. 사나이는 사람도 아니고, 곰도 아닌 아기곰과 노는 것이 더 없는 즐거움이었다.

아기 곰을 끌어안고 목마를 태우고 걸음마를 시킬때면, 그는 어떤 기쁨까지도 느껴졌다. 이런 모습을 지켜 본 곰은 곰대로 가슴이 뿌듯한 즐거움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일년이 지나고 또 일년이 지난 뒤에 또 새끼를 낳았다. 두 아기곰은 무럭무럭 자랐다. 이제 네 식구가 된것이다. 사나이는 그 전처럼 심심하지는 않았다. 비록, 굴속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지낼만 했다. 그러나, 문득문득 세상사람들이 그립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절이 목이 마르도록 간절하게 그리웠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곰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 날은 굴 앞에서 돌을 막아놓지 않은 채 나갔다. 곰은 아마도 새끼를 돌이나 낳았으니 도망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사나이는 이 때를 놓쳐서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길로 굴을 뛰어쳐나왔다. 마침, 나루터에는 빈배가 한 척 매어 있었다. 사나이는 그 배에 올라타고 노를 저었다.

그 때, 마침 굴로 들어오던 곰이 이것을 보고 강가에 서서 돌아오라는 듯 소리를 지르며 손짓을 했다. 그러나, 그는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곰은 새끼를 데리고 와서 높이 들고 손짓했다. 마치 돌아오지 않으면, 새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곰은 정말로 새끼 한 마리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사나이가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곰은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다가 새끼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이 나루를 '곰나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런 애절한 전설을 지니고 있는 곰나루는 공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2)금강과 거울

공주를 웅진이라고 부르며 한창 번창해 갈 때의 이야기라고 한다.

지금의 공산성 아래에 뗏집을 짓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한 어부와 아내가 있었다. 그들은 금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사는 가난한 부부였지만, 부부지간 금슬이 좋았다. 뗏집 주너는 거적으로 마련하였지만, 비는 새지 않았다. 방 한 칸을 흙벽돌로 막았으며, 아랫방에는 그들의 부모가 기거를 했고, 뒷방에선 그들 부부가 살았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자식이 없다고 탓하는 남편도 아니었고, 부모들도 탓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그날 강에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를 장터에 내다 팔아서 곡식을 사오면, 그 곡식으로 그날의 형편에 따라 밥을 지어먹을 때도 있고, 죽을 쑤어 먹을 때도 있었지만, 집에서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는 몹시 날씨가 맑은 날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으며, 아내는 설거지를 하는데 그날 따라 유난히 잠이와서 잠깐만 눈을 붙여야겠다고 방에 들어와 누워 곤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녀의 꿈속에 하얀 선녀가 나타나서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선녀를 따라 갔다. 선녀는 자기집 뒤로 한참 올라가더니, 바위 위에 앉으면서, “정성도 드리지 않고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여기에 와서 정성을 바치시오.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에게, “여보시오. 선녀님!”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꿈에서 깨었다. 깨어난 그녀는 신기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길로 집 뒤에 있는 바위로 올라가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다가 눈을 떴다. 그녀가 눈을 뜨자, 자기 눈앞에 이상한 풀이 꽃을 피우면서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풀을 만지다가 풀뿌리까지 캐기 시작했다. 풀의 뿌리는 큰 무만 했다.

그녀는 무심코 이상한 풀뿌리도 있다고 들고 와서 추녀밑에 놓으며, 내일도 모레도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만 골몰했었다. 그 날따라, 고기를 많이 잡은 남편은 장터에 가서 고기를 판 다음, 쌀 한 말을 무겁게 들고 들어오다가, “추녀밑에 산삼이다. 산삼이야!”하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선녀의 정성으로 산삼을 얻은 것이었다. 그 날따라, 재수가 좋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산삼을 개경에 가서 팔아야 제대로 값을 받는다고 해서, 어부인 아들이 내일 아침 개경으로 떠나기로 하고, 그날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부부가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 한참동안 잠에 들지 못하다가 아내가, “산삼을 팔면 고운 빛을 하나 사오세요”하고 말하니,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어 봤다. 바깥 하늘엔 달이 떠 있었다.

“단신 건망증이 있는데, 달을 보면 생각날 것예요. 잊지말아요.” 하고 아내가 조르자, “알았다니까”하고 방문을 꼭 닫고 잠을 청하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새벽 일찍 잠자리에 일어난 그는 산삼을 개나리 붓짐에 꼭 싸서 허리춤에 차고 개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개경에 와서 약재상에 들렸다. 약재상은 산삼을 보자 놀라서 입을 딱 벌리며 이

런 산삼을 어디에서 켜느냐고 묻더니, 돈을 풍족하게 주는 것이었다. 그는 약재상이 주는 돈을 받고 뛰어가 제주도 말을 사서 그말에 돈을 싣고 그 집을 나왔다. 그는 감쪽같이 부자가 된 것이 기뻐다.

개경 길을 벗어나다가 그제야 아내의 부탁을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을 사오라고 하였는지 물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생각을 더듬다가 무심코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엔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제야 생각이 떠오른 듯 장터에 달려가서 상점에 들려하는 말이, “저것과 같은 것을 주시요”하고 말을 했다.

상점 주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둥근 거울을 집어 주었다. 거울을 사서 말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집에 도착하자, 돈을 방에 뿌리고 아내에게 빛 대신 거울을 주었다. 아내는 거울을 받아들고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더니, “에그머니 개경에 가시더니 예쁜 색시를 데려왔네”하고 놀랐으며, 어머니는 거울을 보더니, “쭉쭉 찡긍한 할망구지 웬 색시냐?”하고 놀랐으며, 아내는 어머니에게 다시 거울을 비추어 보이며, “이것은 할머니”아버님에게 다시 거울을 비추어 보이며, “이것은 할아버지”하였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딴 사람이라 했다. 그들은 거울을 놓고 밤새 생각하고 상의한 끝에, 이것은 요물단지라고 결정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뿌영계 흐르는 강물에 그 요물을 던져 버렸다. 강에 거울을 던지는 순간, 마침 떠오르는 햇빛에 반사되어 강물은 금빛 찬란하였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이 강을 금강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한, 산삼으로 돈을 벌게 된 그들은 일평생 그돈으로 풍족하게 살다가 죽을 때 하나 얻은 자식에게 유언하기를,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남은 돈은 금강에 버리라고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죽자 돈을 금강에 버렸다.

지금의 금강에 대한 설화는 이렇게 전해진다. 금강이 다른 강보다 맑은 것은 그때 버린 거울 때문이라고 내려오고 있으며, 금강에 돈이 묻혀 있다는 것도 이 때부터 연유(緣由)된것이라 전한다.



공산성 아래 금강의 어부 부자(父子)

(3)인절미의 유래

인절미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찹쌀을 찢 다음 그것을 절구에 찧어 조그맣게 조그맣게 네모진 조각을 콩가루 또는 찹가루에 발라 만든 떡이다. 그런데, 왜 인절미라 불렀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인조대왕 2년 갑자에 평안병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당시의 서울인 한양을 침공하여 왔다. 왕은 하는 수 없이 이 고장 공주로 몽진(蒙塵)하였다. 왕은 때때로 공산성에 올라 멀리 북쪽 두고 온 한양을 근심스럽게 바라보곤 하였다.

그날도 인근의 부호인 임씨댁에서 한 광주리의 푸짐한 음식을 왕께 진상하였다. 지렛꾼이 땀을 흘리며 광주리를 내려놓았다. 조심스럽게 덮은 보자기를 걷어내니, 콩고물에 무친 떡이 가득 하였다. 왕은 시장한 참에 덩싹 입에 넣었다. 쫄깃쫄깃한 게 참으로 맛이 있었다. 왕은 연거푸 몇 개를 잡숫더니, “맛이 있구료. 그런데, 떡은 떡인 모양인데, 대체 이름이 무엇이었소?”하고 물으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씨댁 인절미를 먹는 피난길의 인조대왕

“떡이름이 있을텐데 아무도 모르니, 그 참 기이한 일이오. 근데, 이 떡은 어느 댁에서 만들어 왔소?”

“이 근처 마을 임씨댁이라 하옵니다”

왕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임씨라... 임씨라..., 가장 맛있는 떡, 음 인절미(任絶味)라 하는게 어떻겠소?”하면서 좌중을 둘러보며 빙그레 웃으셨다.

“그것 참 좋은가 하옵니다.”

모두 이렇게 이구동성을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이 때부터 인절미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임’의 ‘ㄷ’이 ‘ㄴ’으로 바뀌어, ‘인절미’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며칠 후, 임금은 이괄의 난이 평정되자, 쌍수에 통정대부라는 벼슬을 내리고, 이 성을 쌍수성(雙樹城)이라 명명한 다음 환궁하였다고 한다.

추사김정희선생 유적

예 산군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는 신암면 용궁리 799의 13필지와 용궁리 산 73-28일원에 위치한 추사고택을 비롯한 추사김정희선생 유적과 백송이다.

추사선생은 1786년에 현 추사고택에서 출생하여 역대의 명필들을 연구하고 그중에서 장점만을 추려 모아서 추사체를 대성한 명필일 뿐 아니라 그림에 있어서도 조예가 깊어 죽난과 산수를 그렸는데 사실(寫實)보다는 품격을 위주로 하였으며, 금석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어 종래에 중 무학(無學)의 비석이라고 전해지고 있던 북한산 비봉에 있던 비석이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것을 고증 판단하기도 했다.

예산군 신암면에 위치한 추사선생 유적은 선생의 증조부이며 조선 제21대 영조 임금의 부마도위인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이 향저(鄉邸)로 현 추사고택을 건립하면서 조성되었는데 근 200년간 침묵하다가 1962년에 이르러 추사선생이 중국 청나라 사신 길에 옮겨와 심은 이곳 유적지의 백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1971년에는 신암면 용궁리의 선생종가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547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고 다시 1976년에는 추사김정희선생 고택과 유물, 그리고 화순옹주 홍문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43, 44, 45호로 지정되었으며 이어서 1980년에 추사선생 유적지 일원의 18,308평방미터가 충청남도지정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고 1984년에는 유적지내의 김정희묘와 월성위묘가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88호와 제189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어사 박문수묘

박문수 묘(朴文秀 墓)

- 지정번호 : 도 문화재자료 제261호
- 수량 : 분묘 1기
- 규모 : 높이 2.3m, 둘레 12m
- 시대 : 조선시대
- 위치 : 충남 천안시 북면 은지리 산1

어사박문수는 조선시대의 어사(御史)로 유명하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본관이 고령(高靈)으로 1691년(숙종 17)에 낳아서 1756년(영종32)에 56세로 졸(卒)하였다. 자(字)는 성보(成甫)이고 호(號)는 기은(耆隱)이다. 1723년 22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설서(設書)와 사관(史官)을 거쳐 병조정랑(兵曹正朗)이 되고 이인좌의 난(1728년)때는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고 난(亂)을 평정한 공으로 영성군(靈城君)에 봉군(封君)되었다. 1729년(영조5) 영남절도사로 있을 때 관북(關北 : 함경도지방) 지방의 수재(水災)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영남 제민창(濟民倉)에 있었던 조 3천석을 미리 관북지방으로 발송하여 10여 고을의 수재민을 미리 구했음으로 함흥의 만세교(萬歲橋) 옆에 북민비(北民碑)라는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박문수도 왕명으로 여러번 암행어사로 나가 활약하였고 많은 일화도 남기었다.

(전설) : 묘가 은석산 거의 상봉에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병천장이 내려다 보이며 박문수의 유언에 병천장의 소장이 세 번 옮기면 나의 묘를 파서 아래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현재 병천소장이 세 번 옮겼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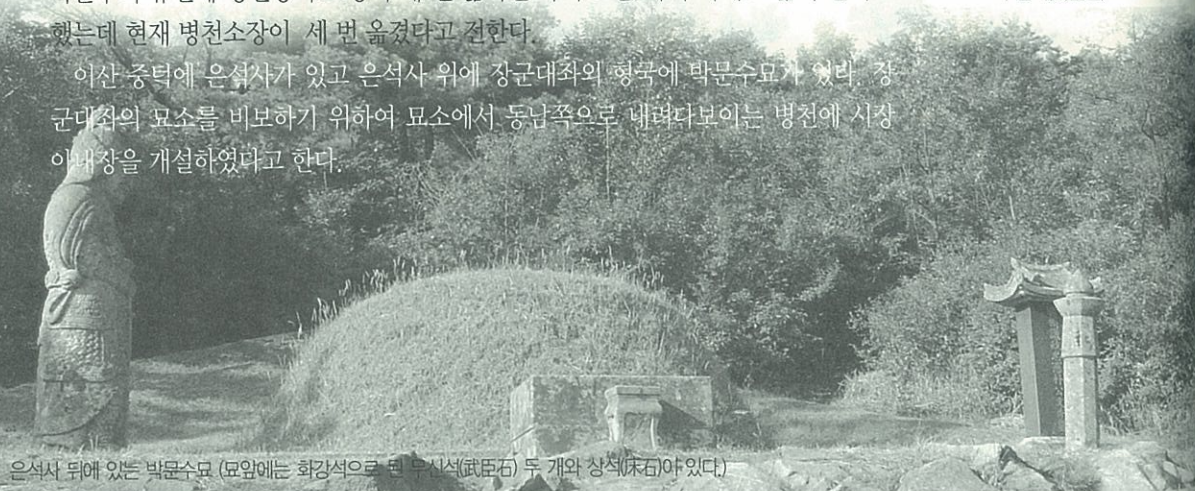
이산 중턱에 은석사가 있고 은석사 위에 장군대좌의 형목에 박문수묘가 있다. 장군대좌의 묘소를 비보하기 위하여 묘소에서 동남쪽으로 내려다보이는 병전에 시장 아래장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박문수묘비: 박문수 사후61후인 1816년(순조16년)에 세움



무신석(武臣石)



은석사 뒤에 있는 박문수묘 (묘앞에는 화강석으로 된 무신석(武臣石) 두 개와 상석(床石)이 있다)

고령박씨종중재실

고령박씨 종중재실(高靈朴氏 宗中齋室)

- 지정번호 : 도지정 문화재자료 289호
- 규모및수량 : 2동 / 안채: 팔작(八作)지붕 / 사랑채: 5칸 일자집
- 재 료 : 목조
- 시 대 : 조선시대
- 위 치 : 충남 천안시 북면 은지리44

북면 은지리 은석산 남쪽에 있다. 박문수공(朴文秀公)의 재실(齋室)로 1932년에 수축하여 옛모습을 찾을 수 없다. 안채는 팔작지붕에 목조로 7칸이며 7칸이 있고 사랑채는 5칸으로 일자 집이다. 재실내에는 박문수공의 영정과 그가 사용하던 유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특히 박문수공의 손(孫)인 박영보가 평안도 벽동군(碧潼郡)의 어사로 나갔을 때 쓴 수부정기(水府正記)와 박문수 일대기등의 많은 전적(典籍)이 보관되어 있다.



은 석 사

박문수 묘(朴文秀 墓)

· 지명(地名) : 은석사(銀石寺)
· 소재지 : 천안시 북면 은지리 1-4번지

은석사(銀石寺)

소재지 : 천안시 북면 은지리 1-4번지
(불상1구, 대지18평)

은석산(455m)에 위치한 이 사찰은 신라 문무왕 때의 고승 원효대사가 창건 하였다고 전하나 확실치 않다.

창건 당시는 큰 사찰이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차 개수하면서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작은 사찰로 변하였다.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많이 모여 시와 문장을 연마했던 사찰로 유명하다.

현재는 퇴락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여기며 중건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유서(由緒)깊은 역사(歷史)의 도시 성환(成歡)

백 승 명(白承明)
직산위례문화연구소

성환(成歡)은 충남의 최북단(最北端)으로 현재, 인구 3만 여명이 조금 넘는 소규모의 읍(邑)으로 형성된 농촌형 지역이다.

외형상, 인구 3만 여명과「세상에 널리 알려진 독특한 볼거리나 가시의 문화재 등이 보이지 않는 지방」이라는 이런 소규모의 농촌 읍지역(邑地域)을 가지고, 제목에「유서(由緒)깊은 역사(歷史)의 도시 성환(成歡)」 운운한 것을 보고 세간(世間)에 있는 무지(無知)의 혹자들은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혹자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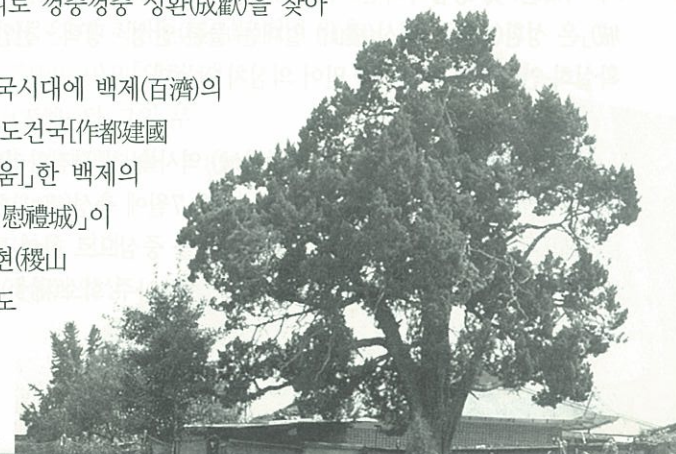
실상, 성환(成歡)의 속살 일부를 보여 주거나 자신들이 알게 되면 세상 지식의 무지(無知)함에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성환(成歡)이 행정 기구의 조직상 비록 천안시의 일부 읍(邑)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의 읍지역이지만 현대사(現代史)·근대사(近代史)·조선(朝鮮: 근세사)·고려(高麗: 중세사)·후삼국(後三國)·신라하대(新羅下代: 통일신라)·삼국시대(三國時代)에 이르기까지 그 과거사를 더듬어 보면 지금의 천안시 중심부의 시가지 지역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만큼 한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배경과 그 경중(輕重)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역사의 시간속 징검다리로 꺾충꺾충 성환(成歡)을 찾아 떠나보자.

먼저, 성환읍(成歡邑) 일대는 삼국시대에 백제(百濟)의 시조(始祖)인 온조왕(溫祚王)이「작도건국(作都建國): 도읍(都邑)을 만들고 나라를 세움」한 백제의 첫 수도(首都)인「하남 위례성(河南 慰禮城)」이 있었던 곳 이라고 전하는 옛 직산현(稷山 縣)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427호



Chung Nam Culture

현재의 성환읍(成歡邑), 도하리(都下里)와 수향리(水鄕里) 및 안궁리(安宮里)와 대홍리(大弘里) 일대의 한내지역[지금의 안성천(安城川)유역 : 성환탄약창과 주변일대포함]은 그 옛날의 역사를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한내의 강 물줄기처럼 도도히 흐르며 《삼국유사(三國遺事)》, 와《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및 《직산현지(稷山縣誌)》 등과 같은 우리 민족의 주옥(珠玉)같은 고전(古典)에 붓물을 흘리며 기물은 우리의 고대사(古代史)를 축축이 적시어 주며 길고 기나긴 수세월을 흘러 왔다.

이 백제(百濟)초기(初期)의 역사는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의 몇몇 인사와 일제 강점기(日帝強占期) 및 현대(現代)에 이르러 서울의 강동(江東)과 광주(廣州)일대, 등으로 비정(比定)되는 중구난방의 갈래성 물줄기의 지류(支流)로 갈라져 비(?)가 많고 적은 홍수량에 따라 물줄기의 본류(本流)인 한내가 충청도에서 흐르기도 하고, 어느때는 경기도에서 흐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분수령(分水嶺)에 하등 관계없는 지역들까지도 서로 한내의 본류(本流)라고 물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물은 본시 산(山)을 넘을수 없고, 커다란 강물 줄기의 지류(支流)는 많지만 그 본류(本流)가 하나라는 유수(流水)의 기본 법칙은 굳이 지리학(地理學)을 들지 않더라도 만인(萬人)이 아는 전세계 공통의 분모를 가진 사실일 것이다. 이 백제(百濟)의 첫 수도(首都)인「하남 위례성(河南慰禮城)」은 흐르는 강물처럼 누구도 막지 못하고 언제인가 직산(稷山)과 성환(成歡)의 역사속 징검다리에 첫 번째 징검다리로 우리 곁에 다가올 날이 멀지 않게 느껴진다.

단, 천안시의 「확고한 역사인식론」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돌이 준비 되었을 때 천안 역사의 시작이라는 첫 징검다리인 역사시대의 백제(百濟) 초도(初都)라고 전하는「하남 위례성(河南慰禮城)」은 성환(成歡)·직산(稷山) 일대는 물론 안성·평택·천안역사의 첫 징검다리로 세상에 널리 확실히 인식하게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삼국 초기(初期)의 성환지역(成歡地域) 역사속 첫 징검다리인 하남위례성을 밟고, 백제(百濟)의 시조(始祖)인 온조왕(溫祚王)이 그의 36년, 7월에 축성(築城)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삼국사기(三國史記)》의「湯井城」도 이 성환(成歡)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발판을 삼고, 교통로를 삼아 현, 아산(牙山)일대에 축성한 사실을 아는 천안사람은 아주 희소(稀少)하다.

그와 더불어 역사학계(歷史學界)에서조차도 고(故) 김재봉 선생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가 전무(全無)하다시피 하였다.

물론, 충남의 모(某)교수가「湯井城 과 大豆山城」이라는 논문을 발표 하기는 했으나, 이 논문에서도 현 성환일대(成歡一帶)의 교통로상의 중요점은 거의 시사(示唆)되지 못했다.

사실, 성환일대는 경기도와 충남, 충북이 만나는 현 안성천유역(安城川流域)의 교통로상 열십자(十)와 같은 접점(接點)의 중앙부에 해당하여, 북(北)으로는 비옥한 농토를 끼고 경기도와 북쪽으로 뻗을수 있으며, 남(南)으로는 전라도와 경상도로 갈라져 갈수 있으며, 동(東)으로는 충북의 내륙, 중원(中原)과 강원도로 갈수 있고, 서(西)로는 지척지(咫尺之地)에「서해(西海)의 요항(要港)」이라는 아산만(牙山灣)을 끼고 있는 사통오달(四通五達)교통로 수레의 축(車軸)을 꽂아놓은 천험지(天險之地)에 요충지(要衝之地)인 까닭에 일찍이 백제(百濟)의 시조인 온조왕이「천험지(天險之地) 난득지세(天險之地 難得之勢)」인 이곳 직산(稷山)과 성환(成歡)·안성(安城)·평택(平澤)일원의 한내[지금의 안성천(安城川)의 옛 고명(古名)유역(流域)에 백제의 첫 수도(首都)인「하남 위례성(河南慰禮城)」을 세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백제(百濟)가 성장 하였음을,《삼국유사(三國遺事)》와,《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고려사(高麗史)》,《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및 《직산현지(稷山縣誌)》 등의 제문헌(諸文獻)에 일괄나위 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의 향토사가와 지자체의 헛갈리는 주장에 백제(百濟)의 첫 역사인 하남 위례성(河南慰禮城)과 충남의 역사시대(歷史時代)첫창과 우리의 고대사(古代史)는 오리무중(五里霧中)에서 헤메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이다.

삼국시대의 성환(成歡)지역의 역사는 삼국말기에서 소위 통일신라 초기에 진입하려는 서기 635~675년 시기에 2명의 걸출한 인물을 옛 직산현(稷山縣)에서 배출 하였는데, 그들이 바로《삼국사기(三國史記)》의「열전 제 7」, 「권 제47」편에 실려 있는 「소나(素那)와 그의 부친(父親)으로 등장하는 심나(沈那)의 전기(傳記)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그들은 신라에서 변방을 지키던 백성군(白城郡 : 지금의 안성



Chung Nam Culture



국보 7호(봉선홍경사사적갈비)

시일원] 사산현(蛇山縣: 지금의 천안시 직산읍 주변 일원) 사람으로 신라비장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성환은, 직산(稷山)과 안성(安城)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그 역사지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후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성환은, 현재의 성환읍 대홍리(大弘里)에 고려의 제8대 현종 8년에서 13년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대 공사를 벌여 만든 200여칸(間)의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와 80칸(間)의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을 사설하여 길가는 행려객(行旅客)과 많은 사람들 및 우마(牛馬)에게 까지 편의를 제공한 내력을 현종 18년인 서기 1026년에 세운 「봉선 홍경사 사적갈기(奉先弘慶寺事蹟碣記)」에 자세히 전한다.

현재, 이 비석은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碣碑)」로 명명되어 있고, 옛터인, 성환읍 대홍리(大弘里)마을의 앞을 지나는 성환-평택간, 국도①호선 우측 노변의 논가에 옛적 창건사연을 적은 비문을 이고 말없이 980년 가까운 세월을 지켜보고 서 있다.

이렇게 거대한 사원(寺院)이었던 옛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가 지금은 너무도 초라한 국보 제7호와 파손된 석탑 잔부재와 깨어진 청자와 외편 등만 남은 사연은, 바로 고려의 제19대 명종 7년인 서기 1177년에 공주의 명학소(鳴鶴所)에서 봉기했던 망이·망소이(亡伊·亡所伊)형제 등에 의해 소실(燒失)되어 현재의 석탑잔부와 국보제7호만 남게 된 것이다.

이 비석에는 이미 성환(成歡)의 지명(地名)이 등장 할 뿐만 아니라 역(驛)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역명(驛名) 또한 「성환역(成歡驛)」이었음을 국보 제7호의 비문(碑文)에 상세히 나타나있고, 서기 1026년에도 이곳 성환(成歡)일대는 교통로의 중심이자 갈래길이고, 요충지(要衝地)이었음을 이 비문은 전하고 있다.

성환(成歡)이 삼국시대 이래로, 신라하대[新羅下代: 소위,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통의 중심지이자 갈래길이며, 요충지(要衝地)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조선건국 200년만에 터진, 7년전쟁,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다. 왜(倭)가 다시 침입한 정유재란(丁酉再亂)때에, 임진왜란, 육전(陸戰) 3대첩중의 하나인

「소사하대첩(素沙河大捷)」이 바로 성환(成歡)의 북쪽들판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명군(明軍)과 조선군(朝鮮軍)이 합세하여 왜(倭)를 크게 무찌른 곳 또한 성환지역(成歡地域)이었다.

이 임진왜란 육전 3대첩중의 하나인 직산, 성환일대의 「소사하대첩」은 지역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옛 역사기록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그 사연을 전하고 있다.

그후, 조선말기에와서 외세와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봉기한 「동학농민 봉기」가 있었고 그후 조선에서의 이권우위 다툼을 벌이던 일본과 청나라가 서기 1894년 7월 23일에서 -27일까지 싸움을 한 「청·일전쟁(淸日戰爭)」의 시발지(始發地) 역시 성환(成歡)이었다.

이 청·일 전쟁을 계기로 하여 일본(日本)은 노골적으로 대륙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강행하여 1905년에는 러·일전쟁(露·日戰爭)을 일으키고, 1910년에는 조선(朝鮮: 대한제국)을 강제로 무력 함방하여 어두운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를 맞이하는 계기가 된 곳도 역시 성환일대(成歡一帶)이었다. 성환 역사의 징검다리를 경중경중 뛰어 밟아보니, 성환은, 삼국시대 백제의 시조(始祖)인 온조왕(溫祚王)이 개국(開國)한 하남 위례성(河南 慰禮城)의 밝은 역사와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의 창건(創建)과 같은 빛나는 문화유산의 창조와, 근대(近代)의 청·일전쟁(淸·日戰爭)과 같은 암울의 어두운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주무대에 우뚝섰었던 유서(由緒)깊은 역사의 고장임을 우리모두는 잊지말고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찾고 연구하여, 후손에게 길이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



2005년 충남의 향토축제



2005 추사문화제 제16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희호대회



추사는 본래 천품으로 타고난 예술적 천재성을 발휘하여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창안하여 어느 누구나 추종할 수 없는 찬연한 서풍을 이룩하였다. 이는 철저한 고증학적인 바탕위에 이루어졌고 엄연히 국제성을 띠는 서체로서 종래 성리학을 근거로 한 동국진체의 취향과는 전혀다른 서체로서 구양순체에서 출발하여 안진경체도 소화하고 파천황, 완원, 소동파, 한예, 종정고 등을 섭렵하여 파천황의 종합으로 전, 예, 해, 행, 초의 5체를 고루 합친 서체라할 수 있다.

이것은 서예계의 결정적인 신평을 불러 넣은 결과로 우리나라 서예사상 가장 뚜렷한 위치를 마련하였다. 추사체의 서예는 한낱 독창성에만 머무른 정도의 예술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과 영원성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예산이 낳은 불세출의 거장인 추사김정희선생을 추모하고 선생의 서예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후학들이 만나는 서예의 전당을 마련하였다.

첫째날 10월 7일(금) 예산문화원/예산문예회관

- 예산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식 11:00 ~ 문화원 공연장
- 백수인간만세잔치 12:00 ~ 문화원 야외공연장
- 문화학교 작품전시회 14:00 ~ 문예회관 2층 전시장(서예, 한국화, 문인화)
- 연극공연-극단「예춘」 ①15:00 ~ ②18:00 ~
고통없이 어찌 아름다움이 피어나리<추사김정희선생 일대기>
- 제1회 예산사랑가족사진공모작 전시회
· 전 시 : 2005년 10월 7일(금) ~ 10월 9일(일)
· 전시장소 : 예산문화원, 추사고택, 예산공설운동장



둘째날 10월 8일(토) 추사고택/예산문화원/중앙초등학교 꿈둥지관

- 전국청소년회화대회 10:00 ~ 추사고택특설과장
- 추사추모제 10:00 ~ 추사선생묘
- 학생미술실기대회<주관 :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11:00 ~ 15:00 추사고택
- 학생글짓기대회<주관 : 한국문인협회 예산지부> 11:00 ~ 15:00 화순옹주 홍문 앞
- 학생풍물겨루기대회 13:00 ~ 예당호조각공원 야외공연장
- 추사학술강연회<최원수선생 초청> 16:00 ~ 17:30 문화원 공연장
- 추사문화제 전야제 19:00 ~ 23:00 예산문화원 광장
1부 : 축하공연 및 예산군 & 예산문화원 소개영상
2부 : 추사가요제 및 초대작가들의 향연
유원숙에어로빅 축하공연
이광수 민족음악원 특별공연
초대가수 공연



셋째날 2005년 10월 9일(일) 예산공설운동장 특설과장 일원

- 제16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회화대회 9:00 ~ 17:30 예산공설운동장 특설과장

* 일정표

부터	시간계획		행사계획	비 고
	까지	소요(분)		
09:00	10:00	60	접수 및 번호표 확정 배석	
10:00	10:30	30	개회식	대회장 대회사 군수 환영사, 도지사 축사 심사위원장-심사규정발표
10:30	12:30	120	휘 호	명제게시, 화선지배부
12:30			중 식	
13:00	16:30	210	심 사	심사위원 심사
16:30	17:00	30	발 표	대회장
17:00	17:30	30	시 상	

- 추사회화대회 초대작가 휘호축제 10:00 ~ 예산공설운동장
휘호
각 부문별 2명 추천하여 심사위원 선정
초대작가상 선정
참여작가 기념품 증정



- 추사서화 가족탁본체험 14:00 ~ 공설운동장
- 추사체서각찍기체험 13:00 ~ 예산공설운동장
주관 : 황충길 명장
내용 : 휴판에 추사체를 찍어본다.

- 어가행렬 16:00 문화원-시내-공설운동장 특설과장
임금님으로 분장한분께서 휘호대회를 격려하고 시상하기 위해서 특설과장에 오신다.
- 오일장전통음식잔치 10:00 ~ 공설운동장 특설과장 일원
다양한 먹거리로 눈이 즐거운 잔치! 눈이 즐거운 잔치

- 제16회 추사회화대회 수상작 순회전
대전전시 11월 5일 ~ 11월 9일 / 대전평송청소년수련원 전시실
서울전시 초대작가전 11월 16일 ~ 19일
수상작전시 11월 20일 ~ 22일
인사동 하나로갤러리
예산전시 11월 30일 ~ 12월 4일 / 예산문화원 전시실



제17회 남이흥장군 문화제



충장공의 호국정신 기리는 제17회 *남이흥장군 문화제를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호지면 도이리 충장사에서 개최했다.

전야제 행사로 열린 남이흥 장군 행렬 재현 시가 퍼레이드로부터 시작된 행사는 이튿날 대호지면 도이리 충장사 일원에서 'KBS 국악대상 대통령상 수상자 김중자 무용단'의 국악한마당, 택견 등 전통무예 재현, 탄신축하 군악연주회, 도지사배 궁도대회, 교육장기배 씨름왕선발대회, 학생백일장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문화제는 남이흥장군 문화제와 더불어 교육장기 초·중학교 씨름대회와 제1회 민요경창대회가 함께 열려 참가자들이 맘껏 실력을 겨뤘다. 또한 도내 공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제12회 충청남도지사배 궁도대회도 열렸다.

의춘부원군 충장공 남이흥 장군은 선조 9년 1576년 7월27일(양력 9월 10일)탄생,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장군은 1624년 작은군사로 대병인(大兵人) 이괄의 반란군을 평정하였고 1627년 인조 5년 부원수겸 평안병사로 계실때, 청국(후금)의 3만6천의 대군이 침공함에 정묘호란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안주성 3천여명의 군사로 혼신을 다하여 독전 분투했으나 중과 부적으로 마침내 성안으로 많은 적을 유인하여 화약고에 점화하여 많은 적과 함께 자폭으로 최후를 마쳤다.



제3회 부여서동·연꽃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주최: 부여군, 주관: 부여문화원, 부여관광발전진흥회)는 백제 제30대 무왕인 서동의 탄생설화가 깃든 궁남지(사적 제135호)가 있는 서동공원을 전국 제일의 사랑과 연꽃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2003년 7월 처음 시작된 축제이다. 그러나 3년여의 짧은 연륜에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전국 최대 최고의 연꽃축제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 제3회 부여 서동·연꽃축제는 '궁남지에 핀 연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꽃축제는 서동사랑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행사와 경연대회, 축하공연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47개 종목의 행사가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풍요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행사 첫날인 7월 21일 궁남지 특설무대에서 1만여 명의 관광객과 군민들이 함께하는 개막식으로 시작되어 관현악 축하공연과 세계 곳곳의 다양한 연과 수련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축하공원이 펼쳐졌다.

행사 이튿날인 7월 22일에는 전통 품바 초청공연과 익살스런 재담과 40여종의 기예를 선보이는 전통줄타기 공연, 태동 - 다시 하늘이 되어 창작무용, 타악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특히, 7월 23일에는 전국의 여인이나 부부가 듀엣으로 사랑을 소재로 한 노래를 불러 최고의 팀을 선발하는 궁남지 커플 노래자랑이 진행되었고, 또한 국경을 초월한 서동과 선화공주의 진정한 사랑이야기를 한국 춤을 통해 표현하는 서동의 사랑법 공연이 정은혜(충남대 무용과 교수) 무용단에 의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7월 24일에는 연꽃 전국사진 촬영대회가 개최돼 전국의 사진작가 1천여 명이 궁남지의 아름다운 연꽃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특히 무왕 탄생설화가 있는 궁남지에서 무왕의 행차 재현행사가 마련돼 백제시대 왕가마와 장비를 활용한 볼거리가 연출되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7월 25일에는 관내 초·중학생 700여명이 참가해 공남지의 연꽃을 그리는 사생대회가 열렸으며, 서동요와 시낭송, 전래동화를 선보이는 서동요구연동화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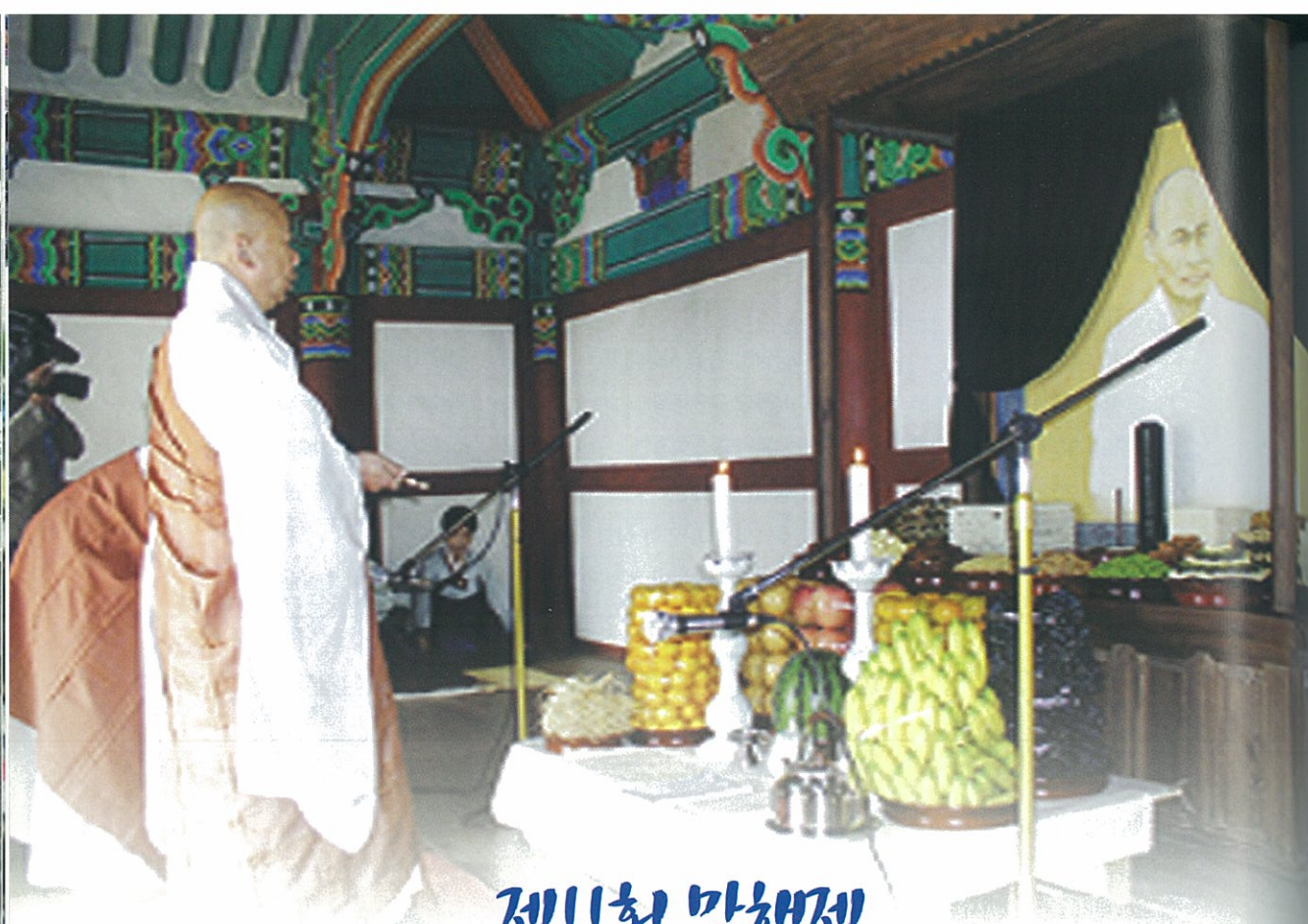
축제의 마지막 날인 7월 26일에는 팽과리와 징, 장구 등 전통 타악기가 어우러져 새롭게 창출된 김덕수 사물놀이 초청공연과 서동요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를 재현하는 포롱정 재회극이 펼쳐졌다.

이렇듯 올해 연꽃축제는 지난해와는 달리 연꽃과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멋과 맛, 흥이 절로 나는 축제를 개최했다는 호평을 들었다. 이와 함께 10만여 평에 달하는 서동공원 주변의 다양한 연꽃과 야생화, 야생초로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장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집되어 전국 제일의 사랑과 연꽃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6일 동안 펼쳐진 자세한 행사일정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별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터	까지	소요시간			
7. 21 (목)	19 : 30 ~ 20 : 00		30	관현악연주(식전축하공연)	공남지특설무대	일렉쿠키
	20 : 00 ~ 20 : 25		25	개 막 행 사	"	문화관광과
	20 : 25 ~ 20 : 30		5	시 낭 송	"	한국시낭송협회
	20 : 30 ~ 20 : 40		10	세계의 아름다운 연 감상(1)	"	공무원로원
	20 : 40 ~ 22 : 00		80	부여군 충남국악단 초청공연	"	부여군 충남국악단
7. 22 (금)	22 : 00 ~ 22 : 10		10	사랑의 불꽃 축제	공남지행사장	동일화공
	14 : 30 ~ 15 : 30		60	전통품바 초청공연	공남지특설무대	팔도예술단
	15 : 30 ~ 16 : 30		60	전통 줄타기 공연	공남지행사장	줄타기보존협회
	19 : 30 ~ 20 : 30		60	태동·다시하늘이되어(창작무용)	공남지특설무대	비단내무용단
	20 : 30 ~ 21 : 30		60	타악 퍼포먼스	"	스틱킹
7. 23 (토)	21 : 30 ~ 23 : 00		90	추억의 심야 영화 상영	"	부여군관광발전진흥회
	14 : 00 ~ 14 : 30		30	가야금 합주	"	백제중학교
	15 : 00 ~ 16 : 30		90	공남지 커플 노래자랑	"	부여문화원
	19 : 30 ~ 21 : 00		90	서동의 사랑법 II(창작무용)	"	정은혜 무용단
	21 : 00 ~ 22 : 00		60	마당패 뜯쇠 사물놀이	"	마당패 뜯쇠
7. 24 (일)	22 : 00 ~ 23 : 30		90	추억의 심야 영화 상영	"	부여군관광발전진흥회
	10 : 00 ~ 17 : 00		7시간	부여 공남지 연꽃 전국 사진촬영대회	공남지행사장	한국사진작가협회부여지부
	15 : 00 ~ 15 : 30		30	어린이 사물놀이	공남지특설무대	내산초교
	16 : 30 ~ 17 : 30		60	공남지 무왕행차 및 축하공연	공남지행사장	부여군관광발전진흥회
	19 : 30 ~ 20 : 30		60	부여군 충남국악단 초청공연(2)	공남지특설무대	부여군 충남국악단
	20 : 30 ~ 22 : 00		90	청소년 가요 음악회	"	아현산업정보고
	22 : 00 ~ 23 : 30		90	추억의 심야 영화 상영	"	부여군관광발전진흥회

일별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터	까지	소요시간			
7. 25 (월)	10 : 00 ~ 12 : 00		120	공남지 연꽃 사생대회	공남지행사장	부여문화원
	15 : 30 ~ 16 : 30		60	서동요 구연동화	공남지특설무대	동화연구자료관추진회
	19 : 30 ~ 20 : 30		60	서동연극 초청공연	"	부여고연극반산기울
	20 : 30 ~ 22 : 00		90	청소년 가요댄스 페스티벌	"	부여군관광발전진흥회
	22 : 00 ~ 23 : 30		90	추억의 심야 영화 상영	"	"
7. 26 (화)	15 : 00 ~ 16 : 00		60	김덕수 사물놀이 초청공연	"	한울림예술단
	19 : 40 ~ 20 : 00		20	세계의 아름다운 연 감상(2)	"	공무원로원
	20 : 00 ~ 21 : 00		60	서동 선화공주 포롱정 재회(연극)	포롱정	
	21 : 00 ~ 21 : 30		30	폐 막 축 포	"	동일화공

일별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부터	까지	소요시간				
7. 22 ~ 7. 26	10:00	17:00	5일간	상 설 행 사	연꽃 부채 만들기	공남지행사장	부여문화원
					사랑의 죽부인만들기	"	"
					사랑의 연차 마시기	"	부여군새마을부녀회
					가족사랑 곤충체험	"	한국곤충
					연화문 목걸이 만들기	"	선도에
					연꽃 페이스 페인팅	"	부여문화원
					종이연꽃 만들기	"	"
					공남지 출토 목간만들기	"	"
					연꽃문양 탁본체험	"	부여군관광발전진흥회
					연씨공예체험	"	연실공방
					서동·선화공주 연날리기	"	부여문화원
					커플사랑의 연약판 만들기	"	부여군관광발전진흥회
7. 22~7. 25	10:00	17:00	4일간		사랑의 연꽃 풍선 퍼포먼스	"	부여관광발전진흥회
7. 21 ~ 7. 26	10 : 00	18 : 00	6일간	전 시 회	연꽃·수생식물 기획전	"	그린화원
					공남지 연꽃사생대회 작품전	"	부여문화원
					공남지 연꽃 사진전	"	한국사진작가협회부여지부
					공남지 문화유적 사진전	"	국립문화재연구소부여문화원
7. 21 ~ 7. 26	10 : 00	18 : 00	6일간	특 판 코 너	농 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공남지행사장	사비장터
					수련·수생식물 판매장 운영	"	그린화원
					연 테마 식품관 운영	"	다원식품
					충청남도 공예품전시 판매장운영	"	충남공예협동조합
					관광상품 홍보 판매장 운영	"	문화관광과
					향토 및 연 음식 판매점 운영	"	부여군관광발전진흥회



제11회 만해제

만해제의 목적

만해제를 통하여 한용운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받고, 청소년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주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 ▷일 시 : 2005년 10월 4일(월) - 5일(화)
- ▷장 소 : 만해생가지, 홍성군 일원
- ▷주 관 : 홍성문화원
- ▷후 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보훈지청

제 11회 만해제가 지난 4-5일 본행사와 6-9일 부대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홍성이 낳은 위대한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과 사상을 추모하고자 열린 만해제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결성면 성곡리 생가지에서 열린 기념식 및 추모다례를 시작으로 9일까지 추모공연, 걷기대회, 백일장 및 사생·휘호대회, 문학의 밤, 시조경창대회, 청소년시인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펼쳤다. 홍성군 불교사암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다례는 만해 전문가로 알려진 전보삼 교수의 '만해 바로알기' 강연과 헌다, 헌화분양 순으로 진행됐으며 만해유물사진전이 함께 열렸다. 저녁 7시 30분에 열린 만해추모 M.net스페셜공연은 군 내외 관람객 1만여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치러졌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영상물 상영과 최윤희 군립무용단장의 승무,



하늘빛선무용단의 선무등이 진행되었다.

5일에는 오후 3시부터 홍주의사총에서 군청 후정까지 만해추모 한마음걷기대회가 열렸다. 홍성라이온스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장곡 출신의 탤런트 윤용현이 초청돼 행사에 앞서 팬사인회가 열렸으며 어린이들의 우유 빨리마시기 게임도 펼쳐졌다.

주최측은 걷기대회에 참가한 500여명의 군민들에게 흰 티셔츠와 풍선을 나눠줬으며 군청후정에 도착해서는 탤런트 윤용현의 사회로 푸짐한 경품추첨행

사가 진행됐다.

이어 6시부터는 홍성JC 주관으로 열린 만해추모 백일장 및 사생·휘호대회의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저녁 7시부터는 문인협회 홍성지부 주관으로 '만해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타 지역 문인들이 대거 참여해 음악과 공연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낭만적 분위기가 연출됐다.

청운대 학생들의 세레모니 타악연주와 문인들의 시낭송, 가곡공연 등이 작은 무대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서 쌀쌀한 가을밤을 훈훈한 빛깔로 채색했다.

한편 만해제의 부대행사로 지난 6~7일 2일간 충의열사 추모대상 제19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가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전국 시조동호인 50여명을 비롯해 학생부 20여명, 일반부 50여명 등이 출전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회는 학생부, 을부, 갑부, 특부, 명인부, 국창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합을 벌였다.

특히 우리고장 출신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한용운 선사, 김좌진 장군 등 열사의 추모행사를 병행해 뜻 깊고 정중한 행사였으며 옛 선조들의 풍류와 우리 민족의 얼과 전통을 이어가는 자리였다.



2005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



2005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는 조선세종3년 (1421년)에 축성된 이 성이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도 병마절도사가 성으로 부임해 충청도 지역 군사방어를 담당했던 병영성이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독창성과 정체성을 살린 축제이다.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는 서산시청 앞을 출발해 해미읍성까지 약 13km 거리를 행군함으로써 조선시대 군사들의 인내심과 강한 정신력을 느낄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막을 열었다.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선시대 군사훈련 과정을 재현하고 충청병마절도사 출정식과 무림고수 선발대회, 관광객들이 조선시대의 전통 민속과 병영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조선시대 운동회 등 다른 축제와는 색다른 축제로 개최되었다.

게다가 이번 축제기간에는 하루 한차례씩 해미읍성과 천주교 순교탑까지 약1km 구간에 순교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성지순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 읍성 밖에서 축제기간 내내 펼쳐지는 조선시대 저잣거리 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였다.

서산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는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관광상품화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큰 공헌을 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는 앞으로 서산의 대표적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프로그램

해미읍성내 (병영성 축제)

- 충청병마절도사 출정식 : 세조3년에 지방 방위체제가 진관체제로 전환되면서 서해안 지방의 방어체계를 관할했던 병마절도사가 해미읍성으로 부임하는 광경재현
- 군사훈련 : 새로 부임한 지휘관인 충청병마절도사영 앞에서 지휘관들이 부대를 좌우군으로 임시 편성하여 전투 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지휘관들의 용병술과 장병들의 숙련도를 검열하는 행사
- 송사재현 : 조선시대 해미읍성을 관할한 해미 현감의 송사를 마당극 형식으로 재현
- 조선시대 운동회 : 축국, 성 쌓기, 민속5종경기 (제기차기, 보석쇠, 줄다리기, 팽이치기, 대형윷놀이) 물동이 나르기, 짐신신고 달리기
- 조선시대 무림고수 선발대회 : 태극권, 택견, 공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무술 시합을 통해 무림 고수를 선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무예시범을 선보여 박진감 넘치는 행사로 구성
- 사생대회
- 백일장 대회
- 조선시대 병영물품 전시 : 조선시대 군사 무기류를 종류별, 기능별로 전시하고 사전교육된 진행 요원을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안내 설명 실시
- 만화로보는 해미읍성 :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대별로 만화로 재현하여 전시함
- 호서좌영 출정식 및 신명 한마당
- 조선시대 병사의 하루 : 조선시대 진영을 그대로 재현하여 '군령'을 입구에 붙여두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군사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

해미읍성밖 (저잣거리 축제)

- 지점놀이
- 천주교 추모행렬 : 촛불로 장식된 십자가를 선두하여 추모행렬들이 촛불을들며 뒤따라 찬양을 부르면서 이동함.
- 역사패션쇼 : 조선시대 전통의상을 재현한 패션쇼
- 추억의 영화제 : 해미읍성 축제의 야간행사로 가족간에 함께 볼 수 있는 추억의 영화제 진행
- 해미읍성 역사 O. X 퀴즈
- 서산 음식 경진대회 : 서산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경진대회
- 난장한마당
- 조선시대 해미장터 재현 : 500여년의 역사를 넘어 보여주는 저잣거리를 재현
- 박첨지 놀이
- 관광객 장기 자랑
- 사물놀이
- 성곽레이저 쇼
- 불꽃놀이



2005 논산딸기축제



축제의 유래 및 특성

매년 4월에는 논산이 자랑하는 특산물 청정딸기를 알리고,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딸기축제가 열리고 있다. 논산딸기축제는 1997년 시작되어 2005년 제7회를 맞고 있다. 논산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각종 체육행사와 농악, 노래잔치 등 지역 문화행사인 놀이 향토제를 더욱 발전시킨 행사로 시작하여 2001년부터 논산공설운동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명실공히 전국 제일가는 딸기축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딸기의 홍보 및 판매, 맛자랑, 문화행사가 접목된 논산딸기축제는 2일간에 걸쳐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2004년에는 3일간 치를 계획이었으나 논산지역에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딸기농가의 피해가 심하여 축제가 열리지 못하였다.

2005년에는 논산딸기축제가 논산천 둔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째날은 풍물공연과 음악회, 불꽃쇼가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향토가수들과 인기가수 장윤정의 축하 공연도 있었다.

둘째날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맞이하여 수만 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축제를 즐겼다. 공연감상과 볼거리, 먹거리, 다양한 체험행사 등으로 어느 축제보다 알차고 풍성하였다. 특히 미꾸라지 잡기, 오리와 잉어 방사, 장수풍뎅이 체험, 딸기 모 심어 가기 등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딸기를 주제로 한 행사인 만큼 딸기 수확 체험, 딸기 케익 만들어가기, 딸기캐릭터 페인팅 등은 가족단위 축제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또한<딸기&꽃랜드 전시관>은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꽃과 새들의 조화가 아주 돋보이는 장이 되었다.



축제의 마지막날은 국악대공연과 불꽃쇼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2005딸기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 38년의 재배 역사와 함께 전국 최대의 생산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맛과 향이 우수한 논산딸기를 널리 알리는 축제였지만, 무엇보다 딸기 축제를 통해 논산시민이 화합하고 자긍심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딸기축제추진위원회는 2006년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더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특성

충청남도 중남부에 위치하여 지형상 북동부는 산악지대로서 계룡산(840m), 대둔산(878m)과 접하고 있으며 남·서부는 계룡산과 대둔산에서 발원하는 논산천이 금강 본류에 유입되면서 주변에 넓은 논산평야를 형성,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예학의 태두 사계 김장생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한 곳이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고 개태사를 세우기도 했던 곳이다. 또한 계백장군이 5천결사대를 이끌고 5만 군대의 신라군과 백제 최후의 결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 **유적 및 지역명소** : 관촉사, 계백장군묘소, 탑정저수지, 대둔산, 노성산성, 옥녀봉, 쌍계사, 개태사 - 논산8경
- **전승설화** : 부적면 부인리 부인당 설화, 관촉사 미륵불 전설 등
- **지역특산물** : 딸기, 양촌곶감, 강경젓갈, 황산벌특미, 연산대추 등

축제행사종목(주요행사)

- **공식행사** - 대회식, 딸기불꽃쇼, 딸기음악회, 딸기퍼레이드, 딸기캐릭터 포퍼먼스, 박용래 문학상 시상식 및 시낭송회, 청소년축제, 특공무술 시범공연, 국선도 시범공연, 풍물공연, 국악공연 등
- **체험행사** - 딸기캐릭터와 함께 사진찍기, 딸기떡메치기, 딸기캐릭터 페인팅, 딸기잼 딸기주 만들어가기, 딸기화분 만들기, 딸기밭 걷기대회, 사랑의 딸기케익 만들어가기, 딸기 호떡·화전·허브음식 만들기, 생태체험(장수풍뎅이, 표고 버섯, 올챙이, 미꾸라지, 오리 및 비단잉어 방사, 봄나물 채취), 딸기 냉면·보리밥·딸기고추장 체험, 놀피가훈·명언 써주기 등
- **홍보행사** - 청정딸기 수확체험, 부모님께 효도딸기 보내기, 무료 디카사진 인화,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판매 특별전, 딸기음식판매, 딸기의 영양적 가치 홍보 등
- **경연대회** - 인터넷 디카·폰카 콘테스트, 논산딸기축제기념 궁도대회 등
- **전시행사** - 딸기 친환경재배 전시관, 브랜드 딸기 전시, 논산딸기 홍보관, 목공예전시 판매(장승, 솟대, 딸기인형)

▶ **해당 담당관청 전화번호** (041) 733 - 0856



아우내문화원장 이·취임식



동부 6개 읍면의 대표적 문화단체인 아우내문화원의 신입 원장으로 우용제(69) 풍산공원 회장이 취임했다. 신임 우 원장은 "향토문화의 길잡이로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아우내문화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조들의 문화 등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우 원장은 지난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천안군 및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재단법인 풍산공원묘원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3월 29일 오전 11시 아우내문화원 강당에서 열린 문화원장 이·취임식에는 양승조 국회의원과 권영학 천안부시장, 이정원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등 지역인사 및 주민, 충남지역 각 문화원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전임 조성민 원장(73)은 이임사에서 "서운한 반면 무거운 짐을 덜게 됐다"는 호기분함도 교차한다"며 "신임 원장에게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전 원장은 지난 85년 5월 아우내문화원장에 취임, 거북놀이를 재현하고 아우내 단오축제, 줄다리기대회 개최 등에 공이 컸다.

천안시장과 충남지역 문화원연합회, 병천지역 자생단체 등에서는 이날 이임하는 조성민 전 원장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금산문화원장 이·취임식



금산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5월 31일 금산 다락원 생명의 집 소공연장에서 박응진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과 박동철 금산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200여명의 내외귀빈과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신임 김호택원장(49)은 "금산문화원의 모든 가족들이 금산문화를 즐기고 서로 도우며 자신의 발전을 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금산문화원"이라는 신념을 갖고, "축제에 강한 금산의 전통을 잇고 또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에서 금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켜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금산문화원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문화적 환경을 확산한다는 것은 농촌의 생존전략일 수도 있다"며 "금산문화원의 지원 하에 마을단위의 독특한 놀이문화를 개발, 이를 연계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장소판촉을 도모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신임 김호택원장은 『연세소아과의원』 원장과 『삼남제약(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금산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 『금산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금산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여 왔고, 앞으로 금산문화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문화원 제2도약 '힘찬 첫발'

25억 들인 새청사 준공식 갖고 역재방축시대 개막



홍성문화원 신축준공 및 문화원장 이·취임식이 6월 15일 기관단체장 및 문화예술인,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청사 1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홍성읍 고암리 689-4번지 역재방축 옆에 마련된 새청사는 지난 2002년 말부터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앞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에서는 농협 주부대학 한소리품물패의 지신밟기와 풍물공연이 열려 문화원 역재방축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테이프 커팅과 징과 보고, 문화원 신축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증정에 이어 지난 8년간 문화원장을 역임한 이하임 이임원장과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전용택 신임 문화원장의 이·취임식이 열렸다. 제15대 홍성문화원장을 맡은 전용택씨는 한국케이블TV 모두방송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2008년 12월까지 4년간 문화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하임 전임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8년은 보람도 컸고 고통도 많았다. 하지만 문화원과 함께 한 세월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청사에서 다시 시작하는 홍성문화원이 지역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용택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문화원이 명실상부한 지역의 문화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유서 깊은 홍성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원식에 이어 2부행사로 클래식 음악회가 열려 홍성문화원의 새출발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천안문화원, 시민문화센터로 도약

7월 8일, 개원 51주년 기념식, 문화생활운동 전개 밝혀



지난해 개원 반세기를 맞은 천안문화원(원장 권연옥)이 7월 8일 개원 51주년 기념식을 갖고 시민문화센터로 역할을 다짐했다.

7월 8일 오후 3시 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성무용 시장, 이정원 시의회의장, 안익진 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인사, 주민 등 3백 여명이 참석해 문화원 개원 51주년을 축하하고 문화원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권연옥 문화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문화원은 소극적

공통체의식에서 탈피해 향토문화의식 폭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나온 반세기에 안주하지 않고 활기찬 문화생활운동을 전개 또한번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난 1954년 7월10일 문을 연 천안문화원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 정부 표창을 받는 등 그 동안 전국 2백20개 문화원의 모델로 사업적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문화활동의 촉매역할을 감당해 갈 동호인 육성을 위해 문화사랑문화가족, 여성합창단, 한마음실내악단, 고전문화연구회, 꽃꽃이연구회, 기타반, 수채화반, 여류시동인회 등 14개 부설기관을 운영, 시민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내고 있다. 한편 천안문화원은 개원기념 특별기획으로 김상락 단국대 예술대학장의 '다시보는 우리부적' 초대전과 수채화 씨클린 '화미회'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천안문화원 발간 도서와 향토사료관 문화자료 전시회와 '문다회'의 전통차 시연도 마련하였다.



황의호 씨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대상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박응진)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에 응모한 논문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의호(52·대전문화원 이사, 대전여고 교감)씨가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운태)가 주관하는 제20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 응모, 지난 11월 14일 심사한 결과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보령시 웅천읍 일대의 보(洑) 시설과 웅천천 지역에 관한 일제시기 자료의 발굴을 통해 그 당시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리시설(水利施設)의 변천사를 치밀하고 현장감 있게 소개한 글이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지역에 대한 역사와 지형, 인문적 사항들을 고려해 보(洑) 문서를 일일이 분석한 점에서 향토자료의 분석방식의 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대상에는 상금으로 4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총10개의 상에 1,7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는 매년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으로 지역 향토사 논문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연구자의 연구의욕과 향토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국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워크숍



지난 11월 16일 ~ 17일 이틀간에 걸쳐 전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전국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워크숍'이 충북 단양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연합회 회장단, 시도지회장·이사·감사 및 시도지회 사무처장과 전국문화원 사무국장협의회 임원 그리고 시·도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70여명이 참석하였다. 16일 오후 2시부터 1, 2부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논평이 이어졌다. 이흥재 한국문화정보센터장의 사회로 1부는 "지방분권시대의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류재현 상상공장 대표(문화기획가)와 박종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선철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와 박차생 진해문화원장, 이준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은 주제발표

에 대해 논평 하였다. 제2부 주제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합회의 기능강화에 대하여 양영술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사무관과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 책임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논평은 이채연 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국장과 박영수 충북도지회장(청주문화원장), 김순곤 전남도지회 사무처장이 양영술, 김규원 발표자에 주제에 대해 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이후에는 모든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늦도록 이어졌다. 17일에는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가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 지역의 문화적 특색과 향토문화"에 대한 강연과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총평 하였다. 이어 단양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온달동굴 등 지역을 답사 한 뒤 모든 행사를 마쳤다.

충남지역에서는 박응진 도지회장과 정정희 문화원연합회 이사(당진문화원장), 전국문화원 사무국장협의회 임두순 부회장(청양문화원 사무국장), 전국문화원 사무국장협의회 김민권 충남협의회장(부여문화원 사무국장), 이준창 충남도지회 사무처장(논산문화원 사무국장), 도(道)문화예술과 이주영 주사가 참석하였다. 전국 지방문화원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한 시급함은 적절한 주제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도와 심층 있는 토론의 열기로 짐작케 하였다.

2005년도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충남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한마당 잔치 2005 충남문화예술인대회가 10월 29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심대평

도지사, 민종기 당진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각 시도 문화예술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당진군립예술단 공연, 아산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식전 공연에 이어 열린 본 행사에서는 한국예총 아산지부 정만국씨를 비롯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25명의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다.

식후공연으로는 연극인 최주봉씨의 초청강연과 주산산업고등학교 풍물단「태극풍장」공연이 이루어져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충남문화예술인들의 대회가 끝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표창자 명단

충청남도지사 표창

정만국(한국예총 아산지부)
이우규(한국예총 부여지부)
한기정(한국예총 보령지부)
서우선(한국예총 논산지부)
정성택(음악협회 충남지회)
최주봉(출향예술인/연극)
이의상(성환문화원)
이 송(홍성문화원)
류근홍(예산문화원)
임영이(조치원문화원)
윤순정(부여문화원)

전국문화원연합회 표창

편학범(당진문화원)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표창

최병숙(공주문화원)
이봉규(대전문화원)
성인제(아우내문화원)
이연숙(태안문화원)
안지현(서산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표창

임성실(한국예총 당진지부)
김기문(충청남도 문화예술관)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표창

조보경(한국예총 천안지부)
성윤제(한국예총 예산지부)
김묘규(국악협회 충남지회)
오해숙(미술협회 충남지회)
김경숙(무용협회 충남지회)
하미숙(문인협회 충남지회)

태안지역의 도교유적(道敎遺跡)

정우영 태안문화원장

머리말

도교(道敎)란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로서 신선사상(神仙思想)의 근본인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또는 복서(卜筮)와 무축(巫祝) 그리고 참위(讖緯) 등을 더하고 거기에 도가철학(道家哲學)을 가입하고 여기에 다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종교를 말한다. (1)

이를 다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설명하여 본다면 중국(中國)의 후한(後漢)말기에 장릉(張陵)의 오두미교(五斗米敎)가 도교의 원류(源流)이며 그의 자손은 용호산(龍虎山)에서 정일교(正一敎)를 개교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진(晉)나라의 갈홍(葛洪)은 포박자(抱朴子)를 지어 일파(一派)를 만들고 양(梁)나라의 도홍경(陶弘景)은 모산파(茅山派)를 형성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위(北魏)의 구겸지(寇謙之)에 이르러 이러한 오두미교는 도교(道敎)로 확립되어 국가적 종교로 발전하면서 불교(佛敎)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시초는 고구려 영류왕 7년인 624년에 당(唐)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청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로인하여 도사(道師)로 하여금 천존상(天尊像)과 도법(道法)을

가지고와 노자(老子)를 강론(講論)하게 하였다고한다.

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는 불노(佛老)의 교법을 배워 왔으며 보장왕 2년인 643년에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청으로 도사 숙손(叔孫)등 8인과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을 보내오는 등 고구려에서도 불교 이외로 도교(道敎)도 열심히 숭상(崇尚)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신라에서는 당나라와 문물교류가 성행하였으므로 도교가 상당히 유행했을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여 소개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려에서는 예종때에 송(宋)나라 휘종(徽宗)이 도사를 보내어 도법을 전하니 개성(開城)의 북쪽에 복원관(福源觀)을 세워 삼청상(三清象)을 모시고 도관(道觀,道士)을 두었으나 국가나 임금의 기축(祈祝)에 그쳤을뿐 일반 민중의 종교적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다만 성신(星辰)에 대한 신앙, 또는 부적(符籙)의 사용, 경신(庚申)을 지키는 것등에 불과 하였을 뿐이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고려의 뒤를 이어 도교의 재초(齋醮)를 행하기는 하였지만 도관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경복궁(景福宮)의 북쪽에 소격서(昭格署)를 두어

태일전(太一殿), 삼청전(三清殿), 등을 세워 놓고 때때로 치제(致齋) 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소격서의 삼청전 에서는 옥황상제(玉皇上帝), 태상노군(太上老君), 보화천존(寶華天尊)등 남자상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태일전 에서는 칠성제수(七星諸宿)등 여자상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국사대사전 상에 나타나는 기록들이다. (2)

이러한 도교는 우리의 고유한 신앙(信仰)과 습속(習俗)에 조절 되어야 했고 먼저 전래된 유교(儒敎) 및 불교(佛敎)와의 조정이 불가피 했으므로 여러모로 변모(變貌)되지 않을 수 없었다. (3)

그러면서도 도교(道敎)는 우리나라에서 유교(儒敎) 및 불교(佛敎)와 함께 유불선 삼교로 인정을 받아왔던 중요한 종교였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살펴보더라도 “상문도가 지언(嘗聞道家之言)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금소득다의(今所得多矣) 하필구다(何必求多) <우리말해석> 일찍이 道家の 말을 들으니足할줄 알면辱(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 습니다.

지금은 얻은 바가 많으니 어찌 구할 것이 더있겠습니까? “(4) 위의글은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의 아들인 근구수왕(近仇首王)이 태자로 있을 때 고구려군이 침입하여와서 태자가 이를 진격하여 크게 이기고 도망치는 敵(적)을 쫓아 수곡성(水谷城:황해도 신계군협계)의 지명) 서북에 까지 왔을때 將軍 막고해(莫古解)가 태자에게 진격을 그만하도록 타이른 말이다.

여하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道家の 말을 많이 응용(應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도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뿐만 아니라 도교의 유적(遺跡)또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안읍의 백화산(白華山)에는 태을암(太乙庵)이라는 암자(庵子)가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애삼존불상(磨崖三尊佛像) 부근의 바위에는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암각문(巖刻文)이 새겨져 있음을 볼 수도있다.

그러기 때문에 태안의 백화산에는 도교의 유적이 남아 있는 특이한 지역이기도 하다.

어느날 도교를 연구하는 스님한 분이 필자를 찾아와 말하기를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도교의 유적을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하였는데 태안의 백화산에는 태을암이나 태을동천과 같은 도교의 유적들이 남아있으니 태안에서 혹시 도교에관한 문헌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러한 질문에 필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인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태안(泰安)에서 도교에 관한 문헌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그때부터 도교에 관하여 연구하여 보기도하고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실력이 부족하고 미천한 관계로 한계에 부딪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유일하게 백화산이나 태안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교의 유적을 도외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태일전의 재초(齋醮)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제사(祭祀)로 이어졌던 경이정(景夷亭)에서의 재우제(宰牛祭)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있는

(1) 음양(陰陽)은 우주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기운(氣運) 즉 陰과陽 오행(五行)은 우주(宇宙)간의 다섯가지원리 즉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 복서(卜筮)는 길흉(吉凶)을 점치는것 무축(巫祝)은 巫堂을통하여 기도(祈禱)하는것 참위(讖緯)는 미래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의 조짐이나 예언 도가철학(道家哲學)은 중국에서 노장(老子와莊子)사상 일파의설을 따르는 학자들의 학문

(2) 國事大辭典 696page

(3) 한국도교사상연구(車柱環 著) 12 page 1978년 12월 20일 서울대학교 출판부발행

(4) 삼국사기 24(백제본기 2) 하권 29page 1983년 2월 15일 을유문화사발행



중앙대제(中央大祭) 또는 백화산 정상에 있었던 소도(蘇塗 :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소) 터 와 태일전(太一殿) 터 등은 태안(泰安)에서만이 볼 수 있는 도교의 유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란에서는 태안지역에 남아있는 도교유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면서 이 글을 쓰기전에 필자가 집필하였던 “중앙대제(中央大祭)의근원”을 비롯하여 “太乙庵”에 대한 기고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잘못 기록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참고문헌을 제공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특히 많은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는 등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신 충남역사문화원의 오석민 박사께 지면을 통하여 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린다.

Ⅲ 태안(泰安)의 유래(由來)

태안의 시작은 소도(蘇塗)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 같다.

물론 소도(蘇塗)이전의 아득한 옛날에도 신, 구(新, 舊)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등 확인할 수 없는 선사시대(先史時代)가 태안이라고하여 없었을리는 만무하지만 유사이후(有史以後)의 세대만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태안에서는 자연적으로 마한(馬韓)의 신소도국(臣蘇塗國)이라는 군장국가에 있었던

소도(蘇塗)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기 때문이다.

삼한시대(三韓時代)에 태안의 백화산(白華山)정상에는 소도라는 제사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5월의 수릿날과 10월의 상달에 제주(祭主)인 천군(天君)을 선발하고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한다.

이러한 소도는 매우 신성한 곳으로서 죄인이라도 이곳으로 도망하여 들어오면 처벌하지 않았다고하니 서양의 아실리(asilie) 또는 아실럼(asylum)과 같은것이 기도 하였다. (5)

이러한 소도의 명칭은 제단(祭壇)앞에 세우는 큰 나무인 솟대(立木)의 음역이 변경되어 솟대, 솟대, 하다가 소도로 변경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삼한시대에 소도(蘇塗)가 있어서 신소도국(臣蘇塗國)이라는 군장국가에 있었던 태안은 백제시대에 성대해현(省大兮縣)이라 부르다가 통일신라의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소태(蘇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기에 이르는데 소태(蘇泰)라는 이름은 소도(蘇塗)에서 음역이 변경된 이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태현(蘇泰縣)시절에 소태 이외로 음역이 약간씩 변경된 소주(蘇州) 또는 소성(蘇城)등으로도 불려지면서 고려조의 충열왕때까지 이어졌음을 볼수가 있는데 고려조의 충열왕 24년인 1298년에 태안군 출신의 이대순(李大順)선생이 소태(蘇泰)에서 태안(泰安)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고치게 되므로 소태는 태안으로 변경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태안(泰安)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첫자인 태(泰)자가 소태(蘇泰)에서의 태(泰)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아울러 당시의 이지역에는 세곡선들이 난행량(難行梁)앞 관장항에서 계속하여 파선하기에 이르자 지령산에 안파사(安波寺)라는 절을 짓고 항해의 안전 운항을 빌었음은 물론 난행량(難行梁)이라는 지명에서 안흥량(安興梁)이라는 지명으로 고쳤음과 아울러 마을 이름을 파도리(波濤里)라 부르기에 이르렀으니 당시의 고층을 충분히 짐작 할 만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지역의 지명들은 안흥(安興), 안면(安眠), 안파사(安波寺) 등 첫머리에 안(安)자가 많이들어가는 등 다른것 보다는 세곡선의 안전 항해가 제일의 숙원이었다.

그러다면 지명의 끝자에 안(安)자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리하여 소태(蘇泰)에서 태(泰)자를 따고 안흥(安興), 안면(安眠), 등에서 안(安)자를 따서 태안(泰安)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지역의 일부 학자는 국태민안(國泰民安)에서 한자씩을 따서 태안(泰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빙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

물론 국태민안(國泰民安)에서 한자씩을 따서 우리 태안(泰安)의 지명이 되었다는 것이 확 실한 근거가 있어서 모두가 공인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일 일까?

그러나 당시의 태안은 세곡선들이 계속하여 파선을 당하고 있었으며 왜구(倭寇)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결코 편안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사항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국태민안(國泰民安)

에서 한자씩을 따서 태안이 되었다는 사항을 다른지역의 인사들은 수긍하질 않는다는 사실도 참고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다면 태안(泰安)이라는 이름은 소태(蘇泰)에서 태(泰)자를 따고 안흥 안면 등에서 안(安)자를 따서 태안(泰安)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태안의 전신은 소태(蘇泰)였으며 소태에서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도(蘇塗)라는 제사터의 명칭에서 유래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더위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솟대에서 유래 하였음을 알 수가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태안(泰安)이라는 지명이 있음은 물론 태안의 옛지명인 소주(蘇州)라는 도시도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태안은 산둥반도의 중심도시로서 태산(泰山)밑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이다.

태산에 올라가보면 정상에 오악독존(五嶽獨尊)이라는 암각문(巖刻文)이 새겨져 있음을 볼 수도 있는데 오악(五嶽)이란 중국 고대 신앙에 나오는 5대명산(名山)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산악신앙이 있어서 전국시대(戰國時代)이후 오행사상(五行思想)의 하나로 오악의 관념이 생겨나게되었다. (6)

五嶽이란 東嶽에 泰山(山東省所在) 中嶽에 崇山(河南省所在) 南嶽에 衡山(湖南省所在) 西嶽에 華山(山西省所在) 北嶽에 恒山(河北省所在)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5) 국사대사전 697page

(6) 세계백화대사전 1252 page 1994년 民衆書閣 발행



태산(泰山)의 정상에 새겨진 오악독존 이란 “孔子聖中之泰山(공자성중지태산 : 공자는 성인중의 태산이고) 泰山巖中之孔子(태산악중지공자 : 태산은 산악중의 공자다) 라는 뜻으로 태산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태산은 공자의 고향에있는 명산으로서 역사적으로 살펴 보더라도 유명한 태산제(泰山祭)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있는등 유명한 명산이다.

우리나라 태안의 백화산과 제향등 신을 숭배한 내용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유명한 명산이고 반도의 중심도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나라의 태안과 비슷함은 물론 도교의 유적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태안과 비슷하여 공통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로 보아 우리나라의 태안과 연관된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소주(蘇州)또한 상해(上海)의 남쪽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한없이 넓은 평야지역에 둘러싸여 가도가도 지평선만 보이고 산이 보이지않는 평야도시이다.

그러나 소주(蘇州)의 지명은 옛날부터 어미지향(魚米之鄉)이라고하여 고기와 식량이 풍부한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서 魚米를 합한것이 소(蘇 : 차조기소) 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소주(蘇州)라는 지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면 중국의 태안(泰安)이나 소주(蘇州)는 우리나라 태안(泰安)과는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도 있다.

각설하고 태안의 백화산(白華山)에는 옛날에 신(神)을 숭배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도(蘇塗)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백제시대인 6세기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마애삼존불상(磨崖三尊佛像)이 이곳의 백화산

에 조각되게 된다.

마애삼존불상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곳에 조각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의 장충식박사는 “백화(白華)는 백화(白花)와 동일하며 신라 의상의 저서인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은 의상이 당에서 돌아와 낙산의 해변 관음굴에서 재계에배(齋戒禮拜)할 때의 발원문(發願文)으로 전해지는등 백화란 곧 관음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곳의 백화산이란 승경의 해안고절처(海岸孤絕處)인 관음도량의 상징이므로 “(7)

중앙의 보살은 종래의 견해대로 관음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백화산에는 조선조 성종 10년인 1479년에 경상도 의성현(義城縣)으로부터 태일전(太一殿)이 옮겨 오게된다. (8)

그러다면 태안의 백화산(白華山)은 아득한 옛날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도(蘇塗)가 있었고 백제시대인 6세기 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애불상인 태안마애삼존불상이 조각 되었음과 아울러 15세기인 조선조 성종때는 태일전이 옮겨오게 되는 등 예부터 매우 신성한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도교유입

옛날 중국의 후한말(後漢末)에 장릉(張陵 : ? ~ 178)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장릉은 사천(四川)의 학명산(鶴鳴山)에서 허다한 신(神)이 강림(降臨)해서 신출정일맹위법(新出正一盟威

法)을 자기에게 전수 했다면서 이 法으로 질병(疾病)을 고쳐주어 많은 신도들을 얻었고 신도들로부터 쌀과 비단을 바치게 하였다.

그뒤 그의 손자되는 장로(張魯)가 그 뒤를 이어 오두미도(五斗米道)의 교법을 완성시켰는데 오두미(五斗米)란 五行을 뜻하는 말로서 다섯말의 쌀이란 뜻인데 도(道)를 닦고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오두미(五斗米)를 내게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오두미도가 시작 되었다고 한다.

장로(張魯)는 그의 조부 장릉(張陵)을 천사(天師)라 칭하면서 오두미도(五斗米道)를 일명 “천사도(天師道)”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장로(張魯)가 죽고난후 이러한 천사도(天師道)역시 일시중단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때에 중국의 진(晉)나라에 갈홍(葛弘 283~343)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갈홍의 자(字)는 지천(祗川)이고 호(號)는 포박자(抱朴子)로서 그는 도교의 연금술사였다.

어린시절에 유교(儒敎)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성년이 되면서 도교의 신선도(神仙道)에 큰 관심을 갖게되므로서 35세때에 자신의 호이기도 하지만 노자(老子)의 견소포박(見素抱朴)에서 글자를따 포박자(抱朴子)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포박자(抱朴子)는 진(晉)의 건무원년(建武元年)인 317년에 내편 20권 외편 50권등 모두 70권으로 구성된 책이었는데 선도 실현을 목적으로 호흡법이나 방중술, 등의 건강법을 비롯하여 종래의 사상, 종교로서의 도교에 대한 해석, 약물학, 화학, 의학등 과학적 방법을 도입시킨 책이다.

이와 같이 천사도 이외로 갈홍은 포박자를 지어 도교의 일파가 여기에서도 형성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양(梁)나라에 도홍경(陶弘景 451~536)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자(字)는 통명(通明)이고 호(號)는 은거(隱居)로서 시인 이었음과 아울러 의사(醫師)였다.

일찍이 궁중에 들어가 황제의 자녀들을 가르쳤고 492년 남경(南京)의 북동쪽에있는 구곡산(九曲山)에 들어가 칩거하면서 도교의 연구와 실천에 힘썼다.

그는 도교의 원류인 노장철학(老莊哲學)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도교의 일상수양 방법을 재형성 하려고 하는 한편 도교서적을 편집하고 주석을 부치는 작업도 하였다.

또한 적절한 식사법과 생활방식을 연구하여 의학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진고(眞誥)” “등진은결(登眞隱訣)”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 등이있다.

이와 같이 도홍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교의 일파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도교는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 하므로서 국가적 종교로 발전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남북조 시대에 북위(北魏)의 도가사상가인 구겸지(寇謙之 365~448)가 나타나 태무제(太武帝)의 신임을 얻어 유불(儒佛)의 의례와 신선 사상을 받아들이고는 자기가 태상노군(太上老君)으로부터 운중음송신과지계(雲中音誦新科之誡)를 받았으면서 장로(張魯)의 천사도(天師道)를 개혁 자기가 천사가 되어 도교로 확립시키므로서 국가적인 종교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9)

이러한 때에 산악신앙(山岳信仰) 및 천신(天神 : 하늘

(7) 소성의 향기 9집 27page 2003년 12월 20일 태안문화원발행

(8) 新增東國輿地勝覽 태안군조 사묘편

(9)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저) 26page 1978년 12월 20일 한국문화연구소 발행



신)을 숭배하던 우리나라에서는 도교의 영입이 절실하였을 수 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장자(莊子)의 남화경(南華經)과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은 삼국시대나 고려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유교사상(儒敎思想)으로 통제되었던 조선시대에도 지식인들 사이에 많이 애독되고 있었으니 우리나라에서의 도교신앙은 고유신앙과 일치하므로써 주민속으로 빨리 전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도교에서는 심신(心身)의 평안과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대한 치유의 방법으로 부록(符籙), 부수(符水), 주축(呪祝), 등의 방법 이 쓰여지기도 되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양생법(養生法)과 의술(醫術)을 갖게되었는데 이러한 도교의 의술과 복양법은 대단히 발달해서 동양 의학사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과(10)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었다.

실예를 들어 조선조 명종때의 유명한 학자였던 북창(北窓) 정염(鄭堧)선생의 용호비결(龍虎秘訣)상에 나오는 한구절을 소개 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었다.

“풍사지환(風邪之患) 북창혈맥지중(伏藏血脈之中) 이명행암주(而冥行暗走) 불지위살신지부 근의(不知爲殺身之斧斤矣) 전경심입고맹(傳經深入膏肓) 연후심의 복약(然後尋醫服藥) 역기만의(亦已晚矣) 정기풍사(正氣風邪) 여빙탄지불상용(如氷炭之不相容) 정기유(正氣留) 칙풍사 자주(則風邪自走) 백맥자연유통(百脈自然流通) 삼궁자연승강(三宮自然升降) 질병하유이작호(疾病何由而作乎) 초가정근(稍加精勤) 칙필지어명각기(則必至於延命却期) <우리말해석> 풍사의 질환은 혈

맥속에 숨어있어 가지고 캄캄한 어둠속에서 돌아다니므로 그것이 몸을 죽이는 도끼임을 알지 못한다.

오래되어 經絡에 옮겨 가고 고맹속에 깊이 들어간 연후에 의사를 찾아가 약을 쓴다해도 이미늦는다 正氣와 風邪는 빙탄같이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정기가 머물러 있으면 풍사는 절로 달아나고 백맥이 절로 유통하고 삼궁이 절로 승강하는데 질병이 어디로해서 생겨나겠는가 조금만 정근하면 반드시 수명을 연장시켜 죽는 날을 뒤로 물리치게 될 것이다” (11)

위의 글을 살펴본다면 질병은 미리부터 범접하지 못하게 운동도 하고 영양을 보충하여 정기를 살려야 오래살수 있다는 말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강은 자기 가지켜야 한다는 말로서 오늘날의 건강법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항이 확인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창(北窓) 정염(鄭堧)선생은 음율(音律)과 현금(玄琴)에 밝아 장악원 주부로 가곡의 장단을 지도하는 한편 천문 예술에도 조예가 깊어 관상감(觀象監)과 혜민서교수(惠民署敎授)를 겸했다.

6살에 중국어를 비롯하여 베트남어 등에 통달하여 중국에 갔을때 중국인이나 베트남인 들로 부터 조선에도 저러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느냐고 감탄을 받았다고 한다 좌의정 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을 하라는 꾸중을 여러번 들었지만 끝내 과거도 보지않고 벼슬도 하지 않은 채 책만쓰고 남들의 질병만 고쳐주었지만 도교(道敎), 불교(佛敎)등에 능통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하고 허준(許浚)선생이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쓰는데 선생의 문헌을 참고 하였음과 아울러 선생의 동생인 정작(鄭碣)선생이 동의보감

(東醫寶鑑)편찬에 함께 참여하였 던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도교는 종교 의식인 제사(祭祀)이외로도 의약이나 부적등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아 불교가 국교였던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불교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음은 물론 유교를 국교로 내세움으로 불교를 억제한 조선조 시대에도 도교의 재초(齋醮)는 계속되므로써 오히려 유교, 불교 보다도 더많은 호평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니 유교, 불교와 함께 도교를 유불선 삼교라 칭하였던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도교에서의 제사 의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설치 하였던 전각이 소격서(昭格署)였으며 소격서 안에는 태일전과 삼청전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도 있어 이후부터는 소격서(昭格署)와 태일전(太一殿)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소격서(昭格署) 와 태일전(太一殿)

소격서(昭格署)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도교의 재초(齋醮)를 지내던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복원궁(福源宮)이 있었는데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살펴보면 복원관(福源觀)에 관하여는 다음과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복원관재왕부지북(福源觀在王府之北) 태화문내(太和門內) 건어정화간(建於政和間) <우리말해석> 복원관은 왕부의 북쪽 태화문 안에있다 政和年間(政和는 중국 宋나라 徽宗의 년호로서 재위기간은 1111년~1117년

까지이다) 에 건립 되었다.” (12)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복원관은 1111년~1117년 사이에 건립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조선조가 건국되면서 태조에게 조박(趙璞)선생은 소격전(昭格殿) 한곳 만을 놓아두고 복원궁(福源宮), 신격전(神格殿), 구요당(九曜堂), 소전색(燒錢色), 대청관(大淸觀), 청계배성소(淸溪拜星所), 등을 혁파하라고 상소하여 그러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었다. (13)

조박(趙璞)선생의 호(號)는 우정(雨亭)이고 자(字)는 안석(安石)으로서 태종대왕(太宗大王)인 이방원(李芳遠)과는 동서지간이다.

조선조의 1등 개국공신으로 평원군(平原君)에 봉해졌음을 물론 벼슬이 화려하였던 선생이었으니 상소(上疏)가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 볼 때 고려시대에는 소격서(昭格署)를 소격전(昭格殿)이라 불렀음을 알수가 있음과 아울러 소격전 이외로도 재초를 시행하던 곳이 복원궁,을 비롯하여 여러 곳이 있었지만 조선조가 건국되면서 모두 폐해버리고 소격전만 남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소격전(昭格殿)은 세조 11년인 1466년에 소격서(昭格署)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그런데 연산군때 대제학을 역임한 성현(成俔: 1439_1504)선생이 쓴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있다 “소격서개빙중조도가지사(昭格署皆憑中朝道家之事) 태일전사칠성제수(太一殿祀七星諸宿) 기상개피발여용야(其象皆被髮女容也) 삼청전사옥황상 제(三清殿祀玉皇上帝) 태상노군(太上

(10)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저) 240page

(11) 鄭堧의 北窓秘訣 제1장 修丹之道 편

(12)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저)

(13) 太祖實錄 태조원년(1392년) 8월 9일의 기록



老君) 보화천존(普化天尊) 십여위개남자상야(十餘位皆男子像也) <우리말해석> 소격서는 다 중국조정의 도교의 행사에 따르고 있다.

태일전에는 칠성제수를 제사하는데 그 신(神)의 형상은 다 파발(被髮)한 여인의 모양을 하고 있다.

삼청전에는 옥황상제, 태상노군, 보화천존, 등 10여위를 제사하는데 다 남자형상이다. (14)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소격서 안에는 태일전과 삼청전이 있었고 삼청전에는 남자상을 태일 전에는 여자상을 모신 것으로 되어있다.

성현(成僎)선생의 호(號)는 용재(慵齋)이고 자(字)는 경숙(敬叔)으로서 조선조의 예종, 성종, 연산군때에 많은 저서를 남기신 훌륭한 학자로서 도교에도 능통하였던 분으로 알려져있다.

뿐만 아니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상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격서에 근무하는 직관(職官)수를 다음과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본조소격서(本朝昭格署) 유삼청전(有三淸殿) 장삼청정진초제(掌三淸星辰醮祭) 정제조일원(定提調一員) 영일원(令一員) 별제(別提) 참봉각이원(參奉各二員) 잡직상도(雜職尙道) 지도 각일인(志道各一人) <우리말해석> 본조(本朝)는 소격서(昭格署)를 두었는데 거기에는 삼청전이 있어 삼청(三淸), 성진(星辰)의 재초를 관장했다.

정원은 제조 1원, 승 1원 제조와 참봉 각 2인 잡직으로 상도, 지도, 각 1명이 있다.” (15)

앞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상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소격서(昭格署)내에는 삼청전(三淸殿)만 있었을뿐 태일전(太一殿)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는 당시의 태일전은 소격서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자리의 방위에 따라 이동하는 지방에도 있었기 때문에 소격서 안에서의 태일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청전의 그늘에 가려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 하였던 까닭이 아니었을까?

아울러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태일천지귀신(太一天之貴紳)자한이래(自漢以來)역대봉사(歷代奉事)루획가상(屢獲嘉祥) <우리말해석> 태일은 하늘의 존귀한 신으로 漢나라 이래 역대 제왕들이 받들어 섬기어 자주 좋은 상서를 얻었습니다.” (16)라는 기록을 볼수가 있다. 그러다면 태일전에서는 파발(被髮)한 여자상을 모신것 보다는 하늘의 존귀한神인 옥황상제(玉皇上帝)를 모셨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태종실록을 계속 살펴보면 “시이전조치북원궁(是以前朝置福源宮) 소격전(昭格殿) 정사색(淨事色) 별건대청관(別建大清觀) 우어간화령(又於良和寧) 손충주(巽忠州) 곤부평(坤富平) 건귀주(乾龜州) 방대소차지궁(方隊所次之宮) 영건궁관(營建宮觀) 이행초례(以行醮禮) <우리말해석> 그러므로 전조에서 북원궁, 소격전, 정사색을두고 따로 대청관을 세웠으며 또 간방(良方: 동북쪽)인화령(和寧)과 손방(巽方: 동남쪽)인 충주(忠州) 곤방(坤方: 서남쪽)인 부평(富平) 건방(乾方: 서북쪽)인 귀주(龜州)에 머무르는 궁마다 궁관을 세워 초례를 행하고 “ (17) 라는 기록도 나오는데 이러한 기록을 살펴 본다면 고려시대의 태일전(太一殿)은 소격서(昭格署)와는 상관없이 화령(和寧)과 충주(忠州), 부평(富平), 또는 귀주(龜州) 등으로 이전하였음도 알수가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소격서와 합한후에는 소격서 안에도 태일전이 있었고 별자리의 방향에 따라 이전하는 지방에도 태일전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만일 태일전이 두군데에 있었다면 소격서(昭格署)안에 있었던 태일전에서는 파발한 여자상을 모시고 제향하였을지 모르지만 방향에 따라 이전하는 태일전에서는 옥황상제를 비롯한 남자상과 파발한 여자상을 모두 함께모시고 제향 하였다고 추측 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조선조 성종7년인 1476년에 대구부사(大邱府使) 최호원(崔灝元)이 상소한 상소문(上疏文)내용을 살펴보면 “태일(太一)은 인간의 오복(五福)일을 총괄하고 세상을 어루만져 함께 변화시키니 사전(祀典: 제사의 예절)의 예를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神은 항상 구궁(九宮)을 따라 순환하며 이전하는데 매궁마다 45년씩 머뭙니다.

지난 세종16년(1434년)에 손방(巽方)으로 옮겨서 경상도의 의성현(義城縣) 빙혈(氷穴)에 태일전의 사당을 짓고 봉사(奉祀: 제사를받들어모심)한지 43년 이되었으니 2년이 지나면 궁수(宮數)가 차서 마땅히 곤궁(坤宮: 서남방향)으로 옮겨야 할 것 입니다. (18) 위의 글을 살펴보면 방향에따라 움직이는 태일전은 45년이되면 궁수(宮數)가 차서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소격전(昭格殿)이었던 개성(開城)으로부터 간방(良方: 동북쪽)인화령(和寧)에 태일전을 옮겨 짓고 45년동안 초례를 행하다가 손방(巽方: 동남쪽)인 충주(忠州)로 태일전을 옮겨 짓고는 다시 45년동안 초례를 행하다가 곤방(坤方: 서남쪽)인 부평(富平)으로 태일전을 옮겨짓고는 다시 45년

동안 초례를 행하다가 건방(乾方: 서북쪽)인 귀주(龜州)로 옮겨 짓고는 45년동안 초례를 행하다가 중궁(中宮)인 개성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간방(良方: 동북쪽)인 강원도의 통천(通川)으로 태일전(太一殿)을 옮겨짓고는 45년동안 초례를 지내다가 세종16년인 1434년에는 손방(巽方)인 경상도 의성현(義城縣)의 빙혈산으로 태일전을 옮겨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는데 간방(良方)인 동북쪽에 태일전이 있었던 사향은 함경도의 함흥(咸興)이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강원도의 통천이었다는 사향이 조선왕조실록 상에나온다 태종실록을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고 명수통주태일전인시단청(命修通州太一殿仍施丹青) <우리말해석> 통주(통천)의 태일전을 수리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단청도 칠하게 하였다.” (19) 성종실록상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을 볼 수도 있다.

“전조(前朝: 고려)에서는 통천(通川)에서 제사 하였고 국조(國朝: 조선)에 이르러는 갑인년(1434)이 45년째가 되므로 의성(義城)에 옮겨서 제사 하였습니다. 갑인년으로 부터 무술년(1478)에 이르면 45년째가 되므로 마땅히 곤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20)

위의 글은 풍수학교수 최호원(崔灝元)의 상소문 때문에 소격서(昭格署) 내에서 강화도의 마니산이 곤방(坤方)이라하여 태일전을 옮기려고 하는 안(案)과 이를 반대하는안(案)에 대하여 알가알부 하는것을 보고는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이 성종 임금께 보고한 내용이다.

그런데 태종때의 학자였던 김침(金瞻)선생이 태종임

(14) 慵齋叢話(成僎 著): 용재는 성현선생의 雅號이다 용재총화는 조선조 초기의 정치 사 회제도 및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있다. 선생의 저서로는 慵齋叢話 이외로도 허백당집(虛白堂集), 풍아록(風雅錄), 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풍소계범(風騷軌範), 경륜대궐(經綸大軌), 등 많은 저서를 남기셨던 분이시다

(15) 增補文獻備考 223

(16) 太宗實錄 태종4년(1404년) 2월 21일의 기록

(17) 太宗實錄 태종4년(1404년) 2월 21일의 기록

(18) 太宗實錄

(19) 太宗實錄 태종 12년(1412년) 10월 21일 御前會議時

(20) 成宗實錄 成宗 7년 8월 24일의 기록



금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도 나온다. “국초상정(國初詳定) 폐복원궁(廢福源宮) 신격전(神格殿) 정사색(淨事色) 경성지유대청관(京城只留大清觀) 소격전이소(昭格殿二所) 우어오차지궁(又於五次之宮) 간방영흥군(良方永興郡) 입관행초(立觀行醮) 숭봉지에(崇奉之禮)가위비의(可謂備矣) <우리말해석> 건국초기에 상정할 때 복원궁, 신격전, 정사색, 을 폐지하고 서울에는 단지 대청관과 소격전 두곳만 남겼고 태일신이 다섯군데 머무는 궁의 간방인 영흥군에 도관을세워 초례를 행하였으니 받드는 예는 가추어졌다 할수 있습니다. (21)

위의 기록을 살펴 본다면 간방(良方 : 동북쪽)의 태일전은 함경도의 영흥군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영흥군에 있었던 것은 태조가 즉위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도교적인 기축법에 의하여 도연포(都連浦 : 함흥부근)에 제성단(祭星壇)을 쌓고 태백금성(太白金星)을 제사했다고도 한다. (22)

이런것으로 볼때 함경도의 영흥군에서도 태일신을 모시고 초례를 행하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간방(良方 : 동북쪽)에 있었던 태일전은 함경도의 함흥이 태조의 고향이기때문에 조상들을 위하여 태일초례를 지냈음으로 간방(良方 : 동북쪽)에 있었던 태일전은 함경도의 영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성종실록에 나타난 임사홍(任士洪)의 보고내용을 살펴보니 간방(良方 : 동북쪽)에 있었던 태일전은 함경도의 함흥이 아니라 강원도의 통천(通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세종 16년인 1434년에 경상도의 의성현으로 옮겨졌던 태일전은 함경도의 영흥군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통천에서 옮겨진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의성현으로 옮겨진 태일전에서는 경상도 관찰사 신인손(辛引孫)선생의 초현으로 제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신인손 선생은 태일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태청신전창방산(太淸新殿創氷山) 하한소회열정환(河漢昭回列定環) 오색보광연하토(五色寶光連下土) 삼태화개웅중간(三台華蓋擁中間) 제심십일추궁폐(齊心十日趨宮陛) 축수천년배제안(祝壽千年拜帝顏)+원사풍조잉우순(願使風調仍雨順)애연화기만인환(藹然和氣滿人寰)

<우리말해석> 하늘의 새전각은 빙산에 창건되었고 하한(銀河)의 돌아감은 정환에 벌여 있다.

오색의 보광은 하토에 이었고 삼태의 화개는 중간에 끼어있다 마음을 재개하기 10일 황궁의 섬돌로 달리고 수명을 수축하기 천년 황제의 모습에 절한다 원하옵기는 비, 바람, 순조롭도록 화기에애함이 인환에 가득 하도록 하였다. (23)

신인손(辛引孫) 선생의 호(號)는 석천(石泉)이고 자(字)는 조운(祚胤)으로서 세종대왕과는 세자때부터 가까운 사이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명망이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러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친히 향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며 태안으로 태일전이 옮겨진 이후부터는 왕으로부터 향이 내려지지를 앓았다는 것이 의성에 있는 박찬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항은 이규경(李圭景)선생이 쓴 “오주연문(五洲衍文)”을 살펴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오주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일전은 지금 의성현(義城縣) 동빙산(東氷山)에 있는데 매년 상원(上元)에 향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빌더니 성종기해(己亥)에 의성에서 태안 백화산(白華山)으로 옮겨모신 이후로는 향도 보내오지 않는다.

이 역시 소격서에 속한 것이므로 소격서가 없어지자 그 제전도 폐지되고 만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도 태안의 백화산에 있었던 태일전에는 향을 보내오지 않았던 것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태일전이 의성현의 빙산에 있을때는 초현을 맡고있던 경상도 관찰사 신인손(辛引孫)선생과 세종대왕과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이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다만 의성에 있는 박 찬 변호사의 말에 수궁이 갈뿐이다.

어쨌거나 의성현의 빙산에 있던 태일전도 성종7년인 1476년에 대구부사 초호원(崔灝元)의 상소를 받아들여 태일전을 옮길 곳을 찾아보라는 명(命)을 내리게 된다.

그리하여 강화도의 마니산을 선정하였으나 곧방(坤方 : 서남쪽)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되었는데 당시의 사항을 성종실록에서 살펴 보면 “태일전을 옮기면서 방위를 가리지 않는다면 옮기지 않는것만 못합니다 마니산은 경성(京城)의 서쪽에 있으니 태방(兌方)이라 하면 가하지만 신방(申方)과 경방(庚方)의 두방위를 넘어서 곧방이라하면 크게 서로 맞니다.

태일은 곧방에 있는데 사당(殿)은 태방에 지으면....(24)

이와같은 최호원의 강력한 상소에 의하여 태일전은 강화도의 마니산을 포기한 채 충청도 태안의 백화산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성종실록 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수도있다.

“예조계금연전관상감정이종민(禮曹啓今緣前觀象監正李宗敏) 계본태일전이건가당(啓本太一殿移建可當) 곧방재충청도태안백화산서남(坤方在忠淸道泰安白華山西南) 고성사북고평처거(古城寺北高平處距) 경성삼백삼십리청금공조영건종지(京城三百三十里淸今工曹營建從之)

<우리말해석>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 관상감정이종민의 계본에 의하건대 태일전을 옮겨 세우는데에 마땅한 곧방은 충청도 태안의 백화산 서남쪽 고성사(古城寺)북쪽의 높고 평평한 곳에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가 3백3십리 라하니 청컨대 공조로 하여금 영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5) 그로인하여 성종9년인 1478년에 태안의 백화산으로 태일전이 옮겨지게 되었으며 태일전에서의 제사방법은 경상도 의성(義城)에서의 예에 의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참봉(參奉)은 서울에서는 사족(士族 : 문벌이 좋은집안)의 자제 가운데서 재주를 시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벽지인 태안의 태일전에서 1년의 임기를 채우면 서울의 참봉으로 영전하여 주는 조건 이었다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상의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성종실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볼 수가 있다.

“신(臣)이 근일 기우향사(祈雨香使 : 기우제를 맡아 행하는관리)로서 소격서(昭格署)의 제물(祭物)을 보건대 잣, 개암, 은 다 더러운 사람을 시켜 껌질을 벗기

(21) 太宗實錄 太宗4년 2월 21일 김침(金瞻)의 上疏文에서

(22)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저) 122 page

(23)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義城縣 고적조편 그런데 경상북도 의성군에 살고있는 박찬(朴燦)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의성현지(義城縣誌 : 조선조영조 13년 1757년 발행)를 참고로 보이면서 하한소회열정환(河漢昭回列定環)이 하한소회열숙환(河漢昭回列宿環)으로 기록 되어야 말는다면서 新增東國輿地勝覽상의 정환(定環)은 숙환(宿環)이 말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定環이나숙환은 다같이 별자리를 論하는 말로서 같은뜻이라한다 박찬 변호사는 한때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던 인물로서 지금은 지역에서 향토사학자로 많은 연구를 하고계신분 이시다.

(24) 成宗實錄 成宗 8년 2월 18일의 기록

(25) 成宗實錄 成宗 8년(1477년) 6월 1일의 기록



로 정결하지 않은 듯 하니 이 뒤로는 껌질채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도류(道流 : 잡직의하나인벼슬)는 겨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알면 다 훈도(訓導: 큰고을에 두었던 종9품벼슬)가 되어보려고 하므로 남아있는자는 다 미열(迷劣)하여 일에 정통하지 못하니 태일전참봉(太一殿參奉)에 소격서의 도류를 차출하여 보냈다가 가려올때에 경직(京職:서울에있는 벼슬자리)을 제수하면 그들도 그 직임을 즐겨서 일에 정려(精勵)할 것입니다. (26)

Ⅲ 태일전에서의 기도내용

그러다면 태일전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빌면서 제사를 지냈을까?

고려사(高麗史)를 살펴보면 “태일어수춘궁이양화재(太一於壽春宮以禳火災) <우리말해석>

태일신께 화재가 없기를 빌며 제사지냈다. (27)

“초태일어문덕전이기풍우조순(醺太一於文德殿以祈風雨調順) <우리말해석> 문덕전에서 비, 바람 순조롭도록 빌면서 태일초제를 올렸다. (28)

“초칠십이성어명인전우초천황대제태일급십육신(醺七十二星於明仁殿又醺天帝太一及十六神以禳疾疫) <우리말해석> 72성께 초제를 지내고 이어서 명인전에서 천황대제께 초제를 올림과 아울러 태일급의 16신께 질병이 없기를 빌며 제사 지냈다. (29)

이어서 조선왕조실록 상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우선 태종실록(太宗實錄)을 먼저 살펴 보면 “행태

일초이(行太一醺以) 소한대한(小寒大寒) 심무고기양야(沈霧故祈禳也) <우리말해석> 소한 대한에 안개가 끼었기 때문에 기양(祈禳: 복은 들어오고 재앙은 물러가라고 비는기도)을 하였음 “ (30) 이라는 기록에 이어

“개성대정명산(開城大井名山) 대천행태일초어(大川行太一醺於) 소격전시일소우(昭格殿是日小雨) <우리말해석> 개성과 명산 대천에 비를 내리도록 빌게하고 태일초를 소격전에서 행하였다 이날 약간의 비가 내렸다. ” (31)

“행태일초례(行太一醺禮) 낭비시뢰동야(攘非時雷動也) <우리말해석> 태일초례를 행하였으니 때아닌 천둥을 빌기 위함이었다. ” (32) 라는 기록들이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세종때의 기록들을 살펴 보면 “기우우풍운뢰우(祈雨于風雲雷雨) 우행태일기우초(又行太一祈雨醺) <우리말해석> 풍운뢰우에 기우하다. 또 태일성에 기우하는 초제를 행하다. ” (33)라는 기록에 이어 “행기우태일초(行祈雨太一醺) 취무승도기우(聚巫僧徒祈雨)

<우리말해석>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태일초제를 행 하였다 무당들과 중들을 모아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게 하였다 “ (34) 라는 기록에 이어 “기청우태일(祈請于太一) <우리말해석> 태일에 기청제를 행하였다. ” (35)라는 기록과 “행태일기우초(行太一祈雨醺), 우도우풍운뢰우(又徒又風雲雷雨) 삼각목역한강(三角木覓漢江) <우리말해석> 태일기우초제를 행하고 또 풍운뢰우 삼각목목을 한강에서 기우하다. ” (36)

“행태일기우초(行太一祈雨醺) <우리말해석> 태일기우의 초제를 행하였다. ” (37) 또는 “행기우태일초례(行祈雨太一醺禮) 행석척취무승도기우(行蜥蜴聚巫僧徒祈

雨) <우리말해석> 비를 비는 태일초례를 행하다 석척기우제 취무기우제 승무기우제를 함께 행하였다.

“ (38) 라는 조선왕조실록 상의 기록들 이외로도 태일전에서의 기도 내용은 한 없이 많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 상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제심십일(齊心十日) 황궁폐축(皇宮陞祝) 수천년배제안(壽千年拜帝顏) 원사풍조영우순작(願使風調仍雨順鵲) 연화기만인환(然和氣滿人寰) <우리말해석> 마음을 재가하기 10일 황궁의 섬돌로 달리고 수명을 수축하기 천년황제의 모습에 절한다. 원하옵기는 비, 바람, 순조롭도록 화기에 함이 인환에 가득하도록 하였다. ” (39)

“매년상원(上元)에 향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빌더니 (40)이상의 기록들을 살펴볼때 태일전에서의 기도내용은 대체로 비를 비는 기우제를 비롯하여 폭풍 천둥등 풍수해(風水害)를 예방하고 나라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좋은 복(福)은 들어오고 나쁜 재앙(災殃)들은 물러가라는 내용의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었음을 볼 수가 있다.

Ⅲ 소격서(昭格署)와 태일전(太一殿)의 혁파

이와 같이 태일전이 방위에따라 태안의 백화산에까지 옮겨지게 된 후 백화산에서의 태일제는 계속되었지만 방탕이 심하였던 연산군은 도교의 풍습의 하나인 경신(庚申)을 지키는 일 마저 제대로 하질 않았던 것 같다.

수경신(守庚申)이란 경신일에 밤을자지 않고 날을새우는 도교의 풍습이다.

경신일에 날을 새우는 풍습은 장생법(長生法 : 오래사는비결)에서 시작되었는데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되어있다 그러나 악행(惡行)의 정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그 비례로 빼앗아버려 수명이 단축 된다는 것이다. (41)

이러한 경신일에 연산군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금일경신야(今日庚申也) 위희이도지(爲戲以賭之) 대사헌이집등계(大司憲李諱等啓) 인군무희사(人君無戲事) 수신지희(守申之戲) 여향호협아소상야(閭巷豪俠兒所尙也) 금영승정원효지(今令承政院效之) 금중비희유지(禁中非戲遊之地) 근신비도박지류(近臣非賭博之類) 청명정지(請命停之) 불청(不聽) <우리말해석> 오늘은 경신일이니 함께들 수야하고 장난삼아 노름들이 나하라 대사헌 李諱등이 아뢰기를 임금에게는 장난이란 없는 것 입니다.

수경신 하는 놀이는 여향(閭巷)의 호협아(豪俠兒)들이 숭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정원에게 그것을 본뜨게 하시다니 금중(禁中)은 놀이하는 곳이 아니옵고 측근의 신하들은 도박하는 부류들이 아닙니다 그만두도록 명하십시오 그러나 그청을 듣지 않았다. (42)

이와 같은 연산군조를 거쳐 중종조에 이르러 소격서에대한 혁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중종13년인 1518년의 7월27일 사헌부대사헌 이항(李沆) 사간원사간 김희수(金希壽)등은 다음과 같은 합동상소를 올린다.

(26) 成宗實錄 成宗12년(1481년)6월12일 經筵場에서 홍응이 임금께 보고한 내용 (27) 高麗史 世家 7권 文宗大王時

(28) 高麗史 世家 10권 선종대왕시

(30) 太宗實錄 太宗 2년(1402년) 1월 24일의 기록

(32) 太宗實錄 太宗 5년(1405년) 12월 5일의 기록

(34) 世宗實錄 世宗18년(1436년) 6월 6일의 기록

(36) 世宗實錄 世宗 20년(1438년) 7월 13일의 기록

(29) 高麗史 世家 17권 의종대왕시

(31) 太宗實錄 太宗 5년(1405년) 5월 24일의 기록

(33) 世宗實錄 世宗 2년(1420년) 4월 26일의 기록

(35) 世宗實錄 世宗 20년(1438년) 7월 13일의 기록

(37) 世宗實錄 世宗21년(1439년) 4월 21일의 기록

(38) 世宗實錄 世宗22년(1440년) 4월 25일의 기록

(39)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義城縣 고적조편

(40) 李圭景 의 五洲衍文

(41) 한국도교사상연구 (차주환 저) 190page

(42)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



“부도교이단지일이(夫道敎異端之一耳) 황괴망탄기세설천(荒怪妄誕欺世襲天) 적오도지심자(賊吾道之甚者) 소유식견(少有識見) 숙불욕단절기근본(孰不欲斷絕其根本) 쇠세지군(衰世之君) 불능자강어위선(不能自強於爲善) 욱동사승(欲動私勝) 출박화복(恤迫禍福) 기어길흉(其於吉凶) 사정기간(邪正之間) 고기현무전도(固己眩顛倒) 막적위집(莫適爲執) 도사현허(徒事玄虛) 이치쇠란위망지화(以致衰亂危亡之禍) 이소위도력신공(而所謂道力神功) 중불능구언(終不能救焉)

〈우리말해석〉 대저 도교는 이단의 하나입니다 황괴망탄하고 세상을속이고 하늘을 더럽히고 오도(吾道)를 심히 해치는 것 입니다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으면 누가 그 근본을 단절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쇠미한 세상의 임금은 선(善)한 일을하는데 스스로 힘쓰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세울려고하고 화복(禍福)에 겁내고 길흉(吉凶)과 사정(邪正)사이에서는 눈이 어지러워져 전도(顛倒)시키고 옳지 않은것에 집착하고 한갓 현허(玄虛)를 일삼아서 쇠란(衰亂)과 위망(危亡)의 화(禍)를 불러오는데도 이른바 도력(道力)과 신력(神功)은 끝내 그것을 구(救)해 내지 못 합니다. (43)

뿐만 아니라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기묘제현(己卯諸賢)들이 소격서의 혁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소격서내좌도지심자(昭格署乃左道之甚者) 이소당혁파자야(而所當革罷者也) 근문인초모지언(近聞因草茅之言) 연방대신(延訪大臣) 대신개언가혁(大臣皆言可革) 이자상독집(而自上獨執) 이위불가(以爲不可) 조의함이위미편(朝議咸以爲未便) 〈우리말해석〉 소격서는 이단중에서도 심한 것으로 마땅히 없애야 할 것 입니다.

근자에 듣기로는 민간의 말에따라 대신에게 물으시자 대신들은 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하께서 홀로 고집하시고 안된다고 하셔서 조정의 의론이 다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44)라고 주청하고는 이어서 “삼대이상(三代以上) 고무좌도(固無左道) 이년대장구(而年代長久) 쇠세지군(衰世之君) 불선수어내(不先修於內) 이외봉좌도(而外奉左道) 이기장년(而祈長年) 만무시리(萬無是理) 청속혁파(請速革罷) 〈우리말해석〉 3대 이전에는 본래 이단이 없었으나 년대가 오래되자 쇠세의 임금이 먼저 안으로 자신의 德을 닦지않고서 밖으로 이단을 신봉하여 장수를 빌었습니다 전연 그러게 될 까닭이 없으니 속히 혁파하시기 바랍니다. (45)

이상과 같이 조광조를 선두로한 기묘제현들은 중종(中宗)과 옥신각신 하면서 소격서의 혁파를 주장하였으나 중종은 조종조(祖宗朝)에서부터 해내려오던 일을 폐지할수없다고 굳게 거부하면서 맞서 소격서의 혁파가 어렵게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조광조(趙光祖) 등이 밤중까지 물러나지 않고 집요하게 혁파를 요청하는 통에 중종은 결국 마음을 돌려 소격서를 혁파하라고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린다 “소격서비불지좌도(昭格署非不知左道) 단기래기구(但其來已久) 고이위불가혁(故以爲不可革) 금견여정(今見輿情) 개욕혁거(皆欲革去) 당부순여정(當俯循輿情) 단명혁(但命革) 칙기제사자불득위야(則其祭祀自不得爲也) 기설진지구(其設陳之具) 필위처치(必爲處置) 여위판등물(如位版等物) 역불수매치(亦不須埋置) 〈우리말해석〉 소격서는 이단임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다만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없앨수없다고

여겼을 뿐이다.

지금 여론을 보니 다들 없애기를 원하니 마땅히 여론에 굽어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없애기를 命하는 것은 그 제사를 자연히 지낼수 없게되니 그 진실한 제구를 반드시 치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판 같은 물건들 역시 묻어 둘 것 없다. (46)

이러게하여 소격서를 혁파하게 되자 충청도에 있는 태일전은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중종임금은 다음과같은 전교를 내린다 “기초소격서이(既草昭格署而) 충청도태일전불금병철(忠淸道太一殿不令並撤) 청병봉승전(請並奉承傳) 왓기초본원칙(日既草本原則) 지엽지사(枝葉之事) 해조자당찰이처지(該曹自當察而處之)

〈우리말해석〉 소격서는 혁파 하였으나 충청도에 있는 태일전은 아울러 철거하지 않았으니 아울러 승전을 받게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본원을 혁파 하였으면 지엽의 일은 해조가 스스로 살펴서 처리 할 것 이다 하였다. (47) 이러게하여 태안의 백화산에 있던 태일전도 중종13년인 1518년의 9월4일 45년을 채우지 못 한 39년만에 강화도의 마니산으로 옮겨지기 6년전에 혁파되기에 이른다.

만일 이때에 태일전이 혁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안의 태일전은 45년이되는 1524년에 강화도의 마니산으로 옮겨지게 되므로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인하여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게 되자 중종은 모후(母后)의 병중간청(病中懇請)이라하여 제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격서를 서울에 부활시키게 되었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이 왕조실록상에 나타난다.

“태일전초석지의진파운(太一殿草席地衣盡破云) 제향소이초석위지의사위란만의고(祭享所以草席爲地依似爲樂慢宜考) 전례즉이정석개배(前例卽以正席改排) 〈우리말해석〉 태일전의 짚자리로 된지가 죄다 망가졌다고 하는데 제향소에서 초석을 지의로 삼는 것은 무례 할듯하니 전례를 상고하여 정석(正席 : 돛자리) 으로 개배하여야 하겠다. (48)

위의 기록으로 본다면 중종23년인 1528년에 혁파된 태일전이 다시 복원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복원되었던 소격서(昭格署)나 태일전(太一殿)도 선조때에 이르러 임진왜란을 겪고나서 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태일전의 혁파후 도교의 유적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안의 백화산에 있던 태일전(太一殿)은 조선조 중종 13년인 1518년의 9월 4일에 혁파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산 정상 태일전의 옛터에는 당시에 사용하였던 주춧돌들이 한두 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화유적을 모르는 일부의 군인들이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흙을 매립하므로서 주춧돌마저 흙속에 무쳐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태안의 백화산보다 45년이나 먼저 태일전을 맞이하여 제향을 올렸던 경상북도 의성군의 빙산에는 아직까지도 태일전터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43) 中宗實錄 中宗 13年 6월 21일의 기록

(44) 中宗實錄 中宗 13年 6월 21일의 기록

(45) 中宗實錄 中宗 13年 7월 27일의 기록

(46) 中宗實錄 中宗 13年 9월 3일의 기록

(47) 中宗實錄 中宗 13年 9월 3일의 기록

(48) 中宗實錄 中宗 23年 10월 3일 기록



그런데 백화산에 있었던 태일전이 없어지고는 그 자리로 부터 200m~300m 의 아래쪽에 태을암(太乙庵)이라는 암자(庵子) 하나가 생기게 되었다.

태을(太乙)이란 태일(太一)과 같은뜻이기 때문에 태일전이 헐파되면서 이곳에 그 자료들을 옮겨 암자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태을암 주변에는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암각문이 새겨져 있음도 볼 수가 있다.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암각문은 지금으로부터 82년전인 1923년에 김규항(金圭恒)씨가 김해김씨(金海金氏) 들의 족보를 소장하면서 새겨진 내용이라는 사항을 암각문에 새겨 놓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조 말엽 태안의 경이정(憬夷亭)에서는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 새벽에 재우제(宰牛祭)를 지내고 있었다.

재우제(宰牛祭)의 초헌(初獻)은 태안군수가 하였는데 소를 통으로 잡아서 제사를 올렸다고하여 소우(牛)자를 넣어 재우제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우제는 백화산 정상에서 지내던 태일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내용이다.

정월 보름날에 제향을 올렸든지 또는 십일동안 근신 하였든지 제향의 내용이 비, 바람, 순조롭고 화기애애함이 인환에 가득하도록 하는 등 국민민안을 빌었다든지 초헌관이 지방의 성주(城主)인 태안군수 였든지 하는등 여러가지 면에서 살펴 볼 때 백화산 정상에서 지내던태일제와 흡사하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때문에 재우제는 도교의 유적인 태일제에서 유래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우제도 1914년 태안군이 폐군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게되자 태안시내권의 이장들은 자비로 제물을 작만하여 태안읍장을 초헌으로 하는 제향을 올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있는 중앙대제(中央大祭)의 시초이다.

이와 같은 중앙대제(中央大祭)는 태안군이 복군되자 태안읍장에서 초헌을 태안군수로 바꾸어 오늘까지 성대하게 지내고 있다.

III 결론(結論)

태일전은 별방위에따라 고려시대에는 간방(艮方 : 동북쪽)인 화령(和寧)에서 손방(巽方 : 동남쪽)인 충주(忠州)로 옮겨다가 다시 곤방(坤方 : 서남쪽)인 부평(富平)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45년이 지나자 다시 건방(乾方 : 서북쪽)인 귀주(龜州)로 이동하면서 제향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강원도의 통천(通川)에 태일전을 모셨다가 그곳에서 45년을 경과한 다음 경상도 의성의 빙산으로 옮겨다가 그곳에서 다시 45년을 경과한 다음 충청도 태안(泰安)의 백화산으로 옮겨졌으며 충청도의 태안에서 45년이 경과한후 강화도의 마니산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소격서의 헐파로 인하여 39년만인 1518년 9월 4일 태안의 백화산에서 헐파되고말았다.

우리나라의 도교는 원래부터 믿어오던 토속신앙과 일치하여 주민속으로 전파하기가 용이 하였을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그 자취마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지만 우리의 배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같이 하늘이 내려다 본다면 잘못된 행동을하지 않았으

며 수경신(守庚申)을 지키는 일 등토 안택 산신제등의 풍습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음과 아울러 제향을 정성껏 지내다가 중지하면 죄를 짓는 것 만 같아 불안한 마음이 생겼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교(道敎)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유불선 3교가 아니라 유교(儒敎) 불교(佛敎) 기독교(基督敎)의 3교로만 알고 있다 아울러 도교에 대한 문헌(文獻)또한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구(求)해진 일부의 문헌을 보고 기고를 하고보면 또다른 문헌이 나오는 등 실력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혼선을 빚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도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몇 천 년 전인 태고시절부터 우리지역의 백화산에는 예부터 "소도(蘇塗)"가 있었던 신성한 지역이었음으로 태일전이 옮겨오기 이전에도 항상 제향을 소중하게 생각 하였음과 아울러 제향을 중지하면 하늘에 죄를 짓는 것 만 같아 불안하게 생각 하였었다.

그러던 중 나라에서 태일전을 옮겨오게 하고는 정성껏 제향을 모시므로 주민들도 불안한 마음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 할 수 있었는데 나라에서 소격서를 헐파하면서 태일전도 헐파하기에 이르자 주민들은 마음속으로 제사가 없어진 것을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던 중 1894년 동학혁명이 발생하므로 말미암아 군수가 피살을 당하였고 태안읍성이 무너졌음을 물론 안홍성이 무너졌고 관아들이 모두 불타버리는 비운을 맞게 되자 주민들은 모두가 초조하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은 백화산에서 매년거행하던 태일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노하신 결과라고 생각 하였던 것 같다.

그러다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태일제와같은 제향을 다시부활하여 정성껏 지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태일제와 비슷한 재우제를 경이정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우제역시 1914년 태안군이 폐군되므로 말미암아 군수가 없어지게 되자 제향을 주도할 사람이없어져 재우제도 자연적으로 중지될 수 밖에 없었다.

재우제가 중단되자 태안읍장을 비롯한 지역의 유지 또는 시내권의 마을 里長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재우제를 대신하는 제향을 경이정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있는 중앙대제 이다.

아울러 중앙대제 역시 옛날의 재우제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태안군수가 초헌을 하면서 제향을 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중앙대제도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 새벽에 제향을 모시고 있다는사실 또는 제사장이 10일간을 근신한다는사실 국민민안을 빌고 있다는 사실 등은 태일제와 같다는사실을 확인할수가있으며 태일전이 없어져 유일한 루정으로 남아있던 경이정에서 제향을 모셨던 재우제와 같이 중앙대제도 경이정에서 모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의미가 깊다는것이다.

그러다면 태안에는 태을암(太乙庵)이라는 암자(庵子)와 태을동천(太乙洞天)이라는 암각문(巖刻文)이 있는 등 도교의 유형유적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임과 아울러 중앙대제(中央大祭)라는 도교(道敎)의 무형유적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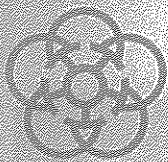
參 考 文 獻

1. 삼국사기
2. 조선왕조실록

3. 신증동국여지승람
4. 증보문헌비고
5. 한국도교사상연구

6. 국사대사전
7. 세계백과대사전
8. 소성의향기

9. 북창비결
10. 용재총화
11. 오주연가



2005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1. 충남문화 제9호

- 기 간 : 2005년 1월 ~ 12월
- 대 상 : 도내 문화원
- 활동상황 :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충남문화』제9호는 본 지회 및 도내 17개 문화원의 활동상황,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상황, 문화행사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지회 및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남도내 문화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림.

2. 2004 문화체험프로그램 평가 워크숍

- 일 시 : 2005년 3월 29일, 12:00~17:00
- 장 소 : 공주문화원
- 대 상 :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 활동상황 : 2004년 통합복권기금지원사업 지방문화원중심 문화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이 모여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 하였고,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건의할 사항을 모아 제시, 2005년 문화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참가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층 있는 토의가 이루어 짐. 문화체험프로그램은 1, 2단계로 나누어 통합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신체적·경제적 사유로 문화현장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문화원이 실시하고 있음.

3.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 기 간 : 2005년 09월~12월(논문 접수 및 심사, 발표회)
- 대 상 : 도내문화원 및 향토 연구회 회원 등
- 활동상황 :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 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역사 정립과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 9월 한달 동안 총 5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지난 10월 12일 도지회에서 심사(심사위원 : 신상찬 서산문화원장, 정우영 태안문화원장)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접수 된 논문 5편은 제20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 응모하였다. 입상한 논문 작품은 12월 16일 공주문화원에서 시상 및 발표회를 갖고 공주대 이해준 교수의 초청강연도 이어짐.

■심사결과

훈 격	성 명	논 제
최우수상	황의호	보령 성동리 증보수리계 연구
우 수 상	신양웅	13진 도총대장 정주원
장 려 상	고우미	쌍륙

4.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연찬

- 일 시 : 10월 19일 14:00~17:00
- 장 소 : 논산시청 상황실
- 대 상 :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 활동상황 :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원 사무국장들간의 정보교류 및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연찬 활동을 통해 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 함. 권용태 문화원연합회장과 박웅진 도지회장 인사에 이어 지진호 건양대 관광학과 교수의 “축제 도 산업이다”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정우 천안문화원사무국장의 “지방문화원 발전에 대한 소고”의 주제 발표 시간을 가진후 도지회 사업과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짐.

5. 2005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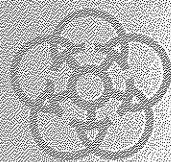
- 일 시 : 2005년 10월 29일, 14:00~17:00
- 장 소 : 당진 문예의 전당
- 대 상 : 도내 문화예술인
- 활동상황 :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향토 문화예술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행사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 표창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여 공연예술의 진수를 선보임. 연극인 최주봉의 초청강연도 있었으며, 출향 및 향토작가 초대전과 함께 마련 된 다과회장에서는 상호 문화예술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장이 됨.

6. 2005년도 지역축제 개선·발전 워크숍

- 일 시 : 2005년 12월 02일 10:00~17:00
- 장 소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 대 상 : 문화원, 축제주관단체, 시·군 축제 담당공무원 등
- 활동상황 : 지역 축제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축제 주관 단체 및 문화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함. 금년도 개최 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시·군이 자체 평가한 자료를 전문연구원 또는 대학교수에게 의뢰하여 워크숍 행사 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최종 도출 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 함.

7.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년 4월 18일 11:00~12:00
- 대 상 : 운영위원 7명
- 장 소 : 유성 아드리아 호텔



2005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 활동상황 : 주요 현안 사업의 및 목적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협의, 임현용 도문화관광국장과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 가짐.

8. 월례회의

- 일 시 : 매월 또는 수시
- 대 상 : 도내 문화원장
- 활동상황 : 도내 17개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정보교류,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토의,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공동의 목표추진 등을 위한, 정례 모임. 8월 월례회 시 심대평 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통해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한 대의적인 회의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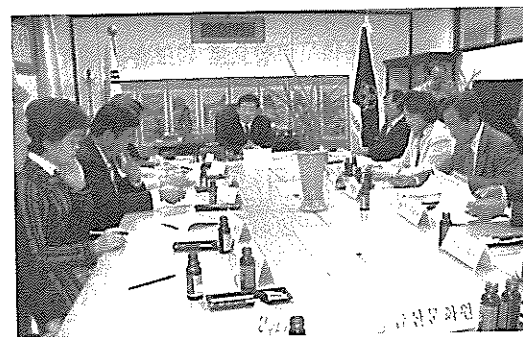
3월 월례회 후 백제군사박물관 관람



2004문화체험 프로그램워크숍(공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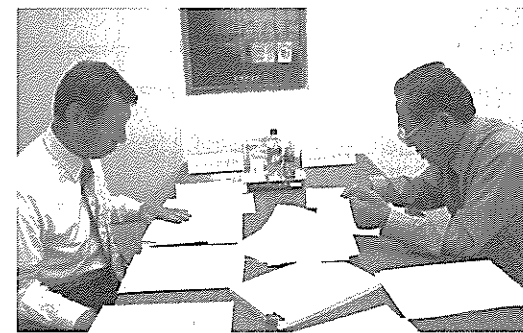
4월 운영위원회(유성)



5월 월례회(부여문화원)



8월월례회 및 심대평 도지사초청간담회(천안)



향토사연구논문 심사(논산문화원)



10월 월례회 및 사무국장 연찬(논산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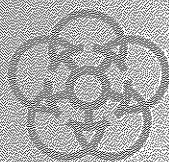
2005지역 축제 개선·발전워크숍(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향토사 발표회(공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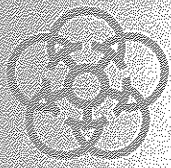
12월 월례회의(공주문화원)



2005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5 을유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5년 1월 4일 (11: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유지 신년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연	
2	반향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	· 기간 : 1월 - 12월 · 4×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웅진춘추, 공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바로이분, 고사와격언, 향토사료, 이달의 문화인물, 내고장 소식, 문화원소식, 문화가 산책 등	
3	예인촌 정기공연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서툰 사람들"	· 일시 : 2/18 19:00 2/19-2/20 15:00, 18: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작품명 : 서툰 사람들	
4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 일시 : 2/21 - 6/30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 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 을 제공 ①가곡반 ②풍물반-초급 ③풍물반-중급 ④댄스스포츠반-초급 ⑤댄스스포츠반-중급 ⑥국선도반 ⑦서예반 ⑧생활영어반 ⑨사진예술반 ⑩일본어반 ⑪가야금반 ⑫생활꽃꽃이반	
5	예인촌 정기공연 예인촌과 함께 하는 "봄꽃 한마당"	· 일시 : 4/16 19:00 ·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 참석인원 : 250명	예인촌 초청 공연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댄스스포츠, 가야금연주, 한국무용, 시낭송, 성악, 공주의 소리, 풍장과 소리의 어울림	
6	예인촌 정기공연 "최선의 우리 춤"	· 일시 : 5/2 15:00 · 장소 : 국립공주병원 · 참석인원 : 2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화관무, 달놀이춤, 살풀이, 진도북춤, 공주의 옛소리, 부채춤, 웃다리 사물놀이, 봄을 여는대 합주	
7	제10회 "효" 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 일시 : 6/14 14:00 ·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 참석인원 : 500명	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학의 저변확대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제10회 "효" 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시상식	· 일시 : 6/22 16: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00명	-백일장 시상식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9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일시 : 7/4 18: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수료식 및 발표회 -웃다리풍물, 서예전시, 가곡발표, 댄스스포츠 등	
10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생활꽃꽃이·서예반 전시회	· 일시 : 7/4-7/8 · 장소 : 제1·2전시실 · 참석인원 : 200명	생활꽃꽃이반과 서예반 회원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 마련	
11	찾아가는 우리문화순회공연	· 일시 : 7/6-7/15 · 장소 : 관내학교 및 장애복지시설 · 참석인원 : 1,000명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이해와 소중함을 함께 느끼게 하는 계기마련 -장애복지시설 환우들에게 즐거운 불거리 제공 -피리연주, 살풀이, 해금연주, 가야금연주, 화관무, 부채산조, 공주의 옛소리, 웃다리 사물놀이	
12	예인촌 정기공연 "이길재의 염원의 소리"	· 일시 : 7/8 19:30 · 장소 : 강당 · 참석인원 : 150명	예인촌 초청 공연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제1부 : 살풀이, 전월 대보름 노래, 찬상병 알랑, 생명의 불꽃, 북에서 온 어머니 편지, 집터 다지는 소리 -제2부 : 부채춤, 서음, 부귀공명사, 창부타령, 가래질소리, 공주 아리랑	
13	2005 통합복권 기금지원사업 지역문화원중심 지역문화체험 "도자기만들기체험"	· 일시 : 7/12, 7/14 · 장소 : 계룡산도예촌 · 참석인원 : 80명	-장애청소년 대상 1일 도자기 만들기체험 -현장체험을 통해 애항심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마련 -유익하고 흥미로운 전통생활 문화체험	
14	2005 통합복권 기금지원사업 지역문화원중심 지역문화체험 "서당체험"	· 일시 : 7/18-7/19 · 장소 : 의당면 도령서당 · 참석인원 : 40명	-벽지청소년 대상 1박 2일 서당체험 -현장체험을 통해 애항심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마련 -유익하고 흥미로운 전통생활 문화체험	



2005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5	예인촌 정기공연 극단 '파고' "허탕"	· 일시 : 8/12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50명	예인촌 초청 공연 -예술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극단 <파고> 작품명 : 허탕	
16	예인촌 정기공연 "풍요로운 가을맞이"	· 일시 : 9/9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웃다리 사물놀이, 공주의 옛소리, 교방굿거리, 한국창작무용, 크로마하프 연주, 성악, 오카리나, 뮤지컬 속의 노래, 공주의 향토소리	
17	공주향토문화학교 (향토사강좌)	· 일시 : 9/22 ~ 10/25 (매주 화, 목요일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 참석인원 : 35명	- 공주의 어제와 오늘, 공주의 무형문화재, 일본 도조 이삼평은 공주 사람인가?, 유구와 고려 충숙공 문극검의 유적, 공주 근대 교육의 효 시, 계룡산 중악단과 대한제국, 공주 일노래와 농부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공주의 봉수, 공주 로의 여행 무엇을 찾을까?, 백제역사, 문화콘 텐츠의 활용방안	
18	제51회 백제문화제 기념 공주시 청소년 락 & 댄스페스티벌	· 일시 : 10/8 10:00~ 22:30 · 장소 : 공주문예회관 (본선, 시상식) 금강둔치공원 (연예인 축하공연) · 참석인원 : 1,000명	-제51회 백제문화제를 기념하여 공주시 청소년 락 & 댄스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향수 신장 -미래지향적인 창의력과 자신감 고취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19	공주문화원 초대 계룡산 분청 "작가와 일상"	· 일시 : 10/21-10/27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500명	- 공주문화원 초대 - 계룡산 분청 "작가와 일상"	
20	향토문화학교 답사	· 일시 : 10/29 09:00 ~ 17:00 · 장소 : 공주관내 유적지 · 참석인원 : 30명	답사코스 : 김옥균 생가지, 석송동천, 취리산(안 무정지), 고마나루(정방울), 정지사지, 선화당, 효 가리(효자향덕비), 영규대사묘, 감사구곡, 도조이 삼평기념비, 상신리(용산구곡), 충현서원, 초려 이유택선생 고택	



문화학교 수료



댄스 페스티벌



서당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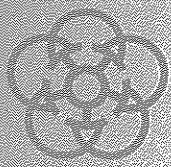
공주염원의소리



공주문화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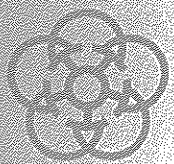
예인촌 공연



2005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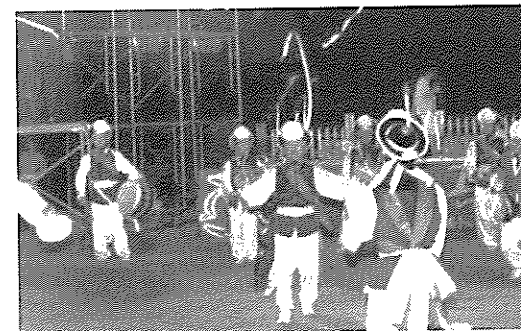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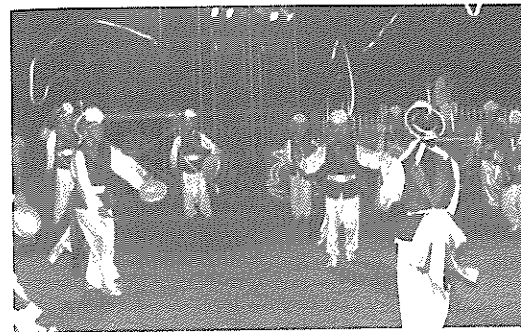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금산의 전설	· 금산의 전설 보고서 발간 · 조사지역 : 금산의 전지역	금산의 전설	
2	금산의 마을지	· 보곡산골 마을지, 가마실 마을지 · 보고서 발행	각 마을의 역사, 관광 조사연구	
3	천내배걸림굿	· 천내리 전승되는 천내배걸림굿 · 복원	천내배걸림굿 조사 및 시연	
4	금산역사문화연구	· 금산역사문화연구 보고서 발행	금산의 역사, 민속, 생태 자료 조사	
5	금산선사유적보고서발간	· 금산 선사유적 보고서 발행	이미 조사된 선사유적지표조사	
6	이야기가 있는 지명찾기	·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의 지명 발굴, 조사, 생태관광자료 활용	각 마을의 지명, 특산물, 전통 문화 발굴	
7	문화학교운영	· 일시 : 3~8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강좌수 : 4개강좌	문예창작, 서예강좌(초급), 한국화(초 급), 생활도자기 강좌를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8	금곡서회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 회원 · 참여인원 : 45명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고급 과정 서예 전시회 개최	
9	창현회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 참여인원 : 30명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된 고급 과정 -미술전시회 개최	
10	풍각쟁이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판소리, 민요 동호인 단체 · 참여인원 : 30명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 쟁이의 국악공연	
11	금강민속축제	· 일시 : 7.30~31일 · 장소 :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 여인원 : 15,000명	금산농악판굿, 물떼기농요, 농바우끄 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 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비단골산꽃축제	· 일시 : 4.1~30일 · 장소 : 군북면 산안리 · 참여인원 : 12,000명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 인 축제 구성	
13	금산농악축제	· 일시 : 12월 31일 · 장소 :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 참여인원 : 12,000명	금산농악 매굿과 큰가을리기, 제야 의 북소리, 촛불켜기, 불꽃놀이, 초 청공연 등	
14	금산민속연보존회	· 일시 : 1~12월 ·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의 현장, 금산문화를 홍보 하는 장소 · 참여인원 : 40명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5	장동달맞이축제	· 일시 : 2월 22일~23일 · 장소 : 금산을 양지리 장동마을 · 참여 : 20,000명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인삼,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 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16	나아내풍물단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동호인단체 나아내풍물단 · 참여인원 : 45명	-각종축제 금산 풍물굿 공연 금산문 -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17	금산문화예술축제	· 일시 : 11.10~14일 · 장소 :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 참여인원 : 6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종합문화예술 제로미술, 서예전시회 개최	
18	삶꽃문화사랑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군 일원 · 참여인원 : 100명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사랑	
19	좌도시동인회	· 좌도시동인회 작품 및 특집 수록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20	청소년동아리활동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매주 수요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페 풍물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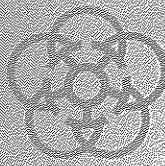


2005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1	청소년어울마당	· 일시 : 7월 31일 · 장소 : 금강놀이마당 · 참여인원 : 100명	청소년 여가 활동과 탐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비단강 금강탐사 기행	
22	충청남도지사기 주부풍물경연대회	· 일시 : 6월 4일 · 장소 : 충남당진군석문면 · 참여인원 : 45명	충청남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나아내풍물단 참가 장려상 수상	
23	산꽃시동인회	· 산꽃시동인회 작품 및 특집수록	산꽃시동인지 발간	
24	금산주부풍물보급사업	· 주부들의 여가문화 창출	나아내주부풍물단 공연	
25	실용음악보급사업	·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 문화 창출	그룹사운드 「파랑새」	
26	금산소년소녀합창단	· 일시 : 1월~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 45명	매주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 합창단	
27	사물놀이	· 사물놀이 기능 전수와 여가문화 창출	사물놀이 토리패	
28	청소년토리풍물단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 : 50명	매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패 풍물	
29	문화소모임 (동아리)활동	· 일시 : 3~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신장	
30	외국인주부 우리문화배우기	· 일시 : 3~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 50명	금산군내 거주 외국인주부 (가정)의 효과적인 한국정착, 한국일상 생활의 이해와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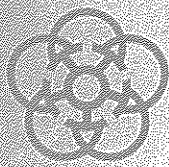
삼꽃문화 사랑



2005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갑신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5.1.3. 14: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250명	각급 기관 및 단체장들과 많은 문화계인사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함	
2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 일시 : 2005.2.23. 14: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앞마당 · 참석인원 : 300명	충남문화관광해설사회가 주관하여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경연이 펼쳐졌고, 가훈 써주기, 종이공예전시회, 소원빌기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3	계백장군 제향	· 일시 : 2005. 4. 15. 09:00 · 장소 : 부적면 계백장군묘 · 참석인원 : 400명	유림대표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백장군의 충절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손에게 전하고자 거행 함. 백제문화박물관이 계백장군묘역 내에 개관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관하였으며, 은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0명도 견학하였다.	
4	제 15회 충청남도지사 민속대제전	· 일시 : 2005. 5. 4. 10:30 · 장소 :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관 · 참석인원 : 시·선수단 40여명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줄넘기, 힘자랑에 논산시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참가함.	
5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 기간 : 전반기(3월~7월) 후반기(9월~11월) · 참가인원 : 시민 및 단체 전반기 600명	논산 8경을 대부분 제외하고, 유서깊고 아름다운 문화유적지를 선정하여 예학과 충절의 고장 논산을 시민에게 알리는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	
6	논산시 문화재 백일장, 그림 공모	논산시 각 초·중·고에 6월중 문화재와 관련 된 작품을 공모, 그림 566점과 원고 179부가 접수되 심사 및 상장 각 학교별로 우송	논산시 각 초·중·고에 논산의 문화재와 관련 된 주제로 그림과 원고를 공모하여 논산의 문화재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하였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7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	· 일시 : 2005.6.8. 18: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 400명	강경상업정보고, 논산여자상업고의 합주 공연과, 논산레이디스양상블의 플롯연주, 대건고 중창단의 합창이 아름다운 음악회를 학생과 가족, 시민에게 선사함.	
8	논산시 읍·면·동 노인 장기 대회	· 일시 : 2005.6.28. 08:30 · 장소 : 놀미회관 · 참석인원 : 150명	관내 읍·면·동 별로 각 노인정에서 추천한 선수들이 참가하고, 시민들이 함께 구경하는 대회. 총 64명의 출전선수 가운데 취암동 권성진씨가 1등을 차지 함	
9	서예회초 대회	· 일시 : 2005.9.24 10: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참석인원 : 100명	논산 서예발전과 서예인들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대회를 개최, 대상 일반부는 전경자씨가 학생부는 썬별여중 이보람 학생이 차지 함. 11월 4일 전시회와 함께 시상식 개최	
10	문화체험 프로그램 (1단계)	· 기간 : 2005.6.1~ 10. 31 · 참석인원 : 230명 (1단계)	통합복권기금으로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1단계사업은 복지시설 여러분과 일곱차례에 걸쳐, 예약의 고장과 충절의 고장임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몸이 다소 불편해도 쉽게 찾아가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유적지를 답사하고, 예절교육과 다도 체험 함.	
11	2005강경절갈축제 "축제연계관광"	· 기간 : 2005. 10.20 ~ 24 · 장소 : 강경포구 및 일대 (강경절갈축제장) · 참석인원 : 200여명	축제객을 대상으로 고장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축제도 즐기는 동시에 예학 과 충절의 고장 논산을 널리 알리는등 참가자들의 호평을 얻음. 오전에는 관측사, 미내다리, 오후에는 윤증고택, 종학원을 답사하였음.	
12	「논산문화」발간	· 2003년 봄호부터 매회 8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2,000부씩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찬 내용으로 연4회 계간지로 발간. 문화위원회, 전국문화원, 관내 기관 단체, 출항인사 등 배포.	



2005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3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연극공연	• 기간 : 12월 7일 • 참석인원 : 500명	논산극단 '셋강'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적 소양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 시켰 으며, 동시에 연극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킴.	
14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 일시 : 2005.12.29 • 장소 : 논산 오거리 예식장 • 참석인원 : 250명	한해를 보내며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시를 낭송하는 가족은 물론 시와 음악을 감상하는 시민들은 잊지 못할 송년의 밤을 만들.	
15	『논산의 지리지』 발간	2005년 12월 발간	삼국사기지리지, 삼국유사, 고려사지리지, 신증동 국여지승람, 호서읍지등 논산과 해당되는 부분 을 번역 윤문 발간.	
16	『논산문예』 제13집 발간	6월에 실시했던 논산시 문화재와 관련 된 원고 공모에서 입상한 우수작 을 모아 문예작품집으로 발간	문화원 주최로 시행 된 논산시 문화재 백일장 공모에서 입상한 우수작품을 모아 문예지 발간	
17	논산의 읍·면·동지 자료수집	• 사업기간 : 2005.1.1 ~ 12.31	논산시의 각 읍·면·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민속, 풍습, 전설등의 자료 수집 정리.(부창, 취암, 연무, 강경)	



신년교례회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계백장군 제향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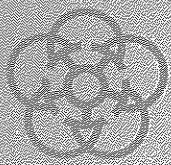


문화제험 프로그램

논산문화
2005 VOL.97
가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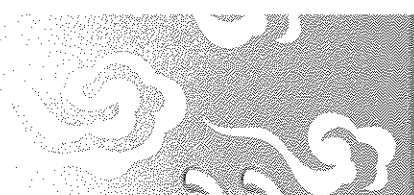
계간지 논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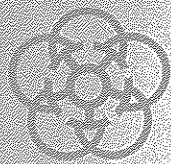
2005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대보를 맞이 민속행사	· 일시 : 2005.2.25 · 장소 : 당진문화원 · 인원 : 200여명	우리민족 고유의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지역민의 화합의 장 마련위해 줄다리기, 투호등 실시	
2	해외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5.3.25~29 · 장소 : 베트남 · 인원 : 문화가족50명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하노이, 하롱베이를 탐방 하여 우리문화와 비교 체험 함.	
3	제1차 향토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5.4.27 · 장소 : 대전 · 인원 : 문화가족40명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고구려 대탐험전" 및 "철화분청사기 특별전" 관람	
4	제3회 왕 벚꽃 어울림 마당	· 일시 : 2005.5.11 · 장소 : 당진문화원 · 인원 : 1,500여명	"2005 문화광광부 자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가수 김지애, 김상배등의 노래와 함께 신나는 어울림 마당 실시	
5	제2차 향토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5.6.24 · 장소 : 남양주 · 인원 : 문화가족40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목원인 광릉수목원과 봉 선사등을 답사함	
6	우리 춤의 향기를 찾아서	· 일시 : 2005.7.12 · 장소 : 당진문화원의전당 · 인원 : 1,000여명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한국의 얼이 서려 있 는 전통춤을 무대화한 작품을 통해 지역민과 감 동의 시간을 함께함.	
7	당진문화 23호 발간	· 일시 : 2005.7.30 · 발행부수 : 2,000부	당진의 문화소식 및 정보지	
8	오카리나 제작체험	· 일시 : 2005.7.26 · 장소 : 당진문화원 · 인원 : 20명	흙으로 도자기 처럼 제작하여 영혼을 울리는 소 리를 내는 오카리나 악기를 직접 제작 체험 함.	
9	국악체험 교실 운영	· 일시 : 2005.8월~10월 · 대상 : 초,중,고교생 · 인원 : 60여명	곤내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고전무용과 민 요장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10	광복 60주년기념 "아 제암리 만세" 공연	· 일시 : 2005.7.21 · 장소 : 당진문화원 · 인원 : 1,500명	경기도 3.1운동 최대 격전지이며 희생양이 됐던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뮤지컬 공연.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제17회 남이흥장군문화제 학생백일장	· 일시 : 2005.9.9 · 장소 : 충장사 · 인원 : 1,000명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이흥장군 의 살신위국 정신을 기리는 백일장 실시	
12	제3차 향토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5.9.9 · 장소 : 예산, 홍성 · 인원 : 문화가족45명	인근지역의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을 답사함. (수덕사, 한용운 선생 생가, 그림이 있는 정원)	
13	1단계 복권기금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2005.9.22 · 대상 : 저소득층 주민 · 인원 : 90명	관내 유적 및 산업현장 탐방 실시	
		· 일시 : 2005.9.29 · 대상 : 당진군민 · 인원 : 90명	관내 유적답사와 더불어 나만의 책만들기를 통해 한 장의 종이 한권의 책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체험함.	
14	2단계 복권기금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2005.10.14 · 대상 : 낙도 초등학교 · 인원 : 45명	"전통과 현대로의 타임여행"을 주제로 1박 2일 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비교 체험 실시.	
		· 일시 : 2005.10.21 · 대상 : 문학 동호인 · 인원 : 40명	"시인과 함께 떠나는 시의 향수를 찾아서"를 주 제로 문학 동호인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실시 (심훈, 이효석 등)	
		· 일시 : 2005.11월중 · 대상 : 저소득층 주민 · 인원 : 90명	"아! 대한독립만세의 그날 현장속으로"는 관내 · 외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유서 깊은 곳을 찾아 직접 체험함.	
		· 일시 : 2005.11월중 · 대상 : 외국인 근로자 · 인원 : 40명	"사랑해요! Korea 우리의 멋과 맛을 느껴봐요" 는 국제결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음 식 만들기, 국악체험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	
15	제4차 향토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5.11월중 · 인원 : 문화가족45명	지역 향토문화를 이해하는 현장 경험	
16	문화학교 수강생발표회	· 일시 : 2005.10.28~30 · 장소 : 당진문화원 · 인원 : 200명	문화학교에서 배운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 마련 (전시 및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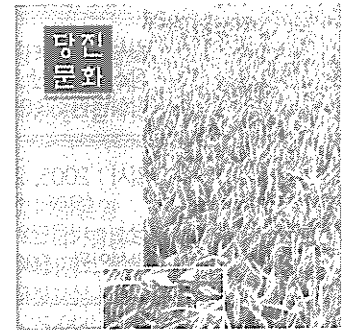
2005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7	볼쇼이 합창단 초청 공연	· 일시 : 2005.10.31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 인원 : 1,000여명	세계적 명성의 러시아 볼쇼이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음악 감상.	
18	KBS 국악 관현악단 연주회	· 일시 : 2005.11월중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 인원 : 1,000여명	KBS 국악 관현악단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우리의 음악을 감상함.	
19	서양화교실 작품발표회	· 일시 : 11월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출품 : 50여점	초등학교 미술선생님들로 이루어진 당진문화원 부설 서양화반에서 출품한 작품 전시회.	
20	당진지역 독립 운동사 발간	· 일시 : 2005.12월중 · 발행부수 : 2,000부	당진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엮어 지역민에 보급	
21	당진문화 24호 발간	· 일시 : 2005.12월중 · 발행부수 : 2,000부	당진의 문화소식 및 정보지	
22	사랑의 문화봉사단	· 일시 : 연중(월2회) · 장소 : 소망의집 등	2004년부터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학교 수강생, 신주꾸미용실 중심의 봉사활동 전개	
23	오카리나 연주단 창단	· 일시 : 2005.7.26 · 장소 : 당진문화원 · 인원 : 40명	문화학교 오카리나반을 중심으로 연주단을 창단하여 각종 행사등에 연주활동 전개	
24	향토유물 수집	· 일시 : 2005.3.17 · 장소 : 당진문화원 · 유물 : 45점	향토사료관 조성을 위한 지역 향토유물 구입	
25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연중 · 강좌 : 15개 · 인원 : 1,300명	민요, 가요, 일본어, 종이접기, 스포츠댄스, 미술, 수채화, 노인건강, 아로마테라피, 민속놀이, 오카리나, 고전무용, 건강택견체조, 꽃꽂이, 짚풀공예 교실 운영	



우리춤의 향기를 찾아서



당진문화 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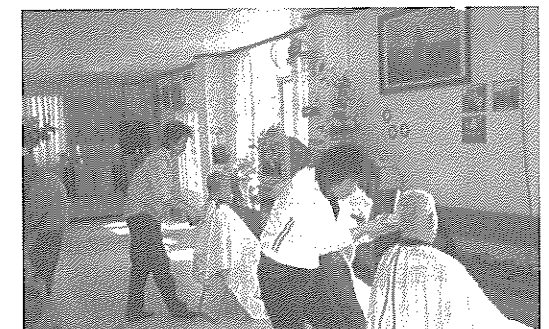
"아 제암리 만세"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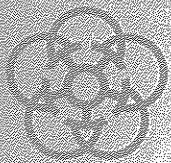
1단계 문화체험



2단계 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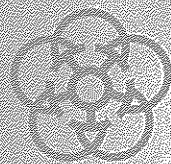
사랑의 문화 봉사단



2005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신년 해맞이행사	· 일시 : 2005. 1. 1. · 장소 : 옥마산 전망대 · 참석인원 : 3,000명	· 신년1월1일 해맞이 행사로 시민 안녕 기원 및 새해 새로운 다짐 기회부여 · 신년 맞아 시민 화합의장 마련	
2	마을단위 전통민속행사지원	· 일시 : 2005. 2. 22. (음력 : 1월 14일) · 장소 : 마을단위 장소 · 참석인원 : 500명	우리 전통민속행사 고사, 서낭제, 다리제, 산신제 등을 계승발전 시켜나가며 주민 안녕 기원	
3	문화가족문화 유적답사	· 일시 : 2005. 5. 20. · 장소 : 도내 문화유적지 · 참석인원 : 120명	· 우리고장 문화유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제고 기회부여 · 문화회원 화합 도모	
4	한내돌다리밟기 민속축제	· 일시 : 2005. 10. 4. · 장소 : 대천천 한내 돌다리현장 · 참석인원 : 2,000명	· 우리 고장 유형문화재 행사인 한내 돌다리 밟기 민속 행사 재현 · 각종민속행사 병행 실시	
5	도서주민 문화유적 답사행사 개최	· 일시 : 2005.10월.11월 · 장소 : 고려역사문화 탐방(충북) · 참석인원 : 160명	· 평소 문화유적을 접하기 힘든 도서민들 에게 역사문화 탐방기회를 제공하므로 우리 문화 새로운 인식 제고기회 부여 · 문화원에대한 새로운 인식 및 위상 제고	
6	청소년 미술서에 백일장 실기대회	· 일시 : 2005. 11. 25. · 장소 : 문화원강당 문예회관 · 참석인원 : 300명	· 초, 중, 고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서예, 백일장 실기대회 개최로 학생들에게 자기능력개발 및 창작활동기회부여 ·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공	
7	청소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	· 일시 : 2005. 11. 28.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 참석인원 : 200명	·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가락을 재인식 시키고 계승 발전 시켜 나가고자 학교별 경연대회 개최	
8	소외지역청소년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5. 12. 9. · 장소 : 관내 문화유적지 · 참석인원 : 80명	·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 문화 유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알릴기회제공 · 향토문화유산 홍보	
9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시회	· 일시 : 2005. 12. 20.부터 3일간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참석인원 : 150명	· 문화학교 회원들의 작품을 연말에 전시 하여 문화학교 운영홍보 여가활용 기회제공 · 일반인들에게 작품 감상 기회제공 -세예작품 35점 -한국화작품 20점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향토작가 초대전 개최	· 일시 : 2005. 12. 30.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참석인원 : 200명	· 출향작가 및 향토작가들의 작품 100 점 전시 시민들에게 감상 기회 제공 · 문화원에대한 위상 제고	
11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년중실시 · 장소 : 문화원 소강당 서예교실 · 참석인원 : 1,100명	· 서예교실 운영 -주부 여가활용기회 제공 -참석회원 : 30명 · 한국화교실 운영 -시민 여가 활용 기회 제공 및 자기 기량 개발 -참석회원 : 25명 · 서각교실 운영 -서각 애호가 취미활용 기회 제공 및 자기 기량 개발 -참석회원 : 20명 · 국악교실 운영 -민요 시조 장구 장단지도로 시민 여가활용 및 우리가락 계승발전 -참석회원 : 30명 · 가야금병창교실 운영 -우리 전통악기 가락 계승 발전 자기 기량 개발 -참석회원 : 20명	
12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 일시 : 2005. 10. 22. · 장소 : 장군묘소 청소면 진족리 · 참석인원 : 500명	장군의 애국 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길이 받들고자 추모제향 행사 봉행	
13	도만호 김성우 장군 추모제향	· 일시 : 2005. 11. 1. · 장소 : 장군묘소 청라면 라원리 · 참석인원 : 300명	장군의 애국 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길이 받들고자 추모제향 행사 봉행	
14	집성당 자료 번역 사업	· 일시 : 2005.년중 · 주관 : 대천문화원 · 조사 : 향토사 연구회	웅천지역 선비들의 활약사항을 기록한 집성 당 자료를 번역 책자발간으로 향토 사학자료 및 문화자료로 활용	
15	보령의 소리 조사 및 책자 발간	· 일시 : 2005. 년중. · 주관 : 대천 문화원 · 조사 : 국악연구 학자 자료조사 및 악보 제작 용역	보령의 소리를 조사 발굴 하여 소리를 계승 발전 시켜나가며 향토 사학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함	



2005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김좌진 장군 추모



도서학생 우리고장 문화유적답사



제29회 미술·서예·백일장 실기대회



제7회 회원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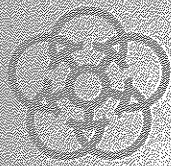
제13회 한내돌다리밟기 민속축제



우리민속 체험행사

2005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제6회 백제토기 만들기 대회	·기간 : 2005. 12월 중 ·장소 : 백 제 요 ·참여인원 : 300여명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백제토기 만들기 행사	
2	어린이 역사교실	·기간 : 2005. 5. 1~11. 19 ·장소 : 전국 주요 유적지 ·참여인원 : 100여명	군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월1회 사적 답사 및 영화감상 실시	
3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기간 : 2005. 12월 중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위 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4	우리문화 우리민속 한 마 당	·기간 : 2005. 12. 22 ·장소 : 부여군민회관 ·참여인원 : 200명	동지 팔죽썰먹기, 떡만들기 등 각종세시 민속 제현	
5	문화현장탐방교육	·기간 : 2005. 11. 5~12. 22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30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무안백련 축제, 파평 윤씨 묘사 미라전, 진품생활사 박물관 등 답사	
6	제3회 공남지 연 꽃 축 제	·일시 : 2005. 7. 2~7. 26 ·장소 : 공남지(사적135호) ·참여인원 : 30만여명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공남지에 연꽃축제 를 개최함으로 관광객을증진하고 연꽃 부 채 만들기 등 10여개의 체험장과 축하공연, 사생대회, 경연행사를 다채롭게 운영함	
7	2005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	·기간 : 2005. 4. 9~4. 10 ·장소 : 청소년 수련관 (소강당) ·참여인원 : 1,000여명	2005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우리지역 출신 신동엽 시인을 기념하고 시정신을 기 리고는 추모제, 문학의 밤, 시극공연, 문학 기행을 개최함	
8	제51회 백제문화제	·기간 : 2005. 10. 3~10. 6 ·장소 : 부여군일원 ·참여인원 : 3만 여명	제51회 백제문화제 사비정도축제를 시작으 로 각종 제전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함	
9	우리는 문화가족 운	·기간 : 2005. 1. 10~2. 30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25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민속놀 이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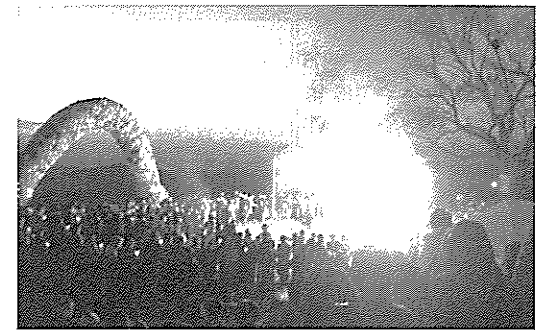


2005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 기간 : 2005. 4. 15 · 장소 : 구드래 조각공원 · 참여인원 : 500여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도단위 청소년 대상 백일장	
11	2005 문화학교	· 일시 : 2005. 6. 1~12. 23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생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한국어, 일본어, 목공예 강좌 개설 운영	
12	제7회 성홍산 해맞이축제	· 기간 : 2005. 1. 1. · 장소 : 임천면 성홍산성 · 참여인원 : 5,000명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촛불기원, 새해소망 기원제, 소원지 풍선날리기, 새해운수보기, 희망엽서 보내기 등 실시	
13	신년교례회	· 기간 : 2005. 1. 3. · 장소 : 청소년수련관 · 참여인원 : 1,000여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등 발간	
14	홍산대첩문화제 육성연구용역	· 기간 : 2005. 3. 2~9. 30 · 장소 : 부여문화원 · 부수 : 100부	홍산지역의 전통문화 복원과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홍산대첩문화제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용역의뢰	
15	시인 신동엽 문학도록 발간	· 기간 : 2005. 3. 2~6. 30 · 장소 : 부여문화원 · 부수 : 2000부	신동엽 시인의 각종 사진, 원고 등을 묶은 국내 최초의 문인도록 발간	
16	영화감상교실	· 기간 : 2005. 1. 10~12. 30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300여명	어린이·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해설 및 감상회	
17	관광정보센터운영	· 기간 : 2005. 1. ~12. 31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7,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18	1단계 통합 복권기금 지원사업 문화체험	· 기간 : 2005. 11. 1~12. 9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400여명	군내 문화 소외계층에 테마별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6회)	
19	2단계 통합 복권기금 지원사업 문화체험	· 기간 : 2005. 11. 26~11. 28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400여명	군내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백제 문화유적답사체험	



어린이 역사교실답사



2005년 성홍산 해맞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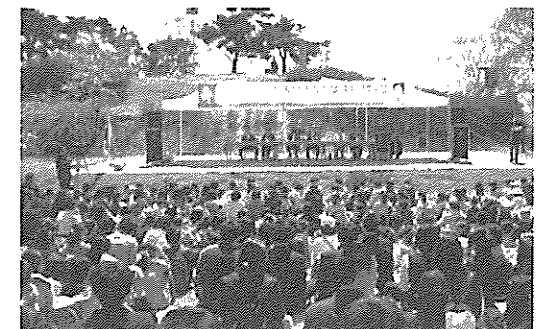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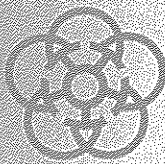
문화현장탐방교육



통합복권기금 지원사업 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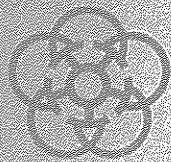
2005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2005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서산민속지 재발간	· 일시 : 1월 · 시행방법 : 지난1991 년도 발간한 서산민속 지를 재 발간하배포함	서산의 민속을 총체적으로 망라해 1991년 발간 한 서산민속지 재고의 절대부족으로 이를 재판 하여 학계 및 향토사가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서 산의 민속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함	
2	문화의식 강좌	· 일시 : 7월27~28일 · 장 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각 읍·면·동 회원 및 일반인 300명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의식을 제고 하는 문화의식 순회강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분 원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도모함.	
3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시 : 11월 · 대상 : 서산문화원 이사 및 분원장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현장을 답 사하며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호의 식과 우리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4	서산문화대상 시상	· 일시 : 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수상자 : 1명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 여 시상함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5	청소년문화상 시상	· 일시 : 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수상자 : 총 9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 3개 부문의 청소년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 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6	이달의 문화 인물 기념행사	· 일시 : 4월9일 · 장소 : 부여 · 시행방법 : 서산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시행 (1회)	정부가 지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의 업적을 기 리고 숭고한 뜻을 조명해 보는 행사를 실시함.	
7	정보 자료실 운영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정보자료실 · 대상 : 문화가족 및 일반인	정부가 지정한 작은 도서관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신간도서 구입, 각종 영상자료 물 구입, CD구입, 문화원간 배부 서적 및 각종자료 등을 통해 내실을 확충해 가며 지식정보 제공의 산실 로 널리 활용하여 향토사 중심의 특화된도서관 으로 발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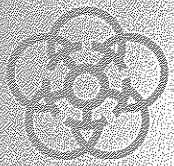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사이버문화원 운영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사이버 문화원 · 대상 : 회원 및 일반인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 문화 원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 정보 통신 체계를 활성화 하고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 터 베이스화하여 지역문화및 디지털 지역정보센 타로 운영함.	
9	향약관 운영	· 일시 : 10월 25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시행방법 : 서산지역 문화 발전연구원 회원들과 함께 학술발 표회를 가짐	향약관 운영을 통하여 파악된 서산출신 및 서산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 들이 지역의 연고를 갖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 록 기반을 조성하고 서산관 논문으로 학술발표 회를 가짐	
10	초대전 제3회 내포 바람전	· 일시 : 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시행방법 : 중고등학교 현직 미술교사들이만든 작품을 대상으로 전시회 를 실시함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한 전시회 개최	
11	문화원 평생교육강좌	· 일시 : 3월~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시행방법 : 해당 전문 강사를 초빙 실시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학교 운영 지침이 바뀜 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일반교양강좌와 지역 문화학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강좌를 평생 교육강좌로 개설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	
12	성년례	· 일시 : 5월18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만20세가 되는 남녀10명 (총20명)	만20세가 되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 관례, 계례의 의미를 담은 성년례를 시행함.	
13	서산의 노동요 자료수지 및 책자발간	· 일시 : 1월~12월 · 시행방법 :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집 제작함.	서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전통 노동요를 체계적 으로 정립하여 과거 조상들의 삶의 양 식과 선 조들의 얼을 느낄수 있도록 함.	
14	스산의 숨결	· 일시 : 1월~12월 · 대상 : 회원,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 (12회)	문화원의 소식지인 스산의 숨결을 36면 2,500부를 발간하여 회원 및 출향인사, 전국문화원등에 보급하여 향토문화교양지, 향토사료지로 발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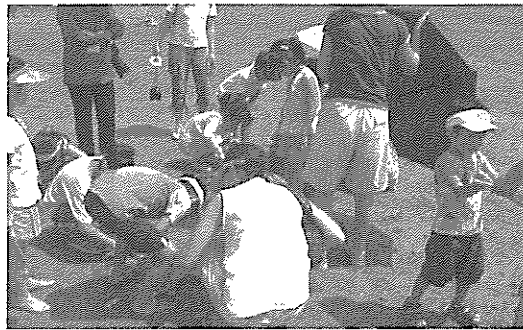
2005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5	향토사료관 운 영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시행방법 : 백제토기류를 중심으로 전시해 놓은 공간에 일반시민들의 소장품을 위탁받아 전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 공간을 마련함	향토사료관의 상시 운영으로 지역 향토사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산교육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토사료관을 연중 운영함.	
16	서산군지 번역 및 책자발간	· 일시 : 1월~12월 · 시행방법 :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번역하고 책자로 발간함	1926년 발간한 서산군지는 당시 서산의 현황을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한문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서산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17	지역문화학교 운 영	· 일시 : 3월~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주부 및 일반시민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적 감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플룻교실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 하여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	
18	제15회 충청남도 민속대제전	· 일시 : 5월4일 · 장소 : 서천군 · 경기종목 :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줄넘기, 힘자랑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 예술의 계승 발전으로 도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제15회 충청 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에 참석함.	
19	고3 수능생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 일시 : 12월 · 대상 : 수능 마친 고3학생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사회일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고, 가족과 사회에 일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질을 함양시킴.	
20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 일시 : 9월~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서산시민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실현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복지증진시킴.	
21	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수집	· 일시 : 1월~12월	우리지방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중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아 소홀히 관리되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관리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료를 수집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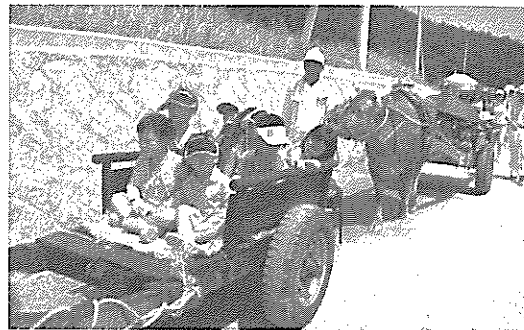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2	청소년 연극제	· 일시 : 10월11~13일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 시행방법 : 서산 시내 학교 연극반 대상으로 추 진함.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예술에 관한 감성을 길러, 균형있는 청소년을 지향하며 문화시대를 대비하는 소양을 기름	
23	청소년 동아리 육성	· 일시 : 11월 · 시행방법 : 서산 시내 학교 동아리반 대상으로 추진함.	특성화된 동아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며, 자율·능동·창 의적인 청소년 동아리 문화를 창출한다.	
24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7월~11월 · 시행방법 : 장애인대상의 영화관람, 천연염색, 외국인 주부대상 전통 음식만들기, 문화소외 지역학생 문화유적답사	문화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 복지를 실현함.	
25	제7회 청소년문학제	· 일시 : 9월19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서산소재의 초,중,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백일장의 개최와 이를 통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높여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6	찾아가는 다도문화교육	· 일시 : 7월~11월 · 시행방법 : 오지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다도 예절교육을 실시함.	문화적 혜택이 적은 오지지역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우리의 전통차 문화를 보급하여 학생들에게 다도예절교육을 통해 우리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27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 일시 : 6월~11월 · 대상 : 도서지역 초등 학생, 지역주민,미취학 아동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감수성 향상 및 교육을 통해 자아의 발견과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며 마을주민이 화합되어 마을이 흥이나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	
28	충남평생교육 축제 참가	· 일시 : 10월11~12일 · 장소 : 보령	충남 평생교육축제에 서산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요가와 전통무용체조 부문에 참가함.	



2005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회문화 예술교육



사회문화 예술교육



차범석선생 초청 강연회



청소년 문학제



성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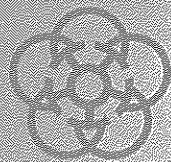


학술 발표회



2005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영화상영 프로그램	· 일시 : 2005.1월~12월 · 장소 : 문화원2층강당 · 참석인원 : 매회30여명	서천문화원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소외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토요일장을 계획하여 성인영화, 어린이만화영화, 극장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할 수 있음.	
2	제7회 기벌포 대보름제	· 일시 : 2005.2.23 · 장소 : 신성리갈대밭 · 참석인원 : 3,000여명	길놀이, 장승제, 평화기원연날리기대회, 윷놀이, 굴렁쇠굴리기, 제기차기, 달집태우기등이 펼쳐졌고 체험의 장으로는 투호 및 인절미 떡치기, 보름음식나누기등이 있었음.	
3	서천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눔의 영화관	· 일시 : 2005. 3. 12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300여명	1부 : 청소년 나눔장터운영 추억의 뽕기 체험행사(떡볶이,오뎅국등) 2부 : 오페라의 유령 영화상영	
4	향토민속발굴사업 "가양 소곡주 발굴"	· 일시 : 2005.4.4~10.4 · 연구계약자 : 한국주류 산업연구소장 윤진원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출판이 가능한 최종보고서 3부, 연구진행과정이 담긴 CD를 제출하여야 함.	
5	문화지 발간	· 일시 : 2005.연중(6월) · 책명 : 문화서천 · 발간부수 : 600권	서천문화원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지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에 '문화서천' 창간호를 발간함.	
6	제5회 학생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5. 6.11~12 · 장소 : 지리산 일원 · 참석인원 : 40여명	11일 : 성삼재-노고산장-문학속의 지리산특강-편지쓰기-별자리관찰 12일 : 노고단정상,자연생태체험-노고단산장-성삼재-실상사	
7	서천 청소년 문화예술 돌살이(캠프)	· 일시 : 2005.8.17~18 · 장소 : 서천군민체육관 · 참석인원 : 120여명	17일 : 천혜지는마당(단팹찾기게임) 모둠별 티(옷)만들기,모둠별탐사활동, OX퀴즈, 레그레이션 18일 : 모둠별 자료정리하기,모둠별 자료정리에 대한 소개및발표, 설문서 및 소감문 작성으로 캠프	
8	죽은 시인의 사회 뮤지컬 공연	· 일시 : 2005.9.10.15시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300여명	교실속의 갇힌 아이들의 꿈과 사랑,그리고 인간애와 자유를 가르친 한 교사의 감동적인 드라마! 톰슐만(Tom Schulman) 원작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국판 세미뮤지컬	



2005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문화체험프로그램 '금강하구 및 서천해 안생태문화체험 프로 그램'	· 일시 : 2005.10.15. · 장소 : 서천군 일대 · 참석인원 : 80여명	금강과 서해안에 이르는 기수지역에 대한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 스스로 지속가능한 지 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진행함.	
10	제6회 학생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5.10.30(일) · 장소 : 서울 고궁 · 참석인원 : 60 여명	서울 고궁(경복궁, 창덕궁, 민속박물관, 고궁박 물관등)을 견학함으로 청소년기의 건전한 정서 를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함.	
11	제5회 기벌포예술제	· 일시 : 2005.10.29 -11.4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3,000여명	서천문화예술단체들의 공모를 받아 서천문화원 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전시행사, 공연행사, 발표 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제를 진행함.	
12	제32회 청소년 문예 백일장 대회	· 일시 : 2005.11. 중순 · 장소 : 서천문화원사 · 참석인원 : 100여명	서천군내 초, 중, 고 학생들의 글짓기종목을 통하여 자기소질개발과 능력발휘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열어 등급별로 심사하여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13	서천 옛날영화제	· 일시 : 2005.11.11-13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300여명	1.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2.오발탄 3.맨발의 청춘 4.지옥화 등 상영예정	
14	서천 청소년 문화 예술제	· 일시 : 2005.11.25-27 · 장소 : · 참석인원 : 300 여명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정서를 형성하고자 함.	
15	월남 이상재 선생학술 세미나	· 일시 : 2005.12월 중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150여명	월남 이상재 선생이 우리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학술적 제조명.	
16	문화학교	· 일시 : 2005.11-2006.2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60여명	문화향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도록 생활도 예, 한지공예, 태극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 화학교를 운영하고자 함.	
17	명사 초청 강연	· 일시 : 2005.12월 초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300여명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문화인 이슬람문화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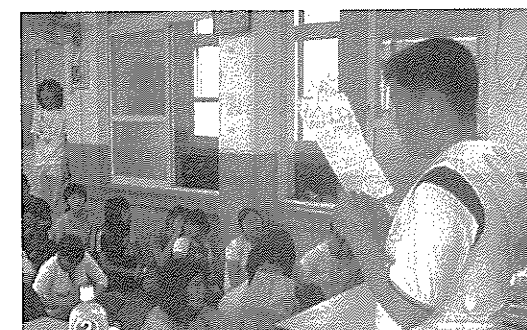
기벌포 예술제



기벌포 대보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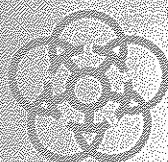
나눔의 영화관



청소년 문화예술캠프



학생 문화유적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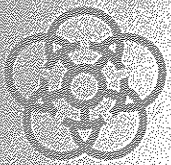


2005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컴퓨터교실(Ⅰ)	• 일시 : 2005. 9.5~ 10.18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5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 교육	년30회
2	한문교실	• 일시 : 2005.8.1~10.15 (매주 월~수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25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한자	년30회
3	서예교실	• 일시 : 2005. 10~12월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궁체지도	년30회
4	컴퓨터교실(Ⅱ)	• 일시 : 2005. 10.24~ 12.2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5명	컴퓨터 중급(한글2004, 포토샵) 교육	년30회
5	여성취미교실 (꽃꽂이강습)	• 일시 : 2005. 9/6 9/13 9/27 10/4 10/11 10/18 10/25 11/1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60명	생활꽃꽂이 지도	년8회
6	청소년문화 강연회	• 일시 : 2005. 11~12월 • 장소 : 관내학교 • 참석인원 : 1,000명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에 관한 강의	년5회
7	청소년음악회	• 일시 : 2005. 11월중 • 장소 :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 외 관내학교 • 참석인원 : 800명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함양 기회마련	년2회
8	제23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 일시 : 2005. 10. 29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32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장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은 11월중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제16회 애향의식고취 그림그리기	• 일시 : 2005. 10. 29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35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공모, 시상	시상은 11월중
10	제8회 경로효친 회화대회	• 일시 : 2005. 10. 29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60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효친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시상은 11월중
11	입상작품집 발간	• 발행 : 2005. 11.30 • 발행부수 : 500부 257작품(국판칼라)	글짓기, 그림, 회화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500부
12	제15회 내고장문화유적 순례	• 일시 : 2005. 10/25 10/26 11/3 11/4 11/17(예정) • 장소 : 천안시일원 • 참석인원 : 220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것에 대한 긍지와 애 향심을 함양시킴	년5회
13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 일시 : 연중 • http://sunghwan. cult21.or.kr	각종 지역 정보 및 지역문화활동 홍보	
14	노인교양강좌	• 일시 : 2005. 7월~12월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 6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년20회
15	세시풍속놀이	• 일시 : 2005. 2. 25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0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민속놀이계승	년1회
16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2005. 11월중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 관람인원 : 600명	내고장 출신의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 (25작품)	년1회



2005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7	문화원홍보 팸플렛제작	• 발행 : 2005. 11월중 • 발행부수 : 1,000부	성환문화원의 활동상황등을 홍보하는 팸플렛제작	1,000부
18	국역 조선환여 승람(천안편)	• 발행 : 2005. 11월중 • 발행부수 : 1,000부 4*6배판	조선환여승람(천안편)한문풀이, 해석, 역주책자 발간	1,000부
19	우리고장 문화 알리기	• 일시 : 2005. 5/25 11월중 • 장소 : 백제문화권 일원 • 참석인원 : 80명	지정문화재와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하 면서 향토의식 고취 를 위한 설명을 병행하고 향토문화 안내책자 및 문화원소개전단 배포	년2회
20	2005통합복권 기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 2005. 7/14 7/22 7/26 8/1 11/5 • 장소 : 천안관내유적, 아산, 공주 • 참석인원 : 220명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행	년5회
21	지역 "문화홍보관" 조성(직산역)	• 일시 : 2005. 6월 • 장소 : 직산역 구내 • 방법 : 이동식안내판 설치 6개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애향의식고취 및 다중공공기관에서의 문화홍보 역량제고	년중
22	문화원 원사개, 보수	• 일시 : 2005. 9/8~15 • 장소 : 본원	노후된 원사를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	년중



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프로그램



노인 교양강좌



꽃꽃이 강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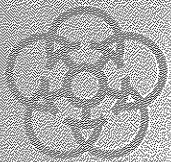
컴퓨터교실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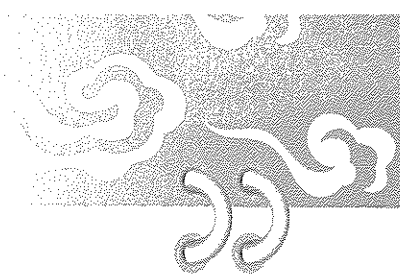
신년맞이 윷놀이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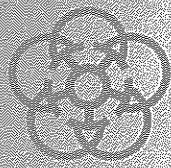
2005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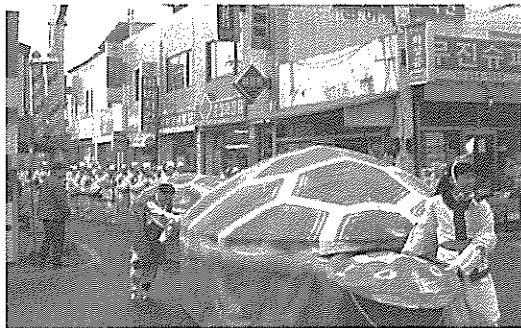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민속놀이한마당	•일시 : 2월22일 •장소 : 아우내장터 •참석인원 : 500명	천안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 하며 지신밟기와 거북놀이를 재현하여 민속놀이의 계승발전은 물론 고장의 정체성과 화합을 이끌어 냄.	
2	아우내문화원장이 취임식	•일시 : 3월29일 •장소 : 본원2층강당 •참석인원 : 200명	이임(離任)하는 조성민 원장과 취임(就任)하는 우용제 신임 원장의 이·취임식을 개최	
3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시 : 9월7일/ 9일 •장소 : 백제문화권외1곳 •참석인원 : 180명	문화적 혜택의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민 및 소외 계층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주·부여 박물관, 성곡사, 석탄박물관, 조각공원 등 문화·유적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함.	
4	중요 및 서예교실	•일시 : 7월25일~8월20일 •장소 : 본원도서관 •참석인원 : 50명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한자등의 프로그램으로 나라에 충성을, 부모에 효도하는 삼강오륜등을 가르침.	
5	백일장 및 사생대회	•일시 : 9월28일 •장소 : 아우내장터 •참석인원 : 500명	초·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문예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6	사물놀이 강습회	•일시 : 10월1일~ •장소 : 아우내장터 •참석인원 : 500명	지역민을 대상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민속 예술인 농악놀이를 지역민에게 기량을 습득 시켜 널리 보급시킴.	
7	요가교실	•일시 : 10월1일~ •장소 : 아우내장터 •참석인원 : 500명	강사를 초빙하여 지역민에게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8	꽃꽂이 교실	•일시 : 10월1일~ •장소 : 아우내장터 •참석인원 : 500명	지역주부들을 대상으로 꽃꽂이 강습회를 열어 꽃예술을 습득함은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가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허수아비축제	•일시 : 10월11일~20일 •장소 : 복면 남안리 유테평양 캠프 •참석인원 : 4,000명	허수아비를 다양한 내용의 테마로 구성 및 제작하여 가족과 함께 보고 즐길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펼침.	
10	동천안의 유적 발간	•일시 : 12월 •발행처 : 아우내문화원 •발행수 : 500부	우리고장의 유적, 향토사로 등의 바른 정립으로 이해를 높이고 교육자료로 활용함.	
11	작은도서관 운영	•일시 : 상시 •장소 : 아우내문화원 •참석인원 : 무제한	양질의 도서 및 향토자료등을 비치하고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 열람 및 대출을 통해 독서생활에 일조를 함.	
12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	•일시 : 11월5일 •장소 : 본원2층강당 •참석인원 : 100명	학생들의 창작능력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상장 및 부상품을 수여	
13	입상작품집 발간	•일시 : 11월 •장소 : 아우내문화원 •발행수 : 300부	청소년들의 생각과 사상이 묻어있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의 입상작품을 책에 수록하여 발간	
14	사이버 문화원 운영	•일시 : 상시 •홈페이지 : http://aunae.cult21.or.kr	지역 향토문화소식 및 문화활동상황등의 이미지, 동영상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운영함.	



2005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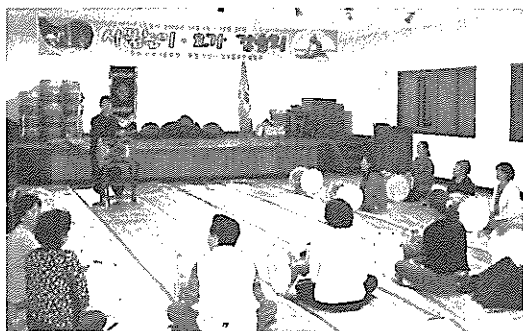
거북놀이 행진장면



꽃꽂이 교실



백일장 및 사생대회 접수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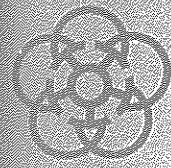
사물놀이 강습회



중요 및 서예교실 (강사: 주세응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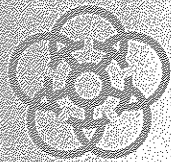


허수아비 축제



2005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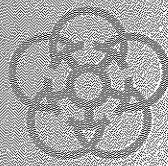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5년 신년교례회	· 일시: 1월 4일 11시 · 장소: 예산군청 회의실 · 참석인원: 150명	예산군내 각 기관 단체 임직원 참석, 신 년인사회 개최	
2	2005-1 이사회	· 일시: 1월 22일 11시 · 장소: 원장실 · 참석인원: 14명	결산 예산 이사회 개최	
3	문화예술교육시범 사업설명회 참가	· 일시: 1월 25일 14시~ 16시 30분 · 장소: 구 국립중앙박물관 강당 · 참석인원: 8명	임직원 참석	
4	2005년 정기총회	· 일시: 2월 17일 11시 · 장소: 예산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대의원 32명	결산예산총회개최	
5	추사취호대회 초대작가 1차 협의회	· 일시: 2월 26일 11시 · 장소: 예산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10명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취호대회 초대 작가 협의회 발족	
6	운영자문위원 및 편집위원 위촉	· 일시: 3월 17일 오후2시 · 장소: 원장실 · 참석인원: 운영자문위원 9명 편집자문위원 7명	운영자문위원 및 편집 자문위원회 발족	
7	예산군문화단체협의회 발기인 총회	· 일시: 4월 13일 11시 · 장소: 예산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22명	규약제정 협의회장으로 원장 피선	
8	2005-2 이사회	· 일시: 5월 11일 · 장소: 원장실 · 참석인원: 12명	제9회 추사문화제 및 제16회 추사취호 대회 계획 수립	



2005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여주도자기 비엔날레	· 일시 : 5월 26일 · 장소 : 경기도여주 비엔날레장 · 참석인원 : 50명	문화선진지 견학 임원 및 회원 참관	
10	고구려문화탐방	· 일시 : 6월 10일 · 장소 : 대전시내전시장 · 참석인원 : 100명	문화선진지 견학 임원 및 회원 참관	
11	추사회화대회 초대작가2차 협의회	· 일시 : 6월 11일 11시 · 장소 : 예산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22명	제16회 추사회화대회 발전방안 협의	
12	편집자문회의	· 일시 : 7월 16일 11시 6시 · 장소 : 아리장 가든 · 참석인원 : 11명	「예산문화」편집회의	
13	「극단단하」연극공연	· 일시 : 7월 16일 11시, 오후 5시 · 장소 : 예산문화회관 · 참석인원 : 연인원 1020명	「정기공연」2회공연	
14	추사회화대회 초대작가 3차 협의회	· 일시 : 9월 3일 · 장소 : 예산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14명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발전방안 토의	
15	제16회 추사회화대회 운영위원회의	· 일시 : 9월 10일 11시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19명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운영위원회제도」발족	
16	예산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식	· 일시 : 10월 7일 11시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300명	예산문화원 창립50주년이 되는 2005. 10. 15일을 기념하여 2005추사문화제 첫날에 기념식을 거행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7	예산사랑가족사진 공모전	· 일시 : 10월 7일 11시 · 장소 : 예산문화원, 추사고택, 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 300명	-아름다운 예산을 배경으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 공모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	
18	백수인간만세잔치	· 일시 : 10월 7일 12시 · 장소 : 예산문화원 구내 · 참석인원 : 150명	예산문화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하여 예산군내 백수노인 초청잔치 개최	
19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	· 일시 : 10월 7일 오후2시 · 장소 : 예산문화회관 전시실 · 참석인원 : 120명	수요서예, 금요서예 한국화반 전시참여	
20	「극단예촌」연극공연	· 일시 : 10월 7일 오후7시 · 장소 : 예산문화회관 공연장 · 참석인원 : 500명	「정기공연」2회	
21	전국청소년회화대전	· 일시 : 10월8일 11시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100명	전국의 응시학생 252명중 특선이상 확 보학생 100명 참석	
22	제11회 학생 미술실기대회	· 일시 : 10월 8일 10시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250명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참가 주관 : 예산미술협회	
23	제7회 학생 글짓기대회	· 일시 : 10월 8일 · 장소 : 화순옹주 홍문암 · 참석인원 : 150명	-예산군내 초·중·고생 참가 -주관 : 예산문인협회	
24	제10회 학생 풍물 겨루기대회	· 일시 : 10월 8일 오후 1시 · 장소 : 예당호조각공원내 · 참석인원 : 200명	-예산군내 초·중·고 풍물반 참가 -주관 : 풍물패 아사달	
25	추사학술강연회	· 일시 : 10월8일 오후 4시 · 장소 : 공연장 · 참석인원 : 150명	강사 :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	



2005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6	제9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 일시 : 10월8일 오후 7시 · 장소 : 문화원 광장 · 참석인원 : 1,000명	-축하공연 -예산군 및 예산문화원 영상소개 -추사가요제(음·면대향 노래자랑) 및 초대작가 향연 -유원숙에어로빅공연 -이광수민족음악원공연 -초대 가수공연	
27	추사회화대회 초대작가 회화축제	· 일시 : 10월 9일 10시 · 장소 : 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 35명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전국회화대회 초대 작가 114명을 초청하여 회화축제 개최	
28	제16회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전국회화대회	· 일시 : 10월9일 · 장소 : 공설운동장 특설과장 · 참석인원 대회참가 : 962명 대회참관 : 1,500명	수상자 현황 -장원 국무총리상 1명 -차상 문화관광부장관상 1명 -충청남도지사상 2명 -차하 예산군수상 9명 -특선 108명 -입선 344명	
29	추사회화대회 부대행사	· 일시 : 10월 9일 · 장소 : 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 2,000명	-오일장 전통음식잔치 -전통규금석문초대전 -추사체서각찍기체험 -추사서화가족탁본체험 -평양민족예술단공연 -충남국악단연주회 -숙대현대무용단공연 -어가행렬	
30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전국회화대회 수상작품전	· 일시 : 11월 5일 ~ 12월 4일 · 장소 : 대전, 서울, 예산 · 참석인원 : 500명	대전전시 : 11월5~9일 평송청소년수련원 -서울전시 : 11월20~22일 인사동하나로갤러리 -예산전시 : 11월30일~12월 4일 예산문화원 전시실	
31	문화학교 강좌	· 일시 : 연중계속 · 장소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교실 · 참석인원 : 매주 200명	-월요일 : 노래교실, 유아발레 -화요일 : 요가, 한학 -수요일 : 한학, 서예, 유아발레, 규방공예 -목요일 : 요가 -금요일 : 서예, 유아발레	



제16회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회화대회



운영위원회



추사회화대회 부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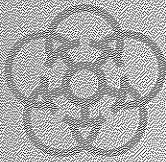
창립 50주년 기념식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전국회화대회 수상작품전



회화대회 참가자의 모습



2005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제15회 민속한마당 및 노인학교	· 일시 : 11. 24 예정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500명	65세 이상 노인들의 장기자랑 및 민속공연 한마당 개최	
2	농악교육 및 연습	· 일시 : 년중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80명	매주 월~금 까지 웃다리 풍물 및 사물놀이 교육	
3	국악단 교육 및 연습	· 일시 : 년중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35명	매주 토요일 경기민요 및 판소리 교육	
4	향토사연구 활동	· 일시 : 년중 · 장소 : 연기군내 및 군외 · 참석인원 : 200명	향토사료조사연구 활동 및 내고장 문화 교육	
5	문화유적답사	· 일시 : 5월 ~ 10월 · 장소 : 연기군내, 도내 · 참석인원 : 250명	유적지 순례를 통한 내고장 문화 알리기 및 유적답사	
6	제5회 연기대첩제 및 사생대회	· 일시 : 10월 11일 · 장소 : 서면 고북저수지 · 참석인원 : 300명	고려 때 몽고 합단적을 물리친 전 투지 에서 대제를 올림은 물론 학생들의 사생대회 개최	
7	경로효친의 달 행사	· 일시 : 5월 3일 · 장소 : 성덕사, 마곡온천 · 참석인원 : 350명	65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적 답사	
8	무로영화상영 및 특별공연	· 일시 : 6월 ~ 12월 · 장소 : 연기군면 · 참석인원 : 2,500명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무로영화 상영 및 특별공연을 함	
9	제6회 성삼문문화제	· 일시 : 10. 28 · 장소 : 금남면 문절사 · 대상 : 학생,유림,일반인 · 참여인원 : 300명	충신 성삼문을 기리는 추모행사 및 백일장대회 개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백일장개최	· 일시 : 10. 28 · 장소 : 문절사 · 대상 : 군내 초·중·고학생 · 참석인원 : 70명	군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생대회 개최 및 독후감 공모	
11	전통소리 봉사단 운영	· 일시 : 년중 · 장소 : 연기군내 · 대상 : 150명	판소리, 가야금 병창, 경기· 남도 민요풍 물단 운영	
12	전 시 회	· 일시 : 10. 15~20 예정 · 장소 : 전시실 · 대상 : 연기군민 · 참석인원 : 100명	서화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를 개최 및 도자기 전시회	
13	군민친선바둑대회	· 일시 : 11. 26~27 예정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150명	바둑기능인 양식 및 군민들의 상호친목 도모	
14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	· 일시 : 1. 3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대상 : 문화예술인 · 참석인원 : 500명	2004년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	
15	효자효부표창	· 일시 : 11. 24 예정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대상 : 8개읍면효자효부 · 참석인원 : 500명	8개읍면을 대상으로 효자효부표창	
16	독서실운영	· 일시 : 년중 · 장소 : 연기향토사무실 · 참석인원 : 연기군민	도서(고서)를 구입하여 독서실 운영	
17	충남문화 예술인대회	· 일시 : 10월 29일 · 장소 : 당진문화회관 · 참석인원 : 연기군민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 여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 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 문화창달 의 계기를 마련	



2005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문화유적답사



전통소리 봉사단 운영



효콘서트 민속한마당



해맞이 우리소리한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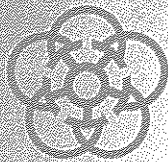


무료영화상영



2005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5년도 신년교례회	• 일시 : 1. 3(11:00) • 장소 : 천안웨딩코리아 • 참석인원 : 300여명	공공기관,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기업 계, 체육계 등 각계 인사를 초청 신년인사회 개 최	
2	원장 이·취임식	• 일시 : 2. 14(14:00) • 장소 : 강당 • 참석 : 300여명	향토문화창달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다 퇴임 을 하시게 된 민병달 원장님 이임과 새로이 선 출된 권연옥 원장님의 취임식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문화예술인 등 참석	
3	정월 대보름 맞이 장승축제	• 일시 : 2. 23(11:00) • 장소 : 풍세면 민학 전가 • 참여 : 100여명	장승공원에서 신년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 한 제례 전통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민속발굴의 의미를 새김	
4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일시 : 2. 24 - 26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참여 : 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1000여명	묘기연 및 대형연날리기시연회, 연날리기, 제기 차기, 널뛰기, 투호던지기 등 읍·면·동 대항 민속 놀이 경연대회 및 연 만들기, 제기 만들기 교실 등 실시 시민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의 장	
5	2005 문화학교	• 기간 : 4월 ~ 12월 • 과목 : 14개 과목 • 수강인원 : 400여명	요일별 개별강좌 기타, 다도, 꽃꽂이, 한문, 사진 등 14개 과목 유적지순례(5월 31일)-전라도 담양 사진교실 수료생 작품전(11.24 ~ 27)	
6	수채화 교실	• 기간 : 4월 ~ 12월 (매주 월, 화요일) • 수강인원 : 60명	소묘, 데생, 수채화 초급 및 중급과정 아외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등 년 1회 작품전 실시	12.22~25 작품전
7	시창작 교실	• 기간 : 4월 ~ 12월 (매주 금요일) • 수강인원 : 20명	예술강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론, 수사론, 문장 론 등 시창작 강의년 1회 시집 발간	
8	향토유적순례교실 (고적답사반 운영)	• 기간 : 4월 ~ 11월 (격주 금요일) • 수강인원 : 30여명	향토유적지를 중심으로 답사하는 프로그램 월 2회 답사(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및 실내강의 등 실시	
9	한고를 한문화운동 여류시인 김부용 추모제	• 일시 : 4. 17(11:00) • 장소 : 광덕산 윤초묘역 • 참석 : 100여명	분향시낭송, 헌화, 제례, 다례, 시세계 조명강의 등 문인협회, 향토사연구소, 문화가족, 회원,차 문화협회 천안지회 회원 등 100여명 참석	
10	온조대왕 제향 봉행	• 일시 : 5. 15 • 참석 : 50여명	고전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온조대왕의 제향 봉행	



2005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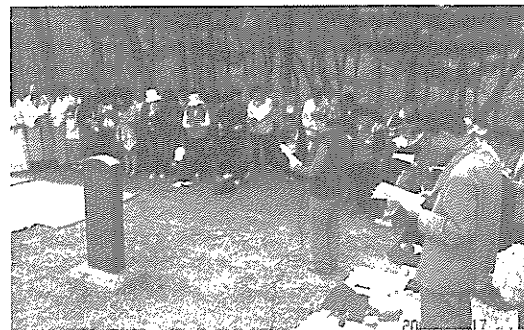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여성합창단 운영 -제12회 정기연주회	• 일시 : 5. 31(19:00) • 장소 :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참여인원 : 1,000여명	천안문화원 노래사랑 문화가족 여성합창단 (레이디스 싱어즈)의 열두째 정기연주회 단원 60명, 성악가 특별출연 등 매주 토요일 오전 합창연습, 영상음악감상	
12	개원 51주년 기념 문화예술제	• 일시 : 7. 10 • 장소 : 강당, 전시실 등 • 참석 : 200여명	기념식(기념사, 축사, 유공문화예술인 표창, 사업보고, 지역문화선언문낭독, 문화원승가 합 창 등), 김성락 초대전 등 실시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문화예술인 등 참석	
13	"화미회" 수채화전	• 기간 : 7. 10 ~ 14 • 장소 : 문화관람실 • 참여 : 회원 12명	수채화교실 수강생 중 중급과정을 이수한 12명 으로 구성된 "화미회" 일곱 번째 작품전	
14	문화체험프로그램	• 기간 : 7월중 • 장소 : 천안, 논산지역 • 참여인원 : 200여명	천안지역 문화소외계층 대상(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충남지역의 유교문화(서원)탐방	
15	글짓기 교실	• 일시 : 7. 25 ~ 31 (10:30~12:30) • 대상 : 초등학교 1~6년생 • 인원 : 60여명 수강	초등학교 저학년반(1~3학년), 고학년반(4~6학 년)구분하여 신청접수 후, 60여명 수강 작문지도, 독서지도, 원고지 작성법 등 강의	
16	『천안문화』 40호 발간	• 발행일 : 8. 5 • 발행부수 : 2,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지역 문화 예술 소식, 논문,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17	이태리 빠사로첼비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일시 : 9. 26(19:30) • 장소 : 천안시청 봉사홀 • 참석 : 1,200여명	천안시 신청사 개청 기념과 함께 품격 있고 예 술성 있는 공연을 개최하여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 스트라 공연을 통한 천안시민의 문화욕구를 충 족시키고 시민 화합의 장 마련	
18	2005 천안홍타령축제	• 일시 : 10. 1 ~ 3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천안역 및 아라리오광장 등 • 참여인원 : 200,000여명	9. 30 - 거리퍼레이드 및 전야제(열린음악회 등)천안지역의 고유 정서가 녹아진 「홍타령 춤 • 노래 • 의상」을 주테마로 신명, 감동, 열정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참여형 열린 축제 10.1~3 : 개막식, 춤 경연, 자유공연, 아시아도시페스티벌, 부대행사 등 실시	
19	제35회 학생 글짓기 • 사생대회	• 일시 : 10.2(14:00~17:00)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참여인원 : 700여명	초 • 중 • 고생 대상 실기대회 개최 (학교별-부문별 각 10명씩 추천 받아 실시) 시상식 : 10. 8(14:00)	
20	뮤지컬 "명성황후" 초청공연	• 일시 : 10.15~16 (15:00, 19:00) • 장소 : 천안시청 봉사홀 • 관람인원 : 5,000여명	51만 천안시민의 염원이었던 천안시청사 신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전세계가 극찬한 뮤지컬 "명 성황후"초청공연을 통해 천안시 및 천안문화원의 이미지 위상 제고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1	향토문화자료 24집 "천안과 함께 한 역사 인물" 발간	• 발행일 : 10. 28 • 발행부수 : 1,000부	시대별 천안의 인물을 조사, 그 생애와 업적을 정리 기 정리된 천안의 인물사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및 수정하여 발간	
22	한마음 실내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	• 일시 : 11. 8(19:00) • 장소 : 천안시민 문화회관 대강당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12회 정기연주회로 클래식, 외국민요, 가곡 등 연주 및 특별출연 (해금, 대금연주자 등) 등 80분간 실시 단원 30명으로 구성 매주 월요일 오전 연습	
23	천안문화사랑 운영	• 규모 : 30평 • 장소 : 천안역 역사내 • 기간 : 10월 ~ 12월	천안역 역사내 문화홍보관인「천안문화사랑」의 천안관련 홍보물(천안의 역사, 문화유적, 민요, 인물 등) 홍보판 제작 및 천안의 문화환경, 도시 현황 등 소개	
24	향토사연구소 운영 "향토연구" 제 16집 발간	• 발행일 : 11월 말 • 발행부수 : 1,000부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기회지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수록	
25	2005 오늘의 천안미술전	• 기간 : 12. 12 ~ 17 • 장소 : 전시실 • 인원 : 30여명	〈2005 오늘의 천안미술전 - 교수작품초대전〉 대상 : 단국대 등 관내 대학 교수 부문 :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공예 등	
26	『천안문화』 41호 발간	• 발행일 : 12월 초 • 발행부수 :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 소식, 논문,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27	청유회 작품전	• 기간 : 12.28 ~ 31 (4일간) • 장소 : 전시실 • 인원 : 15명	유화교실 수강생들의 세 번째 수료 작품전	
28	영상문화교실	• 기간 : 11월 ~ 12월	영상자료(DVD, VCD, CD-T, CD 등)구입	
29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12월중 • 장소 : 천안문화원내 문화사랑방 • 참여인원 : 100여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천안문화원 동아리 공연, 시낭송, 청소년독서서를 토론회 및 초청 문학강연 연주단체 초청공연 등 실시	
30	향토사조사연구사업	• 기간 : 연 중	향토사 관련 자료 수집(문헌 및 향토사 관련 원고 등) 등	
31	향토사료관 운영	• 기간 : 연 중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 보완 등 각급 학교의 단체관람, 일반시민 등 연중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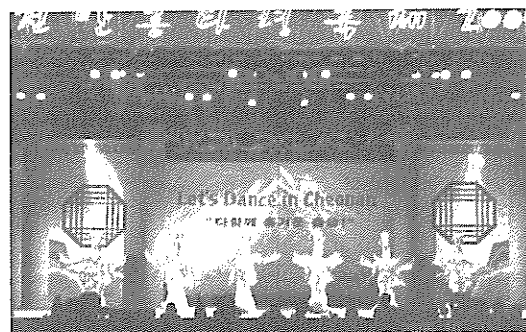
2005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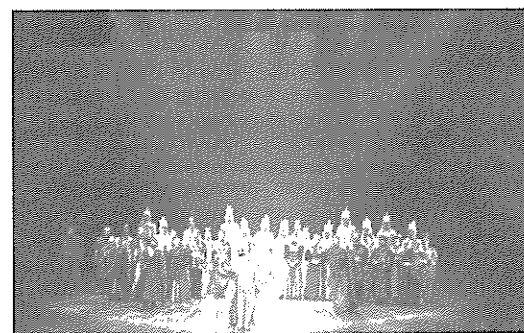
문화원장 이·취임식



조선조 여류시인 윤초 추모제



2005 천안 흥타령축제



뮤지컬 명성황후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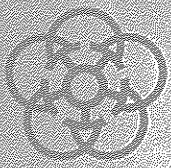
개원 51주년 기념식



정월대보름맞이 민속 한마당

2005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	2005 신년 교례회	· 일시 : 1.5 오후2시 · 장소 :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 참석인원 : 200명	· 신년사 · 축사 · 상호교례 · 풍물패공연 · 다과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 역사회의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
2	문화학교	· 기간 : 1.3~1.31 · 장소 :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 114명	등계청소년문화학교 -미술교실(초급,중급) -어린이요가교실(초급,중급) -종이접기교실 -가야금교실 -바둑교실 (계5강좌) -영화상영(무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 학기간중 다양한 문화강좌 를 개설함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 낼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 화 체험의 장 마련
		· 기간 : 7.25~8.23 · 장소 :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 137명	하계청소년문화학교 -미술교실(초급,중급) -사랑의수화교실(초급,중급) -어린이요가교실(초급,중급) -종이접기교실 -가야금교실 -어린이요가교실 (계6강좌) -영화상영(무료)	수료식때 강좌별 발표회 시 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업기 간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수업참여 유도
		· 기간 : 연중 · 장소 : 문화원 · 수료인원 : 50명	일반인 문화학교 -국악교실(가야금,장구,민요) -풍물교실	국악교실 수강생 각층지역 문화축제에 참여
3	전시회	· 기간 : 3.5~3.6 · 장소 : 문화원전시실	제2회 한국춘란전시회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 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출신예술인의애향심 및 창 작의식 고취시키고자 함
		· 기간 : 10.20~10.22 · 장소 : 문화원전시실	제11회 칠갑사진전시회	
		· 기간 : 12.6~12.7 · 장소 : 문화원전시실	향토작가 서화전	
4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	· 일시 : 4.23 10:00~17:00 · 장소 : 칠갑산 장승 공원일원 · 참석인원 : 7000여명	· 개막식 · 장승감기시연 및 장승제시연 · 장승명문식 · 가족장승감기체험 · 학생 그리기 대회 및 가족 허수아비 창작 공모전 · 점공예체험 · 돌탑쌓기체험 · 전통민속놀이체험(투호,널뛰기,그네뛰기)	우리고장의 문화재,지명,전설 등 현지 자료조사를 통하여 향토사 편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2005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 산나물채취 체험· 추억 사진찍기 · 소원성취 기원문 달기 · 국악공연(청무풍물패, 청양초 사물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김대균)초청 줄타기공연 · 공예품 전시.판매 · 먹거리장터(무료시식코너) · 청양의 맛 먹거리 체험 · 청양구기자주 제조체험(무형문화재) · 춘포짜기체험(무형문화재) · 청소년 어울마당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 제일의 장승 문화 보존지역으로 자리매김 하여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 문화 축제로 육성
5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제1차 · 기간 : 5.10 · 참여인원 : 37명	순례장소 청양출발→운주사 천불천탑(보물제796~ 제798호 소장)→쌍봉사 칠갑선사탑(국보 제57호)→청양도착	유적지순례를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 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제2차 · 기간 : 10.14 · 참여인원 : 43명	순례장소 청양출발→복원된 청계천→경복궁→아! 어머니전(용산전쟁기념관)→청양도착	
6	청소년 역사체험 순례	· 1차 : 6.14(140명) · 2차 : 6.17(80명)	·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설 순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족정기선양과 호 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순례장소 청양출발→충의사→서산마애삼존불→해미 읍성→간월도 간월암→김좌진장군생가 및 기념관→청양도착	· 1차 : 청양초등학교 · 2차 : 정신중학교
7	청소년 음악회	· 일시 : 7.30 · 장소 : 칠갑산 자연 휴양림 · 참석인원 : 400여명	음악회 프로그램 거부, 세계로가는기차, 행진, 아름다운 너, 나무, 체념, 예감좋은날 등 (총17곡)	노래와 음악을 통해 바른 심 성을 배양하고 정서를 함양 시키고자 함
8	애항운동 영화상영	· 일시 : 8.13 · 장소 : 문화체육센터 · 참석인원 : 300여명	· 60주년 기념 음악회 및 영화상영 · 영화 : 천군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0	문화가족 씨름운영	· 일시 : 11.8 · 참여인원 : 19명	·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우리고장의 문화재, 지명, 전설 등 현지 자료조사를 통하여 향토사 편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11	문화가족 작품 발표회	· 일시 : 11.14~11.15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6수강생 발표(민요부, 가야금부) · 수강생 작품전시 종이접기(25작품) 도예교실(15작품) 미술교실(30작품)	문화학교수강생(민요, 가야금, 종이접기, 도예교실, 미술교실 등)작품전시 및 발표회
12	문화의밤	· 일시 : 11월중	· 시낭송, 음악, 무용등 문화향수권 확대로 지역민에게 문화체험의 계기마련	
13	고유민속 예술발굴 전승	· 일시 : 11월중	· 제3회 청양군 바둑대회	우리고유의 민속놀이를 재현 하여, 동호인들의 친목과 우 의를 다지는 계기마련
14	내고장 문화역사 인물발굴 홍보사업	· 일시 : 11월중	· 우리고장의 문화역사인물을 발굴,홍보 하여 애항심과 자긍심 고취	
15	발간사업	· 발행부수 : 각1,000부 · 발행일 : 11,12월	· 향토민속발굴 ·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 청양의 당제, 산제 · 청양의 지명과전설 · 칠갑문화 15호
16	문화코너 운영	· 기간 : 연중	· 자료열람실 (전국향토사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 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서교 육에 기여
17	사이버 문화원 운영	· 일시 : 연중 · 홈페이지 주소 : cheongyang. cult21.or.kr	· 문화소식 · 청양의 역사소개 · 축제/행사 · 참여마당 등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 이스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 역 정보센터로 운영함.



2005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신년교례회



백제문화권 순례



청소년 역사체험 순례



칠갑산장승문화축제



한국촌란전시회



광복60주년기념 음악회

2005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단위 : 천원)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중앙대제	· 일시 : 2.22.(음1.14) 19:00 · 장소 : 경이정 · 참석인원 :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100여명	태안의 전통문화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국태민안 시화연 풍등을 기원하는 대제	
2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 일시 : 3.10.(음 2. 1) · 장소 : 이원면 관리마을회관 · 참석인원 :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100여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 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 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갈래로 지 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의날인 음 2 월 1일에 벚가릿대를 뉘인다. 이때 장대 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행사	
3	2005자매결연 유적답사	· 일시 : 4.14~15(2일간) · 장소 : 서울 고궁, 의왕 문화원 · 참여대상 : 임원, 문화가족 자· 고문위원	의성을 비롯한 경기도의 역사 문화 유적을 답사하여 지역 향토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 냄은 물론 서울 고궁 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고궁 문화를 배우고 고궁에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의 흔적을 찾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4	문화가족체험단	· 일시/장소/참여인원 · 차 : 9. 1(벚가리마을-30명) · 차 : 10. 22(논산유적지-25) · 차 : 10. 30(천연염색, 생태계체험-20명)	가족과 자연,문화라는 테마속에서 가족 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좋 은 추억을 만들	
5	향토민속 도서관 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문화원 · 참석인원 : 10명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서 관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과 함께 전국의 지역문화자료를 언제나 쉽게 열 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의 각종문헌을 수집하여 제본으로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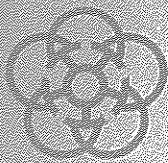
2005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단위 : 천원)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6	당제및민속행사지원	· 일시 : 11월~2월 · 대상 : 남면 당암리, 원청리, 소원면 파도리, 고남면 누동리, 근흥면 신진도리	지역에서 전래되어 오던 당제를 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함. 태안지역의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당제 행사를 계승 지원하여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함	
7	청소년문화 체험캠프	· 일시 : 7.22~7.24 · 장소 : 남면초등학교, 테마학습장 · 대상 : 태안지역청소년 200명	연극반, 문예창작,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생활문화 프로그램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한다.	
8	주말영화교실	· 일시 : 4.2~11.19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문화원 · 대상 : 태안군민, 학생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매주 자료지를 발행하고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함	
9	제14회 소성백일장	· 대상 : 초·중·고학생 · 참가인원 : 225중 63명입상 10개학교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 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학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 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하여 심사함	
10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 일시 : 6.18(화) 14:00 · 장소 : 어린이 놀이터 · 참석인원 : 406명중 235명입상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풍경, 경험화 등 사상 대회를 실시함	
11	고남면 조개부르기제	· 일시 : 11월중 · 장소 : 고남면 누동리 바닷가 · 참석인원 : 마을주민 100명	누동리1리 대동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행사로 제단을올리기 축문읽기, 조개부르기 한마당의 순으로 진행된다	

(단위 : 천원)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태안문화원 초대전	· 일시 : 11.25~11.29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 전시작품수 : 50점	샘골스케치회, 예술태안회, 서예협회 태안군지회, 태안사진동우회, 태안중등미술교육연구회, 태안초등미술교과교육연구회, 연목회, 안면도현대미술교류회, 백화사진동우회, 한우리회등 태안내 예술단체참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교류 및 유대강화	
13	움직이는 문화공연	· 일시 : 10. 18/ 1789부대(80명) 10. 21/ 모향부대(100명)	장병들을 위해 위문공연	
14	태안군 문화예술인워크샵	· 일시 : 10월13일 · 장소 : 몽산포회관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표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지역 문화 예술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교의 시간 등을 실시	
15	사이버문화원	· 일시 : 1월~12월 · 장소 : 문화원 홈페이지관리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16	문화예술홍보 지원단운영	· 일시 : 1월~12월 · 대상 : 태안군 8개 읍·면 상가 및 기관단체	문화행사를 우편으로 홍보하고 지역문화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정보를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8개읍·면에 문화예술 홍보 지원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단체의 홍보부담을 덜어줌	
17	소성의향기11집	· 일시 : 12.31 · 발간부수 : 1,000부 · 배부처 : 문화가족, 전국 문화원, 군내 각기관 및 단체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등을 수록한 책자발간	
18	지역문화학교	· 일시 : 3월~11월 · 장소 : 문화원 · 참가인원 : 150명	프로그램 전통무용 : 3~10월 사물놀이 : 3~10월/ 수 지 침 : 4~9월 통기타 : 3~11월/ 요 가 : 4~10월	



2005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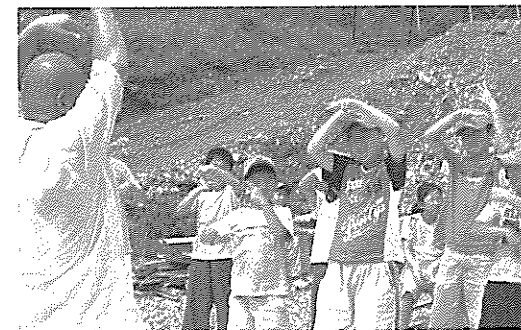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9	자염축제	· 일시 : 8월 17일 · 장소 : 근흥면(남금마을) · 참석인원 : 1,000명	소금과 관련돼 전시장, 체험학습장, 소금축제, 종합갯벌 체험마을을 조성함	
20	명사발굴 및 선양사업	· 일시 : 5월~12월 · 참여인원 : 50여명	태안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선양해야 할 명사를 찾아 그에 대한 자료를 연구 정리하며 선양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21	역사마을 추가사업	· 일시 : 1월~4월 · 장소 : 근흥면 마금리	소금체험장의 체험용 수차의 수명을 늘리고 기후와 관계없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목재 보호각 및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함	
22	우리고장 문화추억만들기	· 1차 : 7. 14(36명)-문화유적지탐방 · 2차 : 7. 27(43명)-생태테마기행 · 3차 : 9. 1(80명)-벚가리마 · 4차 : 9. 9(50명)-독살, 자염문화체험	우리지역의 문화적, 지역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향토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조상들의 우수한 생활문화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유익한 추억들 만들고자함	
23	군민의 날 축제	· 일시 : 4. 30~5. 1 · 장소 : 유채꽃 단지, 군청 광장	문화행사로 편성하여 군민이 쉽게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 되도록 추진코자 함	
24	태안 6쪽마늘 요리축제	· 일시 : 6. 18~19(2일간) · 장소 : 군청앞 동남지구	· 태안에서 생산되는 6쪽마늘 품질 우수성 대·내외적 홍보 · 소비자들에게 태안 6쪽마늘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경영 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25	생활문화 실천운동	· 일시 : 10. 21 · 장소 : 문화원강당 · 참여인원 : 100여명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고자함	



가족문화체험



군민의날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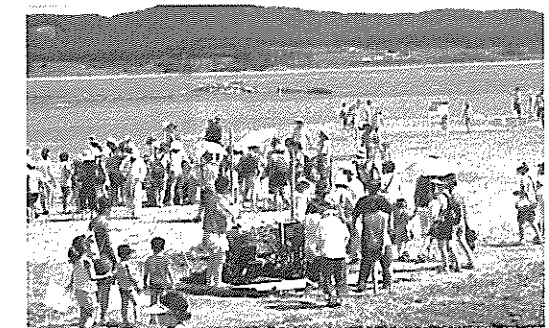
우리고장 문화추억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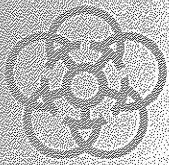
움직이는 문화공연



6쪽마늘 요리축제



자염축제



2005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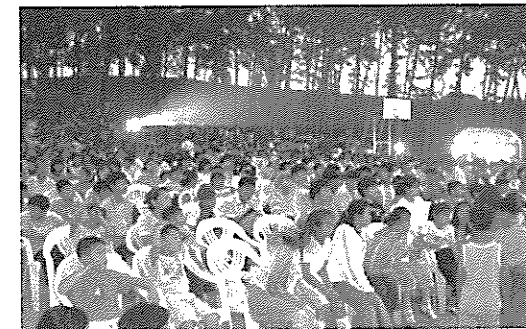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1.4(토) • 장소: 홍성군청대강당 • 참석인원: 250여명	신년을 맞아 관내 각급기관 사회,문화 단체장들 간의 친목 도모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를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함	
2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 일시: 2.22(화) • 장소: 홍성군청 홍주의사종 옆 논 • 참석인원: 600여명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고자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등 행사를 마을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함	
3	찾아가는 문화원	• 일시: 1월-12월 • 장소: 홍성군일원 • 참석인원: 320여명	각 마을이나 학교 기관 단체를 찾다니며 문화 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고 현장에 체험 위주로 시행하며 보다 실감있게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줌	
4	전통 관례 및 계례 재현	• 일시: 5.16(월) • 장소: 혜전대학 노천극장 • 참석인원: 600여명	전통 방식에 따른 우리 고유의 성년식을 지역대 학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문화원과 함께하는 자 리를 마련하고 성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 을 심어줌	
5	문화체험 프로그램	• 일시: 6월-10월 • 장소: 충청남도내 및 홍성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문화소외 계층과 청소년들에 게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직접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됨	
6	제11회 만해제	• 일시: 10.4(화)-5(수) • 장소: 홍성군일원 • 인원: 25,000여명	만해 한응운 선사의 추모 및 행사와 각종 문화 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잔치	
7	홍성문화 발간	• 일시: 연 중	홍성의 문화소식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해 주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줌	
8	거리영화제 (좋은 영화 감상하기)	• 일 시: 8월-12월	문화소외계층의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영화 감상의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기쁨 및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문화적 정서를 높이고자 함	



신년교례회



전통관례 및 계례제현



거리영화제(좋은영화감상하기)



제 11회 만해제



찾아가는 문화원



자염축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전국문화원연합회충청남도지회는 이런일을 합니다.

충남 지역내의 지방문화원 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 문화원
회원의 교육 및 친목도모사업 · 충남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 · 도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 ·
도민문화향수권 시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표지이야기 - 미내다리(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1호)는 처음 다리의 역사에서부터
원래 미내다리가 평교로 있었으나 큰 장마에 무너져 수년간 방치되던 것을
영조7년(1731) 홍예교로 다시 복원하고 삼남 제일교(三南 第一橋)라 자랑하
면서 마지막에 “미수 장류 미교 장류”(溪水長流 漢橋長留)라는 문구도
새겨놓았다.
위치 : 충남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

가나다순

공주문화원	http://gongju.cult21.or.kr/
금산문화원	http://geumsan.cult21.or.kr/
논산문화원	http://nonsan.cult21.or.kr/
당진문화원	http://dangjin.cult21.or.kr/
대천문화원	http://daecheon.cult21.or.kr/
부여문화원	http://buyeo.cult21.or.kr/
서산문화원	http://seosan.cult21.or.kr/
서천문화원	http://seocheon.cult21.or.kr/
성환문화원	http://sunghwan.cult21.or.kr/
아우내문화원	http://aunae.cult21.or.kr/
예산문화원	http://yesan.cult21.or.kr/
온양문화원	http://onyang.cult21.or.kr/
조치원문화원	http://jochiwon.cult21.or.kr/
천안문화원	http://cheonan.cult21.or.kr/
청양문화원	http://cheongyang.cult21.or.kr/
태안문화원	http://taean.cult21.or.kr/
홍성문화원	http://hongseong.cult21.or.kr/



충남도내 문화원 현황

가나다순

(2005. 12월 현재)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면적 (평)	문 화 가 족			전화 번호
				원 장	사무국장	직 원	
전국문연 충남도지회	논산문화원 內			지회장 박응진	사무처장 이준창	간 사 전현희	732-2395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184-2	54. 12. 16	650	정재욱	현대수	류재열 최선미	852-9005 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금산다락원	68. 3. 5	364	김호택	안용산	김현봉 석한숙	754-2724 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20	박응진	이준창	전현희	732-2395 (730-4632) 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군.읍 읍내리 50-6	58. 4. 5	341.8	정정희	이문호	김현숙	354-2367 356-3850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12. 4	287	윤병배	오종화	이혜선	934-3061 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읍 동남리 722	54. 3. 1	145	윤준웅	김인권	이미영	835-3318 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65. 2. 11	570	신상찬	한기홍	김영철 김기영 안지현	669-5050 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읍 사곡리62	65. 1	300	양수철	이경진	최신희 정찬영	953-0123 953-0133
성환문화원	천안시 성환읍 성환2리 449-66	68. 1. 25	84	송용삼	신광식	김정선	581-2101 582-1725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우용제	조동준	임미정	564-1022 563-1021
예산문화원	예산읍 대회리 247-11	55. 11. 15	344.07	이진자	김문희	김찬민 이향옥	335-2441 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동206-24	64. 11. 24	285	박노을	장기승	조병준 김정태	545-2222 542-4444
조치원문화원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21-1	64. 10. 14	509	장 영	이원재	길미숙 김혜자 이진세	865-2411~2 864-0870
천안문화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 10	800	권연옥	이정우	이은민 정종현 최강덕 양혜정 민근홍	575-3004 577-3004
청양문화원	청양군.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	정재권	임두순	복은주 차승원	943-4774 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읍 남문3리 53-11	90. 6. 5	242	정우영	정지수	이연숙 김유미	674-2192 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읍 고암리 689-4	54. 3. 31	605	전용택	김경식	강철식 김기정 신정아	632-3613 633-1199

충남 문화

ChungNam Culture

2005

제 9 호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